검은 가면

Raffles: Further Adventures of the Amateur Cracksman

E.W. 호넝 (E. W. Hornung) (1866–1921)

1901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W. 호넝 (E. W. Hornung), "Raffles: Further Adventures of the Amateur Cracksman" (Chatto & Windus 1901 (US: The Black Mask))

저자

E.W. 호넝 (E. W. Hornung) (1866–1921)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07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GB10 로컬) · 검수 Claude Opus 4.8 (검수·교정)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19세기말 영국 신사 도둑 이야기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삽화]

래플스

아마추어 괴도 래플스의 모험

E. W. 호넝 저

목차

편안한 일은 없다 주빌리 기념 선물 파우스티나의 운명 마지막 웃음 도둑을 잡는 법 옛 연인 잘못 찾아간 집 신들의 무릎

래플스

그것은 결코 편한 일은 아니었다.

광고를 주의 깊게 보라는 전보를 받았을 때와, 막상 그 광고를 확인했을 때 중 어느 쪽이 더 놀라웠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 글을 쓰는 지금 내 앞에는 그 전보가 놓여 있다. 전보를 보니 1897년 5월 11일 오전 8시에 비어 스트리트에서 접수되어, 8시 반이 되기 전에 홀로웨이 우체국에 도착한 모양이다. 그 삭막한 동네에서 전보는 때마침 나를 찾아냈다. 날이 뜨거워져 다락방이 견딜 수 없게 되기 전, 씻지도 못한 채 일에 몰두하고 있던 나를 말이다.

“매튜린 씨가 데일리 메일에 낸 광고를 한번 보세요. 당신에게 딱 맞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권하는 것이니 꼭 확인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말해 보겠습니다. —— ——”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숨이 넘어갈 듯한 기세로 그대로 옮겨 적는다. 다만 마지막에 적힌 이니셜은 생략하겠다. 그 이니셜이야말로 놀라움의 정점이었으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어 스트리트에서 마차 경적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 진료실을 둔, 기사 작위까지 받은 그 전문의 말이다. 그는 한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를 친척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나를 수식하던 형용사는 내게 또 다른 모욕처럼 느껴졌다. 내가 자초한 일이었으니, 그 대가를 치르며 죽어가는 것 또한 나의 몫이었다. 만약 내가 다시 그 집 문턱을 넘는 무례를 범한다면,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쫓겨나게 될 터였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작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아니 그 이상의 모욕을 내 면전에 대고 퍼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종을 울려 하인을 부른 뒤 그 자리에서 잔인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이 전보 한 통에 마음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경악스러움을 표현할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다. 말 그대로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갈수록 명백해졌다. 이 전보만큼 발신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글도 없을 것이다. 비굴할 정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 만큼 우스꽝스럽게 정확하고, 푼돈을 아끼려 애쓰면서도 '마투린 씨'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만큼은 통 크게 내는 그 사람 말이다. 대머리 부분부터 발의 티눈까지, 그 모든 면이 나의 저 저명한 친척과 판박이였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머지 내용도 그답긴 했다. 그는 자선가라는 명성이 있었으니, 결국 그 명성에 걸맞게 행동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

니면 아무리 치밀한 사람이라도 가끔 저지르는 돌발적인 충동 때문일 수도 있다. 이른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다가 우연히 이 광고를 보았고, 죄책감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일지도 모른다.

업무가 밀려 있긴 했지만, 아무쪼록 가능한 한 빨리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당시 나는 교도소 생활에 관한 연작 기사를 쓰고 있었고, 교도소 시스템 전반을 낱낱이 파헤치는 중이었다. 한 문학·자선 일간지는 내가 제기한 '고발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사안이 중대할수록 더욱 열을 올리며 보도했다. 창작 활동을 하기에는 그리 넉넉지 않은 조건이었으나, 당장 내게는 임시방편으로나마 큰 도움이 되는 수입이었다. 마침 8시 우편물로 첫 번째 수표가 도착해 있었다. 내가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만 <데일리 메일>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을 말하면, 당시 내 형편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 광고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광고문을 직접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모든 게 설명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다. 그저 "건강이 쇠약한 노신사를 모실 남성 간병인이자 상주 수행원이 필요함"이라는 문구만 기억날 뿐이다. 남성 간병인이라니! 뒤이어 "대학 졸업자나 퍼블릭 스쿨 출신에게는 후한 급여를 지급함"이라는 황당한 조건까지 붙어 있었다. 그런데 문득, 내가 지원하기만 하면 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이 일을 꿈이라도 꿀 만한 다른 '대학 졸업자나 퍼블릭 스쿨 출신'이 어디 있겠는가? 나만큼 처지가 절박한 사람이 또 있을까? 게다가 마음을 돌린 친척은 나를 위해 말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줄

적임자이기도 했다. 남성 간병인을 구하는 일에 그의 추천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고 그 업무가 반드시 혐오스럽거나 불쾌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적어도 그곳의 환경은 내가 머무는 허름한 하숙집이나 비좁은 다락방보다는 나을 것이 분명했다. 음식도, 그리고 그 불쾌한 수용소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떠올릴 수 있는 그 어떤 생활 조건들도 그곳이 훨씬 나을 터였다. 나는 곧장 전당포로 뛰어들었다. 이런 용건으로 찾은 것만 처음일 뿐, 낯선 곳은 아니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좀 오래되긴 했어도 좀좀이 먹은 흔적 없이 말끔한 정장 한 벌과 새 밀짚모자를 걸친 채 전차 위층에 올라 바람을 쐬고 있었다.

광고에 적힌 주소는 얼스 코트의 어느 아파트였다. 그곳에 가려면 도시를 가로질러 한참을 가야 했고, 디스트릭트 선을 갈아탄 뒤에야 7분 정도를 더 걸어야 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얼스 코트 로드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내 코끝에는 타르를 바른 나무 보도의 향긋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다시 문명 세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여기에는 코트를 차려입은 신사들과 장갑을 낀 숙녀들이 가득했다. 내가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예전에 알던 사람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점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뼛속 깊이 그런 예감이 들었다. 나는 반드시 이 자리를 꿰찰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그 친구의 심부름을 하러 가다가도, 이 나무 보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친구가 환자용 바퀴 의자에 앉아 내가 뒤에서 밀어주기

를 고집하며, 이 길을 가볍게 미끄러지듯 지나가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꽤나 초조해졌다. 그곳은 어느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 더미에 불과했다. 1층 창문 앞 울타리에는 어느 의사의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 명패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의사가 참으로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가엾게 느껴졌다. 이런 곳보다는 훨씬 근사한 아파트에서 지내는 상상을 해왔기 때문이다. 발코니조차 없었다. 문지기는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몸이 불편한 환자가 3층에 있다니! 나는 차라리 마운트 스트리트에 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후회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내려오던 한 낙담한 기색의 남자와 어깨를 부딪쳤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 프록코트를 차려입은 혈기 왕성한 청년이 오른쪽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매튜린 씨가 여기 사십니까?" 내가 물었다.

"맞아요." 혈기 왕성한 청년이 유쾌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 저기…… 《데일리 메일》에 실린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서른아홉 번째군요!" 그가 흥분하며 외쳤다. "계단에서 만난 분이 서른여덟 번째였으니, 아직 하루가 다 가려면 멀었습니다. 아, 빤히 쳐다봐서 미안합니다. 네, 예비 시험은 통과하셨으니 안으로 들어오시

죠. 합격하신 분이 몇 안 되거든요. 아침 식사 직후에 몰려왔던 분들은 다 끝났고, 지금은 문지기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환자들을 정리하고 있는 참입니다. 방금 오신 분은 20분 만에 처음으로 온 손님이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커다란 베이 윈도우가 달린 빈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창 덕분에 혈기 왕성한 내 친구는 밝은 빛 아래서 나를 더욱 까다롭게 훑어볼 수 있었다. 그는 전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노골적으로 나를 살피더니, 이윽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대학 출신인가?"

"아니요."

"퍼블릭 스쿨 출신이라고요?"

"네."

"어느 것 말인가요?"

내가 그에게 말해주자, 그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만났군! 무엇이 공립학교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두고 말다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퇴학당했다고?"

"아니요."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대답했다. "아니요, 퇴학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저도 제 차례에 질문 하나 해도 괜찮겠지요? 설마 질문 좀 했다고 저를 쫓아내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매튜린 씨의 아드님이십니까?"

"아니요, 제 이름은 테오발드입니다. 아래층 문패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군요."

"의사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분의 주치의입니다." 테오발드가 만족스러운 눈빛을 띠며 말했다. "매튜린 씨의 주치의 말입니다. 제 권유로 남성 간병인 겸 수행원을 두기로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신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겨우 두세 명 정도만 만났습니다만, 당신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군요. 매튜린 씨는 직접 묻고 싶은 질문들이 따로 있어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더 진행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분께 당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좋겠군요."

그는 입구에 훨씬 더 가까운 방으로 들어갔다. 방이 워낙 좁았던 터라 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내게까지 들렸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문 두 개가 닫혀 있었다. 나는 의사가 돌아와 나를 부를 때까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웅성거림을 들으며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환자를 설득해서 당신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하지만 결과가 좋을지는 확신할 수 없군요. 그분은 워낙 까다로운 분이라서 말입니다. 투덜거리는 환자를 상대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그곳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닐 테니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자네가 그 자리를 얻고 나면 말해주겠네."

테오발드 박사가 앞장섰다. 박사는 직업적 위엄을 아주 철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한지 나는 뒤따라가며 흔들리는 박사의 코트 자락을 보고 그만 웃음이 터질 뻔했다. 하지만 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약병들이 반짝이는 어두운 병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내 얼굴에서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희미한 빛이 감도는 방 한가운데, 수척한 형체 하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를 창가로 데려가, 창가로 데려가라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얼른 얼굴 좀 보자고. 블라인드를 조금만 올려봐. 아니, 그렇게 많이 말고, 제발! 그렇게 많이 올리지 마!"

의사는 마치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무미건조하게 선서를 마쳤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곧 작은 진료소나 다름없는 환자가 한 명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우리가 그를 살려둘 수만 있다면, 그가 나에게 작은 밥벌이가 되어 주리라고.

하지만 매튜린 씨의 얼굴은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창백했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그의 치아는 마치 메마른 입술이 더 이상 맞물려 있지 않은 것처럼 번뜩였다. 말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죽은 듯 잠든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영원한 미소보다 더 섬뜩한 모습은 상상

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가 눈가리개를 들고 있는 동안, 그는 바로 그 기괴한 미소를 지은 채 누워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서 다 해야 한다고, 명심해! 난 다른 사람은 더 안 뽑을 거니까. 네 밥은 물론이고 내 음식까지 네가 직접 다 만들어야 할 거야. 그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낼 수 있겠어?"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시죠? 혹시 그런 쪽으로 경험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진 척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었을 뿐이에요."

"그저 그러려고 했다니, 그저 그러려고 했다니! 그럼 다른 일들은 전부 최선을 다해서 해냈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예상치 못한 일격이었다. 내 환자에게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거짓말을 도로 목구멍으로 삼키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닙니다, 전혀요."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히히, 히히히!" 노인네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걸 인정하다니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선생.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쫓겨났을 겁니다. 아주 호되게 말이죠! 이번에 목숨줄은 건지신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나오셨고 아주 명문 학교를 다니셨지만, 대학교는 나오지 않으셨다? 제 말이 맞습니까?"

"물론이지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했나?"

"유산을 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은요?"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노새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니까!"

"물어보시면 제 친척분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주 저명한 분이신데, 저를 위해 좋게 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더 자세한 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지 않군요."

"하지만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꼭 말씀하셔야 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고서야 사립학교를 나온 신사가 이런 자리를 구하러 오겠습니까? 제가 찾는 건 그저 품격 있는 신사일 뿐이고, 그게 어떤 부류인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더라도, 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테오볼드 박사님, 제 암시를 알아듣지 못하겠거든 지옥에나 가시구려. 이 사람이 일을 잘 해낼지 아닐지는 박사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내서 결론을 전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나가보세요, 어서요! 만약 불만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청구서에 적어서 보내시든가요!"

면담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아오르자, 그 가냘프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헌신적인 의사가 물러나던 중, 노인은 마지막까지 날카로운 모욕을 내질렀다. 의사가 너무나 단호하게 물러나는 모습에, 나는 그가 이 까다로운 환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는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침실 문이 닫히고 이어서 거실 문까지 닫혔다. 곧이어 의사의 구두 굽 소리가 공용 계단을 따라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멀어졌다. 이제 이 기이하고도 다소 섬뜩한 노인과 단둘이 이 아파트에 남게 되었다.

"아주 잘됐군, 속이 다 시원해!"

병자는 지체 없이 한쪽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키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자랑할 만한 몸뚱어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 것이라 부를 잃어버린 늙은 영혼 하나만큼은 남아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 곁에 품격 있는 신사 한 명을 두고 싶은 거라네. 그 친구한테 너무 의지하며 살았어. 담배 한 대 피우는 것도 못 하게 하더니, 내가 피우나 안 피우나 감시하려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더군. 담배는 '의자에 앉은 마돈나' 그림 뒤에 있으니 가져가게나."

위대한 라파엘로의 강철 판화가 걸려 있었는데, 액자가 벽에서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손을 대자 액자 뒤에 숨겨져 있던 담배 한 갑이 툭 하고 떨어졌다.

"고맙네. 자, 이제 불 좀 켜주게."

나는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인 채 가만히 들고 있었다. 환자가 평소처럼 입술을 달싹이며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말이다. 문득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 나왔다. 불현듯 나의 가여운 친구, 래플스가 사무치게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환자의 입술 사이로 피어오른 연기 고리가 마치 위대한 A. J. 래플스가 남긴 것마냥 허공으로 유영하고 있었다.

"자, 당신도 한 대 피워 봐요. 내가 그동안 독한 담배를 꽤 많이 피워 봤지만, 이놈들도 설리번 것만큼은 아니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옮길 수가 없다.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오직 알 수 있었던 것은—눈앞의 사람이 바로 A. J. 래플스 본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II

"맞아, 버니.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수영이었어. 하지만 지중해 한가운데서 가라앉을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장담코 못 할걸. 그 노을 덕분에 살았어. 바다가 온통 불타오르고 있더군. 물속에 잠겨 헤엄친 게 아니라, 태양을 따라가듯 필사적으로 움직였어. 해가 질 때쯤엔 아마 1마일은 떨어져 있었을 거야. 해가 지기 전까지 난 보이지 않는 존재였으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저 자살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 버니, 내 정체는 머지않아 드러나겠지. 하지만 내 손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느니, 차라리 교수형 집행인의 손에 죽는 게 나아."

"오, 이 사람아! 자네와 다시 손을 맞잡게 될 줄이야! 마치 우리가 그 독일 여객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게 다 악몽이었던 것만 같군. 그때가 정말 마지막인 줄 알았네!"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지, 버니.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에 승부를 걸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성공했어. 어떻게 했는지는 언젠가 자세히 들려주마."

"아, 서둘러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거기 그렇게 누워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어떻게, 왜 그런 처지가 됐는지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아. 상태가 꽤 심각할 것 같아 걱정되긴 하지만 말이야. 한 마디라도 더 내뱉기 전에, 우선 네 상태부터 제대로 살펴봐야겠어!"

나는 블라인드 하나를 올리고 침대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런 표정을 지었다. 그의 건강 상태가 정말 어떤지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으나, 내 사랑하는 래플스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스무 살은

족히 늙어 보였다. 적어도 쉰 살은 되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어 있었는데, 이건 속임수가 아니었다. 얼굴 또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가와 입가에 패인 주름은 수없이 많고 깊었다.

반면, 눈빛만큼은 여느 때처럼 생생하고 기민했다. 잘 제련된 강철처럼 여전히 날카롭고 회색빛으로 번뜩였다. 담배를 물고 있는 입매조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래플스의 것이었다. 그 사람 자체처럼 강인하고 거침이 없었다. 오직 육체적인 기력만이 떠나버린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게 만든, 그러나 우리 둘 사이의 유대만은 남겨둔 그 사랑스러운 악당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훨씬 늙어 보이는 것 같나?" 그가 한참 뒤에야 물었다.

"조금은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 머리카락이 문제예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들려줄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긴 하네. 사실 그 긴 수영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말이야. 아무튼 엘바 섬도 참 묘한 곳이라네, 장담컨대. 그런데 나폴리는 그보다 훨씬 더 묘한 곳이지!"

"결국 거길 가셨군요?"

"물론이지! 우리 같은 고귀한 신사들에게는 그곳이야말로 유럽 제일의 낙원이지. 하지만 열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작은 런던만 한 곳도 없지. 여기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질 일도 없고, 만약 더워진

다면 그건 순전히 본인 잘못이라니까. 이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아웃될 리 없는 위켓과 같아. 그래서 난 다시 여기로 돌아왔고, 지난 6주 동안도 계속 여기 있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 더 제대로 한 판 붙어볼 생각이야."

"하지만 이보게, 자네 설마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건 아니겠지?"

"멀쩡하냐고? 이 사람아, 버니. 난 죽었어. 이미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렸단 말이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라고."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아니면 안 괜찮다는 거야?"

"아니, 테오볼드가 처방한 약이랑 썩은 담배 때문에 몸이 반쯤 중독된 것 같아. 계속 누워만 있었더니 고양이처럼 기운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대체 왜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거야, 래플스?"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내 불쌍한 친구, 당신도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내 유일한 공포는 실수로라도 다시 살아나 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난 낮에는 도저히 밖으로 고개를 내밀 엄두가 안 납니다. 죽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상상도 못 할 겁니다. 설령 좋아하는 설리번 담배조차 피울 수 없어요. 예전의 나만큼 그 담배를 유난히 좋아했던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자칫하다간 누군가에게 단서를 잡힐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 저택들에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난 아파트를 구하고 싶었어. 배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여기를 추천해 주더군. 버니,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 임대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웠을 정도니까. 자, 들어봐. 이 사연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어. 아주 비극적이지. 영국에 친구 하나 없는 늙은 호주인이었거든.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잉가딘으로 떠나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무리였어. 그저 런던에서 죽고 싶다는 감상적인 소망뿐이었지. 이게 바로 매튜린 씨의 사연이야. 버니, 자네가 이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는다면 자네가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일 거야. 하지만 내 친구 테오볼드에게는 이 사연이 아주 결정적이었어. 나는 그에게 좋은 수입원이거든. 내 생각엔, 그는 아마 나 덕분에 결혼하게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했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알다마다요, 정말 대단한 분이지! 하지만 내가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게다가 그 양반이 나를 맡은 뒤로는, 사전 속에 있는 병이라면 모조리 나한테 있는 줄 알고 치료하려 들 정도라니까요. 공정하게 말해서, 그 양반은 아마 나를 아주 지독한 건강염려증 환자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그 젊은이가 지금처럼만 제대로 해준다면 앞날이 창창할 거예요. 밤마다 여기로 찾아와 한 번 진료할 때마다 기니를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돈이 꽤 짭짤하겠는데, 친구!"

"그랬었지, 버니. 더는 말할 수 없지만, 다시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

그 기니 금화들이 어디서 났는지는 굳이 캐묻지 않을 생각이었다. 내가 그런 것에 신경 쓸 사람도 아니지 않은가! 다만 래플스에게 도대체 어떻게 내 뒤를 밟았느냐고 물었을 뿐이다. 그러자 그는 노신사들이 기특하다는 듯 손을 비비거나, 노부인들이 코끝을 찡긋거리며 짓는 그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래플스는 대답 대신 완벽한 타원형의 푸른 연기만을 한 차례 내뿜었다.

"버니, 자네가 그 질문을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네. 내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을 해낸 지도 참 오래되었거든. 우선, 이 감옥 기사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자네인 줄 알았지. 서명은 없었지만, 이 필체는 분명 내 단짝 친구의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내 주소는 누가 알려준 거지?"

"네 훌륭한 편집장에게 달래고 달래서 겨우 알아냈지. 다른 유령들처럼 가끔 밤늦게 몰래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거든, 한밤중에 그를 찾아가서 5분 만에 눈물로 호소했더니 결국 불더라고. 내가 네 유일한 친척이라고 했지. 네 이름도 네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만약 그가 계속 따져 묻는다면 내 이름이라도 알려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 버니. 그래서 네 주소를 주머니에 넣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내려왔지."

"어젯밤 말씀입니까?"

"아니, 지난주였어."

"그렇다면 그 광고의 주인공도, 그리고 전보의 주인공도 바로 당신이었단 말이군!"

물론 그 순간의 흥분이 너무 컸던 탓에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잊고 있었다. 만약 잊지 않았더라면, 뒤늦게 깨달은 사실을 이토록 대단한 발견인 양 떠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결국 래플스가, 예전에 익히 보았던 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말았다. 그의 나른하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돌려 말하는 거야?" 내가 짜증스럽게 외쳤다. "그냥 택시 타고 곧장 나한테 오면 되잖아!"

그는 내가 여전히 구제 불능이라는 사실을 굳이 일깨워 주지 않았다. 나를 '착한 버니'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다.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이내 내 목소리가 부끄러워질 만큼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있잖아, 버니. 이제 나는 두세 명쯤 되는 셈이야. 한 명은 지중해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다른 한 명은 고국에서 죽기를 갈망하는 늙은 호주인이지. 물론 당장 어디서 죽을 위험에 처한 건 아니지만 말이야. 이 늙은 호주인은 런던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끝장이거든. 지금 나를 돌보는 테오발드는 그의 유일한 친구인데, 그를 너무 많이 봐버린 게 문제야. 평범한 가짜 먼지로는 그 눈을 속일 수 없거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군중 속에서 나를 골라

내는 게 핵심이야. 그런데 테오발드가 나를 골라내는 걸 도와준다면 금상첨화겠지! 처음에는 테오발드가 내가 누굴 만나는 것 자체를 결사반대했어. 당연하게도 나를 독차지하고 싶어 했으니까.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그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매주 5파운드씩 받기로 했어. 게다가 다음 달에 결혼도 한다더군. 어떤 면에선 아쉽지만, 또 어떤 면에선 잘된 일이야. 결혼하면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급할 때 언제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말이야. 당분간 그는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거야."

나는 래플스에게 전보의 구성이 아주 일품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고작 열두 마디 남짓한 짧은 문장 속에, 그 대단한 친척의 특징을 절반이나 압축해 놓았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네가 나를 실제로 어떻게 대했는지도 래플스에게 일러주었다. 래플스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예전에 우리는 그 친척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고, 그 집안의 가업이나 다름없는 가보들을 전문가에게 감정받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으니까.

래플스의 설명에 따르면, 전보는 《데일리 메일》에 광고가 실리기 전날 밤, 베어 스트리트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통에 발송 예정 시간까지 정확히 맞춰서 부쳐졌다고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래플스가 유일하게 걱정했던 점은, 자신의 명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보 발송이 미뤄지는 상황이었다. 만약 전보가 늦게 도착한다면, 나는 그 내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결국 의사를 찾아가 상담이라도 받아야 할 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운한 변수들은 하나하나

제거되었고, 위험 요소는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최소한으로 남았다.

래플스의 말에 따르면, 가장 큰 위험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는 병석에 누워 지내는 환자 신세였기에, 밤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집 근처에서 테오발드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래플스에게는 그런 위험조차 최소화하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밤마다 겪었던 모험담을 몇 가지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지극히 순진무구한 종류의 것들이었다.

그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의 방은 아파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방이었다. 긴 안쪽 벽이 그 방을 복도뿐만 아니라 바깥쪽 계단참으로부터도 분리하고 있었다. 덕분에 맨돌이 깔린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누워 있는 래플스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다. 그래서 누군가 계단을 올라올 때면, 그 발소리가 그의 방문을 지나갈 때까지 그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내가 이미 사람을 구했다고 거절해야 할 구직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다 세 시와 네 시 사이, 갑자기 시계를 확인한 래플스가 나를 서둘러 내쫓았다. 런던 반대편에 있는 내 짐을 챙겨 오라는 것이었다.

"버니, 자네 배가 몹시 고프겠군. 내가 워낙 식사량도 적고 시간도 제멋대로라 자네를 챙기는 걸 깜빡했어. 나가서 뭐라도 좀 먹게나. 참

을 수 있다면 거창한 식사 말고 가벼운 간식 정도로 말이야. 오늘 같은 날은 오늘 밤에 제대로 축하해야 하니까!"

"오늘 밤이라고요?" 내가 외쳤다.

"오늘 밤 11시, 장소는 켈너 레스토랑이야. 눈이 휘둥그레질 만도 하겠지만, 기억나겠지만 우린 거기 자주 가지 않았잖아. 게다가 직원들도 바뀐 것 같더라고. 어쨌든 이번 한 번만 모험을 해보자고. 어젯밤에 잠시 들렀는데, 내가 아주 미국 연극배우처럼 떠들었더니 11시 정각에 맞춰 저녁 식사가 준비되도록 주문해 뒀어."

"그렇게나 나를 확신하고 있었으면서!"

"저녁 식사를 주문한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지. 개인실에서 먹을 테니까, 옷이 준비됐으면 미리 갈아입어 두는 게 좋겠어."

"나를 용서해 줄 유일한 친척 집에 가 있어."

"그것들을 도로 찾아오고, 네 빚까지 청산하고, 제시간에 짐까지 몽땅 챙겨 돌아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니?"

나는 계산을 해야만 했다.

"넉넉잡아 십 파운드면 충분하지."

"자네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게 있네. 여기 있으니, 나 같으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겠어. 가는 길에 테오발드를 만나서, 물건은 확보했으니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라고 하게. 그리고 내가 맨날 혼자 있을

수는 없다는 말도 꼭 전하고 말이야. 아, 참!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하이 스트리트에 있는 대리점 중 아무 곳이나 들러서 라이시엄 극장 좌석을 좀 구해 주게. 돌아올 때 누가 준 거라고 말하면 될 거야. 그 젊은 친구는 오늘 밤이면 알아서 물러날 테니까."

의사를 찾아 들어간 진료실은 아주 작았다. 그는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고, 팔꿈치 근처에는 커다란 유리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뒤로 의사는 컵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 무력한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결국 임무를 맡기로 하셨군요." 테오발드 박사가 말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직접 겪어보며 깨달았겠지만, 이 일이 결코 편안한 자리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맡은 역할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당신이 직접 목격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진작에 일을 때려치우고 싶어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업적 책임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이해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건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그에게 물었다. "제가 성공하면 알려주겠다고 하셨잖습니까."

테오발드 박사가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은, 그가 몸담은 직업의 위엄에 걸맞을 만큼 아주 능수능란했다. 그 몸짓은 보는 이가 어떻게 해석하든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러다 그는 곧바로 자세를 꼿꼿이 세웠다. 나는 여전히 어느 정도 신사다운 말투를 유지하고 있었던 모양이

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저 남자 간병인일 뿐이었다. 박사는 갑자기 그 사실을 떠올린 듯했고, 은근히 그 점을 상기시키며 나를 일깨워 주었다.

"아," 그가 말했다. "그건 자네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기 전의 일이었네. 사실 그 사실을 안 뒤에는 매튜린 씨가 자네를 고용했다는 게 놀랍기까지 하더군. 하지만 그가 이 기묘한 실험을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자네에게 달렸네. 그가 왜 저러는지 묻고 싶은 모양인데, 이보게, 자네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로 대답해 봤자 아무 소용없지 않겠나? 게다가 자네가 상황을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아직 시험해 볼 단계이기도 하고 말이야. 다만 한 가지 말해두자면, 저 불쌍한 신사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환자라네.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막중한데, 몇 가지 특이한 점들 때문에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니까. 지금은 내 환자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네만,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반드시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네."

그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위층으로 올라갔다. 해 질 녘 내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라이시엄 극장용으로 마련해 둔 내 좌석을 거절하지 않았다. 래플스는 그 좌석을 내가 직접 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는데, 래플스는 내 허락도 없이 불쑥 그 좌석을 그에게 줘 버렸다.

"내일 전까지는 나 신경 쓰지 말고 좀 가 있어!"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쏘아붙였다.

"필요하면 언제든 사람을 보내 부를 테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밤새 좀 편히 쉬고 싶단 말이야."

III

시끄러운 계단실에 잠시 정적이 찾아온 10시 반, 우리는 아파트를 나섰다.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기에 그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단참에 다다랐을 때, 나는 뜻밖의 상황을 마주했다. 래플스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대신 나를 데리고 두 층을 더 올라갔다. 그러더니 아주 평평한 옥상 위로 나를 이끌었다.

"이 저택들에는 입구가 두 개 있어." 별빛과 굴뚝 사이로 그가 설명을 이어갔다. "하나는 우리 계단으로 통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모퉁이를 돌면 나오는 길이지. 하지만 문지기는 한 명뿐이야. 우리 집 바로 아래 지하층에 살면서 집과 가장 가까운 문을 주로 이용하거든. 우리가 계단을 잘못 골라 들어가는 덕분에 그를 마주치지 않을 수 있고, 덕분에 늙은 테오발드와 맞닥뜨릴 위험도 줄어드는 거야.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길을 달리하는 우편배달부들에게서 알아낸 정보지. 자, 이제 나를 따라와.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할 이유는 분명했다. 건물 양쪽 끝마다 L자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아래로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다. 난간마저 너무 낮아서 자칫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영원한 허공 속으로 떨어질 판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곧 두 번째 계단에 다다랐고, 그 계단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옥상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남은 25

분 중 20분을 아주 훌륭한 한섬 마차에 몸을 싣고 동쪽을 향해 질주하며 보냈다.

"이 낡은 구멍도 별반 다를 건 없네, 버니. 환등기 광고만 더 늘었을 뿐이야. 런던에서 제일 최악의 취향이라 할 만한 게 하나 더 있군. 저 기마상 말이야. 등자랑 부속품에 금칠을 해놓다니, 정말이지 눈 뜨고 못 봐주겠어. 이왕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기사 장화랑 말 발굽까지 검게 칠해버리지 그래? …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그때 막 유행하기 시작했었지. 우리한테 꽤 유용했을지도 모르겠군. … 아, 저기 오래된 클럽도 보이네. 주빌리 기념행사를 한다고 상자에 담겨 실려 가고 있어. 세상에, 버니, 우리도 저기 끼어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이봐, 피카딜리에서는 몸을 너무 앞으로 숙이지 말게. 자네가 눈에 띄면 내가 의심받을 테니까. 켈너 식당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해. … 아, 저기 있군! 내가 켈너 식당에서 서투른 미국인 흉내를 낸다고 말했던가? 웨이터가 방에 있는 동안 자네도 서투른 미국인 연기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위층에 있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예전의 래플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나조차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식탁에는 세 사람분의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나는 그를 불러 세워 낮은 목소리로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아, 그럼요!" 코를 맹맹하게 울리며 그가 대답했다. "이봐, 친구. 그 숙녀분은 안 오시겠지만, 장비는 그대로 둬. 내가 돈을 내야 한다면, 있는 건 다 가져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으니까."

나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다. 미국 대중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없었지만, 그들의 독특한 말투와 억양을 접한다면 경험 없는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이다. 나는 방금 말한 사람이 정말 래플스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빤히 쳐다보아야만 했다. 내가 그토록 유심히 그를 살핀 데에는 나만의 이유가 있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기회가 생기자마자 나는 경악하며 물었다.

"그녀는 세상에 없어. 단지 이 방을 두 사람에게 쓰기엔 아깝다고 생각할 뿐이야. 버니, 나의 버니! 우리 둘을 위해 건배하자고!"

우리는 1868년산 슈타인베르크 와인을 잔에 채워 황금빛 액체를 부딪치며 건배했다. 하지만 그 만찬이 선사한 진귀한 즐거움에 대해서는 차마 글로 다 옮기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천박한 향락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루쿨루스가 가장 기세등등할 때 베풀었을 법한, 까다로운 신들을 위한 작은 연회와도 같았다. 웜우드 스크러브스 교도소에서 묽은 죽을 급히 삼키고, 홀로웨이의 다락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텨온 내가, 바로 이 형언할 수 없는 성찬 앞에 앉아 있다니! 요리 가짓수는 많지 않았으나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승리라 할 만큼 완벽했기에, 어느 한 요리만을 꼽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다만 샴페인을 곁들인 베스트팔렌식 햄은 유독 강렬한 유

혹으로 남는다. 그리고 우리가 마신 샴페인은 양보다 질이 압도적이었다. 1884년산 폴 로제였는데, 내 입맛에는 충분히 훌륭했다. 하지만 그 와인이 아무리 드라이하고 기포가 생생하다 한들, 나를 이 지옥 같은 길로 끌어들인 데다 남은 여정까지 춤추며 이끌어갈 저 유쾌한 악당보다 더 짜릿할 수는 없었다.

나는 막 그에게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세상은 나에게 최악의 대우만을 해왔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짚어주며 내 마지막 의중을 전하려던 찰나, 샤토 마르고를 들고 온 웨이터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단순히 명품 와인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은쟁반 위에는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올려보내게," 래플스가 짧게 말했다.

그 남자가 떠나자마자 내가 소리치듯 물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자 래플스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팔을 바이스로 죄듯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동자는 강철 같은 빛을 띠며 내 눈을 꿰뚫을 듯 응시했다.

"버니, 내 곁에 있어 줘."

그가 특유의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격하면서도 사람을 홀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내 곁을 지켜줘, 버니. 만약 싸움이라도 나면 말이야!"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날 겨를이 없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온 이는 아주 말쑥한 차림의 사내였다. 그는 프록코트를 입고 코끝에는 금테 pince-nez를 걸치고 있었다. 한 손에는 윤이 나는 모자를, 다른 한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 여러분." 그가 집처럼 편안한 태도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앉으시게." 래플스가 느긋하게 대답하며 말을 이었다. "아, 참. 시카고에서 오신 에즈라 B. 마틴 씨를 소개하지. 마틴 씨는 조만간 내 매제가 될 분이라네. 에즈라, 이쪽은 로빈슨 씨야. 리젠트가에서 아주 유명한 보석상인 스파크스 컴퍼니의 지배인이라네."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새로 얻게 된 이름과 주소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틴 양도 여기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군요. 내일 오전 9시 기차로 파러스로 떠나야 하는데, 마틴 양은 도저히 움직일 기운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로빈슨 씨. 하지만 제가 당신 물건을 아주 효과적으로 홍보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래플스가 오른손을 전등 불빛 아래로 가져가자, 새끼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분명 저 반지는 없었다.

상인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 반지의 가치와 자신의 가게에서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에 대해 열을 올리며 설명할 때만큼은 잠시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나에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맞춰보라고 권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내 평생 이토록 말을 아꼈던 적은 드물었다.

"45파운드입니다!" 보석상이 외쳤다. "50기니라면 아주 저렴한 편이죠."

"맞아." 래플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쳤다. "그렇게 하면 아주 헐값이 되겠지, 나도 인정해. 하지만 이보게, 자네 손에는 현금이 쥐어지는 거야.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느낀 당혹감에 대해 구태여 길게 늘어놓지는 않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둘 것은, 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를 아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래플스와 그간의 세월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오직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뿐이었다.

신화 속 인물처럼 베일에 싸여 있던 내 여동생이 래플스와 약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래플스는 마치 여동생을 값비싼 선물로 꼼짝 못하게 묶어두려는 사람처럼 안달이 난 모양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구에게 주는 선물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반지는 분명 누군가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나는 대체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아해하며 망상에 빠져들었다.

그때 보석 가게의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보석들이 내 정신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보석들은 천장의 전기등처럼 케이스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보석들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댔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흉악한 범죄에 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18개월이나 복역한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움직일 리 없지 않은가.

"당연히 그래야지." 래플스가 말했다. "우리가 미리 골라 놓을게. 만약 그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잖아. 내 말이 맞지?"

"그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선생님."

"자, 어서 가자고, 에즈라. 자네도 세이디가 뭘 좋아하는지는 잘 알 거 아냐. 자네가 좀 도와줘."

우리가 고른 것들—세상에, 대체 얼마나 많은 걸 골랐는지 모른다! 다이아몬드가 반원형으로 박힌 반지도 있었다. 가격은 95파운드였는데, 90파운드로 깎아보려는 시도조차 통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있었다. 200기니였지만 파운드로도 결제할 수 있었다. 신랑이 신부에게 줄 선물임이 분명했다. 결혼이 코앞에 닥친 모양이었다. 나는 오빠 노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

섰다. 다이아몬드 별 모양 펜던트(116파운드)를 좋아할 것 같아 골랐지만, 내 형편에는 너무 비싸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 판단 때문에 식탁 아래에서 호되게 발길질을 당하고 말았다. 결국 100파운드에 별 모양 펜던트를 겨우 손에 넣었을 때는, 입을 떼기가 겁날 정도였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당장 지불할 돈이 없었던 것이다. 래플스는 그저 "뉴욕에서 송금이 오고 있다"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신사 여러분, 전 당신들을 모릅니다." 보석상이 외쳤다. "머무시는 호텔 이름조차 모르는데요!"

"친구네 집에서 묵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래플스가 말했다. 계획이 어긋나고 좌절된 상황이었지만, 화가 난 기색은 아니었다. "하지만 말씀이 맞습니다, 선생님! 아,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선생님께 무모한 도박을 해보라고 권할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그걸 하려는 중입니다."

"그러시면 참 좋으련만요, 손님." 보석상이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손님께서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운영하는 가게도 아니고요. 게다가…… 내일 아침이면 파리로 떠나신다고요!"

"9시 기차를 타야겠어." 래플스가 생각에 잠긴 듯 중얼거렸다. "파러스에 있는 보석상 창고에 대해서는 온갖 떠도는 소문을 다 들었거든. 하지만 이건 좀 불공평하군. 방금 한 말은 신경 쓰지 말게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는 중이니까. 그래, 알겠네!"

그는 25개들이 담배 상자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고 있었고, 상인과 나는 시가를 피웠다. 래플스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미간을 찌푸린 채 앉아 있었다.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 번의 결제로 단 한 번 약 10퍼센트만 치러서 400파운드를 제외한 전부를 외상으로 얻으려 했다면, 계획이 틀어지는 게 당연했다. 그런 방식은 래플스답지 않은 처사였다. 나는 여전히 언제든 방문객의 목을 덮칠 준비를 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파러스에서 당신에게 돈을 부칠 수도 있겠지." 래플스가 한참 뒤에야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약속을 지킬지, 우리가 오늘 밤 고른 것과 똑같은 물건들을 우리에게 다시 부쳐줄지 우리가 어떻게 믿겠나?"

방문객은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뻣뻣하게 굳혔다. 그가 속한 회사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한 보증이 될 터였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아는 만큼이나 나도 그들의 이름을 잘 모를걸세." 래플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이것 좀 보게!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걸 여기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가 담뱃갑에서 담배를 쏟아내는 동안, 보석상과 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이 안에 다 넣으세요."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물건 세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상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솜뭉치로 감싸서

넣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종을 울려 실과 봉인용 밀랍을 부릅시다. 여기서 바로 전부 밀봉해 버리면, 당신은 그걸 손가방에 담아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흘 안에 대금을 치를 테니, 돈은 우편으로 보내드리죠. 그럼 당신은 내 인장이 찍힌 이 빌어먹을 상자를 그대로 우리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줄러 씨,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전혀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믿어보려고 하니까요. 에즈라, 벨을 눌러서 밀랍이랑 실이 있는지 좀 물어봐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고, 일은 실행에 옮겨졌다. 상인은 이 방식이 못마땅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차피 팔리지 않은 물건까지 몽땅 챙겨서 떠나야 하는 처지라, 감정적인 불만은 금세 사그라들었다. 상인은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별 모양 장식품을 솜으로 직접 정성스럽게 싸서 담았다. 담아놓고 보니 담배 상자에 여유가 꽤 남았다. 그래서 상자를 닫고 끈을 묶으려던 찰나, 래플스는 51파운드 10실링짜리 다이아몬드 벌 모양 브로치까지 슬쩍 끼워 넣을 뻔했다. 하지만 래플스는 결국 그 유혹을 뿌리쳤고, 상인은 내심 아쉬워했다. 담배 상자는 단단히 묶였고, 묘하게도 이미 값을 치른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봉인용 인장처럼 상자 끈을 눌러 고정했다.

"가게에 내 것과 똑 닮은 반지가 또 하나 있을지도 모르니, 운에 맡겨보죠." 래플스가 웃으며 상자를 건네주자, 상자는 상인의 가방 속으로 사라졌다. "자, 로빈슨 씨.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음료 한 잔 대접하지 않은 건 제 진심 어린 환대였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건

샤토 마르고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18캐럿짜리' 물건이라 할 수 있겠군요."

우리가 그 아파트 근처로 가기 위해 올라탄 마차 안에서, 나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운전사에게 즉각 제지당했다. 운전사가 충분히 엿들을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거절이 못내 서운했다. 래플스가 리전트 스트리트에서 만난 그 남자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에, 그 모든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나갈 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여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래플스가 내 양어깨에 손을 얹고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다독여 줄 때까지 말이다.

"이 토끼 같은 녀석!" 그가 말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려 줄 수는 없었냐?"

"도대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은 거야?" 나는 예전처럼 쏘아붙였다.

"그건 자네의 그 인자한 얼굴이 여전히 순진무구함 그 자체로 보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자네는 결코 연기 따위는 못 하는 사람이니까! 자네도 저 불쌍한 녀석만큼이나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만약 내 진짜 계획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야."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야." 래플스가 말하며 담뱃갑을 벽난로 선반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담뱃갑은 묶여 있지도, 봉인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 충격으로 뚜껑이 덜컥 열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 95파운드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200파운드짜리 목걸이, 그리고 100파운드나 하는 나의 '불타는 별'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 보석 모두 보석상이 넣어 둔 솜뭉치 속에 아무런 손상 없이 안전하게 담겨 있었다.

"똑같은 상자가 두 개나 있잖아!" 내가 외쳤다.

"똑같은 상자가 두 개였지, 똑똑한 우리 버니. 하나는 이미 짐을 다 싸서 무게까지 맞춰둔 채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어. 내가 손안에서 세 물건의 무게를 한꺼번에 재는 걸 자네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군. 자네들 둘 다 내가 상자를 바꿔치기하는 건 못 봤을 거야. 마지막에 벌 모양 브로치를 살 때 슬쩍 바꿨거든. 그때 자네는 너무 당황해 있었고, 저기 조니는 너무 의욕이 앞서 있었으니까. 아주 손쉬운 수법이었지. 값비싼 수는 따로 있었지. 어제 오후에 늙은 테오발드를 헛수고하러 사우샘프턴까지 보내놓고,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대낮에 리전트 거리에 내 얼굴을 직접 드러낸 일 말이야. 하지만 세상에는 값을 치를 가치가 있는 일도 있고, 반드시 감수해야 할 위험도 있는 법이지. 상자 참 멋지지 않나? 안에 든 담배가 좀 더 좋은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유명한 브랜드여야만 했어. 설리번 담배 한 갑이었다면 내일 당장 내 정체가 들통났을 테니까."

"하지만 내일 당장 열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동안 버니, 네가 그 장물들을 처리해 줘야겠어."

"무슨 일이든, 세상 그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어!"

맹세컨대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진실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모든 감각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래플스의 방식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내 눈을 뚫고 들어와 뇌리까지 파고드는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들은 것만큼이나 눈으로 확인한 사실에도 만족한 듯했다. 그는 내 손을 찾아 쥐더니, 평소의 그답지 않은 열띤 기세로 꽉 움켜쥐었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하지만 명심해, 버니. 다음번엔 내가 술을 살 차례니까!"

때가 되면 그가 어떻게 값을 치렀는지 들려주마.

주빌리 기념 선물

대영박물관의 황금실은 호기심 많은 외국인이나 여행 경험이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아마 꽤 잘 알려진 곳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런던 토박이인 나는, 래플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을 털어보자고 제안하기 전까지 그곳의 존재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버니, 나이가 들수록 자네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이 점점 시시해지는군. 그놈들이 시장가의 절반이라도 가져다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털었던 그 작은 금고부터 시작해 보세. 자네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감고 있었지. 그 물건은 분명 천 파운드는 나갈 가치가 있었지만, 실제로 손에 쥔 건 고작 몇 백 파운드 뿐이었어. 아다 에메랄드도 별반 다를 게 없었지. 멜로즈 부인의 목걸

이는 훨씬 더 형편없었고 말이야. 하지만 요전 날 그 작은 건들 때문에 아주 진이 다 빠져버렸네. 가치가 400파운드를 훌쩍 넘는 물건들을 가져갔더니 고작 100파운드라니. 게다가 내가 바보같이 제 돈 주고 산 반지에서 겨우 10파운드밖에 못 건졌으니, 밑천으로 나간 돈만 35파운드나 되네. 다시는 다이아몬드 근처에도 안 가겠어! 설령 그게 코이누르라 해도 말이야. 그런 큼지막한 보석들은 워낙 유명해서, 그걸 쪼개는 순간 가치가 수학적으로 깎여 내려가 버리니까. 게다가 그러면 또 그 장물아비 놈들을 상대해야 하잖아? 난 이제 그 거지 같은 놈들과는 완전히 끝이야. 자네는 문학가라는 놈들이 편집자니 출판사니 떠들어대지만, 바라바스는 강도도 출판사도 아니었어. 그는 철조망과 가시가 쳐진, 아주 지독한 장물아비였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도둑들의 법인 협회 같은 거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노련한 위조범 한 명을 고용해서, 아주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협회 말이야."

래플스는 나지막이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내뱉었다. 내 직업이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하게 해주는 유일한 장점이라서 예우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아래층 작은 아파트에서 6월의 하루를 온종일 보낸 뒤, 한밤중의 공기를 마시러 옥상으로 올라온 참이었기 때문이다. 머리 위로는 별들이 빛나고 발밑으로는 런던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래플스의 입술 사이에는 예전부터 그가 즐기던 유일한 브랜드의 담배가 물려 있었다. 내가 몰래 주문해둔 최고급 담배 한 상자가 마침 그날 밤 도착했고, 방금 들은 래플스의 거친 말들은 그 담배를 피우며 나온 첫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래플스의 주장이 워낙 터무니없었기에, 나는 그의 무례한 혼잣말을 못 들은 척 넘겨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금괴들은 어떻게 처분할 생각인가?"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물었다.

"식은 죽 먹기지, 나의 귀여운 토끼 같으니."

"그 황금의 방이라는 곳에는 금화가 방 안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경멸 어린 태도에 래플스는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버니. 주로 고풍스러운 장식품 형태라 가치가 대부분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금은 금이야. 페니키아에서 클론다이크에 이르기까지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 그러니 방 안의 물건들을 다 털어내기만 하면, 결국 우리는 아주 큰돈을 만지게 될 거야."

"어떻게 말입니까?"

"그걸 녹여서 금덩어리로 만든 다음, 내일 당장 미국에서 집으로 가져가 버려야겠어."

"그래서, 그다음은요?"

"영국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직접 받아내라고. 그것도 반드시 말이야.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침묵을 지키며 적대적인 비판자의 눈으로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우리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맨발로 서늘하고 검은 옥상 바닥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래서, 대체 얼마나 챙겨갈 생각인가?" 한참 뒤에 내가 물었다. "그만한 수고를 들일 만큼 가치가 있으려면 말이야."

"아, 바로 그거야." 래플스가 말했다. "난 그저 현장을 미리 살펴보고 무엇이 보이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이야. 하룻밤 묵을 만한 은신처를 찾을 수도 있겠지. 내 생각엔 그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일 것 같거든."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시 중인 그 휴대용 유물 말이야, 그게 나온 이후로는 없었어. 내가 읽은 지는 꽤 오래돼서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 수천 파운드 가치는 나갈 법한 황금 잔 같은 게 있다고 했거든. 부도덕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 국가에 기증한 물건이지. 그런데 그 부도덕한 부자들 중 두 명이 그걸 슬쩍 가로챌 계획이라더군. 아무튼 우리도 가서 구경이나 해보는 게 어때, 버니? 안 그래?"

"생각해 봐!" 나는 그의 팔을 낚아챘다.

"언제? 언제냐고? 대체 언제 말이냐!" 나는 기관총을 쏘아대듯 다그치며 물었다.

"테오발드 영감이 신혼여행 떠나 있는 동안,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우리 의사 선생님은 바로 지난주에 결혼을 하셨다. 게다가 그가 잠시 런던을 떠나 있는 동안, 그의 진료를 대신 맡을 다른 의사도 없었다. 적어도 래플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막대한 진료 영역만큼은 말이다. 테오발드 박사가 다른 의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우리 눈에는 그 이유가 아주 명백했으니까. 나는 매일같이 그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고, 아침저녁으로 전보도 쳤다. 내가 쓴 전보의 내용은 래플스에게 꽤나 큰 즐거움을 주곤 했다.

"그럼, 도대체 언제—언제냐고?" 나는 되물었다.

"원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구경만 하려고요?"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제약이 있었다는 사실뿐이었다.

"뛰어들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해, 버니."

"좋아."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내일이야, 반드시!"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그날이 밝았다.

그날 밤 나는 수위를 만났다. 그리고 지금도 확신하지만, 나는 그에게 왕국에서 두 번째로 값나가는 주화를 건네며 완벽한 충성을 샀다. 하지만 래플스가 지어낸 내 이야기는 그 자체로 꽤 그럴싸했다. 몸이 좋지 않은 매튜린 씨(나는 그를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

으려 애써야 했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테오발드 박사는 그에게 신선한 공기를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동안 딱 하루만이라도 시골에 다녀오게 해달라며 나를 졸라대던 참이었다. 나조차도 이 계획이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이토록 순수하고도 가치 있는 작전에 수위가 협조해주지 않겠는가?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즉시 하프 소버린 금화를 꺼내 보였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내 편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여덟 시 반, 낮의 열기가 채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래플스와 나는 정오에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대여용 란도 마차를 타고 큐 가든으로 향했다. 수위는 내가 환자를 모시고 내려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환자를 옮기기 위해 하루 동안 빌린 이동용 의자도 있었는데, 이 역시 란도 마차처럼 해러즈 상점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아홉 시가 조금 넘은 시각, 우리는 겨우 몸을 움직여 정원으로 나갔다. 삼십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은 그는 한계에 다다른 듯했고, 내 팔에 의지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마차를 부르고 마부에게 전갈을 보낸 뒤, 제시간에 맞춰 베이커 스트리트행 기차를 탔다. 다시 마차를 갈아타고 나니 어느덧 대영박물관 앞이었다. 오전 10시 개관 시간에 맞춰, 우리는 꽤 빠른 걸음으로 박물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은 당시 런던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 만큼 눈부시게 빛나는 날이었다. 다이아몬드 주빌리가 다가오고 있었고, 축제 분

위기를 알리는 화창한 날씨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래플스는 이 날씨가 이탈리아와 호주를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뜨겁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실제로 짧은 여름밤조차 나무와 아스팔트 길, 그리고 벽돌과 모르타르로 쌓아 올린 건물들이 열기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였다.

대영박물관의 때 묻은 열주 사이 그림자 속에서는 비둘기들이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건물을 지키는 건장한 관리인들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 마치 가슴에 단 훈장이 너무 무거워 버티기 힘든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나는 돔 아래에서 공부하러 가는 단골 독자들을 몇몇 알아볼 수 있었다. 구경하러 온 방문객들 중에서는 우리가 아마 가장 먼저 도착한 무리였을 것이다.

"저 방이야."

2페니짜리 안내서를 산 래플스가 근처 벤치에 앉아 지도를 뚫어지게 살피며 말했다.

"43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바로 나와. 어서 가자, 버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걸었다. 보폭이 아주 일정하고 규칙적이었는데, 그 의도를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황금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계단은 빼고, 여기서 탁 트인 거리까지 딱 139야드야." 래플스가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20초 안에도 주파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문을

뛰어넘어야 해. 아니, 버니. 네가 좋든 싫든 느릿느릿한 행진 속도로 여유 있게 걸어 나가야 한다는 걸 명심해."

"하지만 하룻밤 묵을 만한 은신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아, 밤새도록 말이야. 일단 돌아가서 몸을 좀 숨겨야겠지.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끝마친 뒤에 사람들 틈에 섞여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나타나는 거야."

"뭐라고! 우리 주머니에 금괴가 가득 들어있는데도—!"

"우리 장화 속에도 금을 채우고, 양복 소매랑 바지 밑단에도 금을 가득 채우자고! 버니, 그건 나한테 맡겨 둬. 바지 두 벌을 발끝에서 이어 붙여 입어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진 말도 하지 마! 이건 그저 사전 정찰일 뿐이야. 자, 다 왔다."

소위 '황금의 방'이라 불리는 곳을 묘사하는 건 내 알 바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 역시 그곳에서 적잖은 실망을 했으니까. 방 안을 가득 채운 진열장에는 고전 수업 시간에 지겹도록 들어왔던 시대와 장소에서 만들어진, 금세공 예술의 정수라 할 만한 유물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에트루리아나 고대 그리스의 전리품 중 가장 뛰어난 것을 보는 것보다 웨스트엔드의 창문 하나를 털어내는 편이 훨씬 나을 정도였다. 금이 보기만큼 무르지는 않겠지만, 숟가락의 떠먹는 쪽 끝을 그냥 깨물어 끊을 수 있고, 그러다 그 금으로 자기 이까지 때우게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곳의 반지 중 하나를 끼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남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사기극은 단연 래플스가 말했던 바로 그 잔이었다. 게다가 래플스 본인도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세상에, 종이처럼 얇잖아." 그가 말했다. "게다가 귀부인처럼 매끄럽게 에나멜칠까지 되어 있고! 맙소사, 버니, 이건 내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야. 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이건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소장하고 싶을 정도라고!"

방 한쪽 끝에는 작은 사각형의 유리 진열장이 홀로 놓여 있었다. 래플스는 그것을 대단한 예술품이라도 되는 양 감상하는 척했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진열장 아래에는 이 국가적 장식품을 위해 기부금을 낸 거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저들이 낸 8,000파운드가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사이 래플스는 마치 교양에 눈을 뜬 여학생처럼, 싸구려 안내서를 허겁지겁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성 아그네스의 순교 장면이군요." 그가 말했다. "……양각으로 투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걸작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버니, 이 무식한 친구야. 왜 물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은 감상할 줄 모르는 거야? 이건 그저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얇은 금판 위에 이토록 풍부한 법랑을 입힌 건 본 적이 없어. 게다가 뚜껑을 위로 걸어두면 금판이 얼마나 얇은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정말 기막힌 설계 아닌가? 버니, 우리 이걸 어떻게든 훔쳐낼 수 없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말이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미치광이는 우리가 방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나 역시 또 다른 미치광이처럼 그가 횡설수설 떠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눈앞에 우직해 보이는 순경 한 명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여름용 짧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호루라기를 매달고 있었으나 허리춤에 진압봉은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보통 체격에 넓고 인자해 보이는 얼굴을 가진, 땀을 흘리며 늘어진 콧수염을 기른 사내였다. 순경은 래플스를 엄하게 노려보았지만, 래플스는 오히려 즐겁다는 듯 그를 마주 보았다.

"저를 체포하시겠다고요, 경관님?" 그가 말했다. "그거 참 웃기는 농담이군요. 세상에나!"

"제가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선생님." 경찰관이 대답했다. "하지만 영국 박물관에 계신 선생님 같은 신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이상하군요!" 그는 내 옆의 환자에게 모자를 흔들어 보였다. 프록코트에 실크햇까지 갖춰 입고 산책을 나온 덕분에, 그는 지금 맡은 역할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었다.

"뭐라고요!" 래플스가 외쳤다. "그저 친구에게 그 금잔을 가져오고 싶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래요, 경관님, 정말 그러고 싶군요! 누가 듣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니까요."

순경의 얼굴은 이미 긴장이 풀린 상태였다. 힘없이 처진 콧수염 사이로 슬쩍 미소가 번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나으리."

순경이 말했다.

"맞아요. 전 그냥 제 느낌을 말했을 뿐이에요." 래플스가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런데 경관님, 진지하게 묻는 건데, 이렇게 귀중한 물건을 저런 상자에 넣어두면 정말 안전한 게 맞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한 충분히 안전할 걸세." 상대방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어조로 대답했다. 래플스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여전히 래플스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섣불리 끼어들지 않은 채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혼자서 움직이는 모양이군." 래플스가 말했다. "그게 현명한 판단인가?"

불안함이 서린 그 어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해 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익을 염려하는 태도였다. 마치 자신만큼이나 이 국가적 보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열정적인 학자의 말투였다. 사실, 이제 그 보물은 우리 세 사람만의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한두 명의 사람이 더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떠나고 없었기 때문이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오." 경관이 편안한 태도로 말했다. "문 옆에 있는 저 좌석이 보입니까? 저기 안내원이 하루 종일 앉아 있다오."

"그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깥에서 다른 안내원과 이야기 중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시면 직접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였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단순히 문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소리가 우리가 지나온 복도 안에서 들리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내 귀에는 마치 복도 바로 옆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 여기 있던, 당구 큐대를 들고 있던 그 친구 말인가?" 래플스가 다시 물었다.

"그건 당구 큐대가 아니었습니다! 지시봉이었죠." 영리한 그 경관이 설명했다.

"창이라도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래플스가 초조하게 말했다. "아니, 도끼라도 들고 있어야지! 공공의 보물을 이따위로 지키다니 말도 안 돼. 두고 봐, 내가 반드시 《타임스》지에 이 사실을 제보하고 말 테니까!"

어느 순간부터 래플스는 신경질적이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노인네처럼 변해 있었다. 그렇다고 의심을 살 만큼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었

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나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도무지 알 수 없었고, 경찰관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전 아무렇지도 않으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경찰봉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요. 몇 분만 지나면 이 방들도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흔히들 말하듯, 사람이 많아야 안전한 법이니까요."

"아, 곧 가득 차겠군요, 그렇지 않나요?"

"금방 올 겁니다, 선생님."

"아!"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주빌리 축제 기간이라 그런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만약 내 친구와 내가 전문적인 도둑이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랬다면 당신을 순식간에 제압했을 거라고요, 이보게나!"

"그건 못 하셨을 겁니다. 적어도 온 건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어쨌든 《타임스》지에 편지를 쓸 겁니다. 난 이런 쪽으로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니, 국가의 재산이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단 말입니다. 방금 문밖에 안내원이 있다고 하셨지만, 내가 듣기엔 복도 끝에 있는 것처럼 들리던데요. 당장 오늘 편지를 쓰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 모두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래플스의 말이 맞았다. 그 순간 나는 두 가지 장면을 동시에 포착했다. 래플스는 몇 인치 뒤로 물러나 양발 앞꿈치로 몸을 지탱한 채 서 있었다. 두 팔은 반쯤 들어 올렸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리고 우리 친구인 순경의 투박한 얼굴 위로도 또 다른 종류의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줄까?"

그가 가슴에 달린 호루라기 줄을 갑자기 움켜쥐며 외쳤다. 호루라기가 튀어 나갔지만, 끝내 그의 입술에는 닿지 못했다. 마치 두 자루의 총이 거의 동시에 발사된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두 차례 울려 퍼졌다. 남자는 나에게 기대며 비틀거렸고, 나는 쓰러지는 그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잘했어, 버니! 내가 그놈을 쓰러뜨렸어. 완전히 해치웠다고! 어서 문쪽으로 달려가 봐. 안내원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확인하고, 들었으면 그들을 상대하도록 해."

나는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항의하거나 원망할 시간 따위는 더더욱 없었다. 래플스가 순경의 정신을 쏙 빼놓기 전, 내가 느꼈던 경악은 아마 그 순경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

다. 하지만 완전히 당황한 와중에도, 진짜 범죄자가 지닌 본능적인 조심성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을 통과할 때는 아주 느긋하게 걸어 나갔다. 그러고는 복도에 있는 폼페이식 벽화 앞에 자리를 잡았다. 저 멀리 있는 문 밖에서는 안내원 두 명이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다. 곁눈질로 그들을 살피는 동안, 내가 들었던 둔탁한 충돌음은 그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말했듯이 날씨는 무더웠다. 하지만 내 몸을 타고 흐르는 땀은 이미 얼음 막처럼 굳어버린 듯했다. 그때 프레스코화의 액자 틀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래플스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내 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를 보는 순간, 내 공포와 분노는 배가 되었다. 그의 주머니가 빈손만큼이나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이 미친 짓은 그의 지난 행적을 통틀어 가장 방자하고 무모한 만행이었다.

"아, 정말 흥미로워, 아주 흥미롭단 말이지. 하지만 나폴리 박물관이나 폼페이 현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버니, 언젠가 꼭 한번 가봐야 해. 내가 직접 데려가 줄까도 생각 중이니까. 그건 그렇고—자, 천천히 움직여! 저 거지 녀석은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는군. 네가 그렇게 상스럽게 서두르다간, 저놈 때문에 우리가 교수형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

"우리라고!" 나는 속삭였다. "우리란 말이야!"

수다를 떨고 있는 안내원들에게 다가갔을 때, 나는 무릎이 맞부딪힐 정도로 떨렸다. 하지만 래플스는 기어코 그들의 말을 끊고는 선사 시대 살롱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계단 맨 위층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그쪽을 거쳐 이집트 전시실로 가도록 하죠.”

우리는 그들이 다시금 운명적인 대화에 몰두하도록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떴다.

"자네 미친 게 분명해." 걷는 내내 나는 쓰라린 심정으로 내뱉었다.

“그랬던 것 같긴 하네.” 래플스가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끝까지 같이 가줄 테니 걱정 말게. 아까 백서른아홉 야드였지? 그럼 지금은 백스무 야드도 안 될 거야. 훨씬 줄었을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 버니. 이건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야. 아주 천천히, 조심해서 움직여야 해.”

우리가 준비한 건 이 정도였다. 나머지는 그저 엄청난 운이었다. 계단 아래에서는 마침 요금을 지불하고 있던 한섭 택시가 보였다. 우리는 그 안으로 몸을 던졌고, 래플스는 블룸즈버리 전역에 다 들리도록 "채링 크로스로!"라고 외쳤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 채 블룸즈버리 가로 접어들었다. 그때 그가 주먹으로 트랩도어를 내리쳤다.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 거야?"

"채링 크로스 역입니다, 손님."

"킹스크로스라고 했잖아! 정신 차리고 미친 듯이 달려, 안 그러면 기차를 놓친다고! 10시 35분에 요크로 가는 기차가 있어."

래플스가 트랩도어를 쾅 닫으며 덧붙였다.

"버니, 거기서 표를 끊자. 그러고 나서 지하 통로를 따라 메트로폴리탄 역까지 간 다음, 베이커 스트리트와 얼스 코트를 거쳐 은신처로 숨어드는 거야."

실제로 삼십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래플스는 다시 대여한 운반용 의자에 앉았다. 그사이 벨보이와 나는 기력이 다한 그를 부축해 비틀거리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큐 가든에서 고작 한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래플스의 무너진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우리는 벨보이를 보내고 마침내 둘만 남게 되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초조한 말투로 래플스에게 내 생각을 가감 없이,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쏟아냈다. 그가 저지른 최근의 행태와 그에 대한 나의 생각 말이다. 일단 말을 시작하자 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토록 격하게 몰아붙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쉼 없이 말을 내뱉었다. 래플스는 그 모든 비난을 단 한 마디의 항변도 없이 묵묵히 받아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너무나 경악한 나머지 모자를 벗을 생각조차 못 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는 바람에 모자가 머리 위로 붕 떠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네놈의 지독한 버릇이었지."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계획은 따로 세워놓고, 나한테는 딴소리를 늘어놓다니!"

"오늘은 아냐, 버니. 맹세할게!"

"그러니까, 정말로 하룻밤 몸을 숨길 곳을 찾는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시작했다는 말이야?"

"당연히 그랬지."

"정말로 그냥 정찰만 하겠다고 했던 거야?"

"꾸며낸 것도 아니었어, 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자네만 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유라네." 래플스가 말했다. 여전히 매몰찬 경멸은 조금도 없었다. "그건 찰나의 유혹이었어. 로베르토가 내가 흔들리는 걸 알아차린 그 찰나의 순간, 마지막으로 치밀어 오른 충동이었지. 그는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나 역시 그가 알아챘다는 사실을 확인했네. 내가 원해서 한 일은 아니야. 신문에 그 불쌍한 친구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할 걸세. 하지만 그때 우리에겐 승부수를 던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왜?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잡혀가는 법은 없잖아. 설령 유혹에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다고 해도 말이야!"

"하지만 버니, 그런 유혹을 뿌리쳤다면 오히려 내가 비난받았을 거야. 그건 십만 분의 일의 확률이었다고! 우리가 평생 매일 그곳을 드나든다 해도, 당시에 우리처럼 방 안의 유일한 외부인이 된 적은 다시 없을 거야. 심지어 당구 점수를 매기던 조니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순간 말이야. 그건 신이 주신 기회였어. 그걸 잡지 않았다면 그건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을걸."

"하지만 가져가지 않았잖아." 내가 말했다. "그냥 두고 온 거잖아."

래플스가 고개를 저으며 살짝 머금었던 그 미소를 코닥 카메라로 찍어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미소는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이 마주하는, 그 찬란하고 위대한 순간들을 위해 아껴두는 표정이었다. 그동안 그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더 이상 치켜 올라가지 않은 눈썹 위로 모자를 약간 비스듬히 눌러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황금 컵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다.

그 값비싼 전리품은 며칠 동안 그의 벽난로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유물의 유구한 역사와 비극적인 결말은 축제 분위기가 한창인 요즘 같은 시기에도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울 만큼 화제였고, 스코틀랜드 야드의 정예 요원들이 이 잡듯 뒤지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우리가 알게 된 바로는, 현장의 경관은 그저 정신을 잃었을 뿐이었다. 내가 그 소식이 실린 저녁 신문을 가져다준 순간부터 래플스의 기분은 평소의 차

분한 성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조되었다. 그가 보여준 놀라운 결단력만큼이나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정작 그 잔 자체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내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정교하고 아름답기는 했으나, 손에 쥐었을 때 너무나 가벼웠기 때문이다. 금의 무게만 따진다면 녹여낸다 해도 세 자릿수 금액은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래플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은 이 잔을 절대 녹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걸 가져가는 건 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이지, 버니.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파괴하는 건 신과 예술에 대한 죄악이라고. 만약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세인트 메리 애보트 성당의 풍향계에 꿰뚫려도 좋아!"

이런 식의 논쟁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실질적인 논평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다.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이 황당한 농담을 즐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신문 기사들이 상황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도 했다. 신문은 래플스를 잘생긴 청년으로 묘사한 반면, 그의 마지못해 가담한 공범은 저질스럽고 불량해 보이는 중년 남성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우리 둘 다 아주 깔끔하게 해치웠군, 버니."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것들 중 그 무엇도 내 소중한 잔을 제대로 담아내진 못했지. 자, 이것 좀 봐. 제발 좀 보라고! 이토록 화려하면서도 어찌 이리도 순결할 수 있단 말인가? 성 아그네스가 겪은 고난이 꽤나 심했던 모양이지만, 이런 금 위에 새겨진 에나멜 장식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정도 고생쯤은 충분

히 가치 있는 일이었을 거야. 게다가 이 잔에 담긴 역사라니. 이게 500년이나 된 물건이고,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이들의 손을 거쳐 왔다는 게 믿어지나? 버니, 나중에 내 화장한 유골을 저 잔에 담아 줘. 그리고 우리를 저 깊은 땅속에 함께 묻어다오!"

"그동안에는요?"

"그대는 내 마음의 기쁨이며, 내 삶의 빛이자, 내 눈의 즐거움이라네."

"만약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결코 안 될 일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할 거야."

래플스가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면모를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차라리 터무니없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온갖 엉뚱한 행동 속에서도,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만큼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진실함이 깃들어 있었다. 또한 그가 그 잔에 매료된 것은, 스스로 밝힌 대로 아주 순수한 열정이었다. 상황상 일반적인 수집가들이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 즉 친구들에게 자신의 보물을 보여주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 광적인 집착이 정점에 달했을 때, 래플스와 이성은 마치 '황금의 방'에서 갑작스럽게 갈라졌던 것처럼 다시금 돌연히 하나로 맞물렸다.

"버니!" 래플스가 신문을 방 저편으로 휙 던지며 외쳤다.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자네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드디어 그걸 처분할 곳을 알아냈다고!"

"그 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정신이 좀 드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맙긴 한데, 버니, 자네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이지 너무 냉담하군. 내 계획이 성공할 때까지는 자네에게 아무 말도 안 할 생각이야."

"시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 말은 오늘 밤 한두 시간 정도는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뜻이겠지. 내일은 일요일이고, 화요일이면 주빌리 축제가 시작되잖아. 노인 테오발드도 축제에 맞춰 돌아올 테고 말이야."

"충분히 늦게만 간다면, 그가 돌아왔든 아니든 별 상관없을 거야."

"늦으면 안 돼. 거기 문 닫으면 끝이니까. 아니, 더 물어볼 필요 없어. 가서 헌틀리 앤 파머 비스킷 큰 상자로 한 통 사다 줘. 종류는 네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꼭 그 회사 제품이어야 해. 그것도 파는 것 중에 제일 큰 상자로 말이야."

"이보게, 친구!"

"질문은 하지 마, 버니. 자네는 자네 할 일을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의 얼굴에는 영민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의 기묘한 명령을 수행한 지 채 15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1분 뒤, 래플스는 상자를 열더니 그 안에 든 비스킷을 전부 가장 가까운 의자 위로 쏟아부었다.

"자, 이제 신문 좀 볼까!"

나는 신문지 한 더미를 가져왔다. 그는 황금 잔에게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정중한 작별 인사를 건네더니, 신문지로 겹겹이 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빈 비스킷 상자 안에 그 잔을 집어넣었다.

"이제 갈색 종이 좀 가져와 봐. 식료품점 점원 녀석으로 오해받고 싶지는 않으니까."

끈을 단단히 묶고 끝을 깔끔하게 잘라내니 제법 그럴싸한 꾸러미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따로 있었다. 래플스 본인을 완벽하게 위장하는 일이었다. 길모퉁이에서 짐꾼과 마주친다 해도,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할 만큼 말이다. 게다가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떠날 작정이었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터였다.

그가 돌아오기까지 한 시간 정도 더 걸렸을지도 모른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겨우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나는 곧장 우리의 위험한 동맹군인 문지기에 대해 물었다. 래플스는 떠날 때 문지기에게 들키지 않

고 지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다른 출입구와 지붕을 이용해 문지기를 완전히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그 잔은 어떻게 했나?"

"처분했지!"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잠시만 생각 좀 해보죠. 택시를 두 번 탔고, 우편 요금은 6펜스였어요. 등기 비용으로 2펜스가 더 들었고요. 네, 정확히 5실링 8펜스가 들었습니다."

"그게 너한테 돈이 들었다고! 그런데 래플스, 그걸로 대체 뭘 받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얘야."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푼도 없어요."

"놀랍지도 않군. 난 애초에 그게 시장 가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그런데 대체 그걸 어떻게 해버린 거야?"

"여왕 폐하께 보냈네."

"설마, 그러진 않았겠지!"

'악당'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내가 래플스를 알게 된 이후로 그는 늘 그중 한 종류의 악당이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예외였다. 그는 아주 순수한 종류의 악당, 즉 즐거움과 장난기로 가득 차 들떠 있는, 백발이 성성한 커다란 어린아이와도 같았다.

"자, 아서 비지 경에게 보냈네. 여왕 폐하께 전달해 달라고 말이야. 도둑놈의 충성스러운 경의를 담아서 말이지. 이 정도면 자네 마음에 들겠나?" 래플스가 말했다. "만약 내가 여왕 폐하께 직접 편지를 썼다면, 중앙우체국 사람들이 나를 너무 눈여겨볼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그걸 들고 세인트 마틴스 레 그랑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상자까지 확실히 등기 등록을 해두었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법이지."

"대체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란 말인가!" 나는 신음하듯 내뱉었다.

"여보게, 버니.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께서 다스리는 시대에 살았네. 지금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리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모든 나라가 왕실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있고, 사회의 모든 계층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네. 우리만 빼고 말이야. 내가 한 일이라곤 우리 동료들의 명성에 오점을 하나 지운 것뿐이라네."

그 말을 듣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가 가진 기백이 나에게도 전염되는 듯했다. 나는 그를 언제나 그래왔듯, 앞으로도 늘 그러할 진정한 스포츠맨이라 치켜세우며 그의 무모한 손을 꽉 맞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추적해 오면 어쩌려고?" 내가 말했다.

"헌틀리 앤 파머 사의 비스킷 상자 따위에서 건질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래플스가 대답했다. "그래서 네게 상자를 가져오라고 시킨 거야. 게다가 종이 위에 추적 가능한 글자를 남기지도 않았어. 그냥 깨끗한 새 엽서 한 장에 두세 글자를 인쇄했을 뿐이지. 왕국 어디에 있는 우체국에서나 살 수 있는, 반 펜스짜리 엽서 말이야. 아, 엽서 값 때문에 돈을 좀 더 썼군. 아니야, 친구. 진짜 위험한 건 우체국이었어. 내가 직접 눈여겨본 형사도 한 명 있었거든. 그놈을 보고 나니 갈증이 확 밀려오는군. 버니, 위스키랑 설리반 두 잔 부탁해."

래플스는 곧 내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치며 건배를 청했다.

"여왕 폐하를 위하여!" 그가 말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시길!"

파우스티나의 운명

"마르가리, 살바토레에게 뺏겼구나! 마르가리, 하지만 그 남자는 사냥꾼이야! 마르가리, 네 잘못이 아니야!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더는 말하지 말자!"

열린 창문 너머로 피아노 오르간의 금속성 선율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위로 놋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가 노래를 내질렀다. 그 노래 가사는 나중에 따로 알아내어, 나보다 이탈리아 사정에 밝은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위에 적어 두었다. 알로에 향기와 푸른 하늘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최근까지 유행하던 곡을 굳이 떠올리게 한다 해서 고마워할 사람은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 곡이 비극에 어울리지 않는 천박

한 배경음악으로 머릿속을 맴도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그 노래가 비극과 뒤섞여 맴돌고 있다.

8월 초입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밤낮을 바꿔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낮잠이 법처럼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나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창문을 닫으며, 래플스에게도 똑같이 창문을 닫아버릴까 고민하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래플스가 나타났다. 그는 테오발드 박사가 아침부터 밤까지 지극정성으로 챙겨준 덕분에 늘 입고 있는 실크 잠옷 차림이었다.

"그러지 마, 버니." 래플스가 말했다. "난 저게 꽤 마음에 들어서 끝까지 듣고 싶거든. 그런데 말이야, 저 사람들은 겉보기에 어떤 부류 같아?"

나는 고개를 밖으로 내밀어 밖을 살폈다. 래플스가 어떤 창문으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 기묘한 숙소의 철칙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창틀에 팔꿈치까지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모를 호기심을 채우려 애쓰던 그때, 팔꿈치 밑의 창틀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제야 떠오른다.

"지저분해 보이는 거지들이군." 나는 어깨너머로 말을 던졌다. "그저 시커먼 놈들이야. 턱은 푸르스름하고, 머리카락은 기름기 돌아 곱슬거리는 데다 귀걸이까지 하고 있더군. 옷은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그림이 될 만큼 멋스러운 누더기도 아니었어."

"전부 나폴리 놈들이군." 내 뒤에서 래플스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특유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 한 놈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다른 놈은 오르간을 돌리고 있잖아. 저 동네 놈들은 항상 저런 식이라니까."

"노래하는 친구, 꽤 괜찮은 녀석이군." 노래가 끝나자 내가 말했다. "세상에, 저 이빨 좀 봐! 저 친구, 이쪽을 보면서 입을 귀에 걸고 싱글벙글 웃고 있잖아. 뭐라도 좀 던져줄까?"

"글쎄요, 내가 나폴리 사람들을 딱히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옛 생각이 나는군요. 정말이지 옛 생각이 나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세요."

래플스가 내 손에 쥐여준 것은 하프 크라운 동전 두 개였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동전들을 길바닥에 던져버린 뒤였다. 나는 진흙탕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탈리아인들을 뒤로하고, 이런 무모한 낭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듯 항의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래플스는 고개를 숙인 채 괴로운 눈빛으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그 한마디 변명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날 과거로 데려갔어." 그가 되풀이했다. "세상에, 그들이 날 얼마나 과거로 데려갔는지 몰라!"

그는 갑자기 걷던 발걸음을 멈췄다.

"자네는 이해 못 할 거야, 버니. 내 오랜 친구여. 하지만 원한다면 곧 알게 되겠지. 언젠가는 꼭 말해주려 했지만, 그동안은 그럴 만큼 마음이 동한 적이 없었을 뿐이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떠들기 위해 꺼낼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야. 버니, 이건 애들 잠재울 때나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네.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터지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자네는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는지 자주 묻곤 했지? 이제 그 이유를 듣게 될 걸세."

상황은 유망해 보였으나, 래플스의 태도는 그 이상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 중에서도 참으로 독특한 순간이었다. 수려한 얼굴은 부드럽게 풀렸다가도 이내 딱딱하게 굳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차갑게 굳은 얼굴도, 그렇게 부드러운 표정도 본 적이 없었다. 목소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떤 때는 여인처럼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맹렬함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이는 이야기가 끝날 무렵의 일이었다. 이야기의 도입부는 평소의 그답게 꽤 무심하게 풀어놓았다. 다만 엘바섬에 대해서는 조금 덜 경박하게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작 그 섬에서 래플스 본인이 그토록 많은 인류애를 경험했으면서 말이다.

"치명적이라니, 버니. 그 영광스러운 암초나 그곳에 사는 연체동물들을 표현하기엔 오히려 모자란 말이지. 하지만 그놈들이 내 자존심에 상처를 냈으니, 어쩌면 내가 편견을 품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군. 나는 마치 난파되어 홀로 살아남은 선원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거든. 바다에서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채 해변으로 떠밀려 온 사람처럼 말이야. 그

런데 사람들은 이탈리아 거리의 악사를 대하는 자네 눈빛만큼이나 나에게 무관심하더군. 뭐, 그들이 무례했던 건 아니야. 끼니를 챙기거나 바지를 하나 얻어입으려고 도둑질을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차라리 그랬다면 훨씬 흥미진진했겠지만 말이야.

그나저나 정말 대단한 곳이었어! 나폴레옹도 견디지 못했던 곳이라는 걸 자네도 기억하겠지? 그래도 그는 나보다는 오래 버티더군. 나는 이탈리아어를 조금이라도 익혀보려고 그 지옥 같은 광산에서 몇 주를 보냈어. 그러고는 작은 나무 목재 운반선에 몸을 싣고 본토로 건너왔지. 엘바섬을 떠날 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 마침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자네가 결코 잊지 못할 바로 그런 노을이었지."

"그 부랑선은 나폴리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전에 바이아에 잠시 들렀지. 나는 그곳에서 밤을 틈타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렸어. 나폴리 자체에는 영국인이 너무 많거든. 언어도 더 익히고 외모도 좀 더 바꾼 뒤라면 나폴리가 아주 즐거운 사냥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그동안 나는 내 평생 여행하며 마주친 곳 중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에 머물 자리를 구했어. 포도밭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나는 얌전한 선원 노릇을 하며 비상용 병 세척부로 고용됐지. 일당은 1.5리라라는 그럴듯한 액수였어. 1실링이 조금 넘는 돈이었지만 말이야. 게다가 모두가 마실 수 있는 질 좋은 와인이 넘쳐났고, 몸을 담그기엔 더 좋은 와인도 있었거든.

자, 들어봐 버니. 그 8개월 동안 나는 정말이지 결백한 사람이었어. 그게 얼마나 호사스러운 경험이었는지 모른다니까! 나는 헤로데 왕도

울고 갈 만큼 절제하며 포도 한 알도 입에 대지 않았어. 도둑놈 같은 선원들 사이에서 내 신념을 지키려다 칼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짜릿하고도 맛깔스러운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이야."

그곳은 바라보는 모든 풍경이 즐거움을 주는 곳이었다. 아니, 풍경 그 자체보다도 그 너머에 펼쳐진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무언가 사건이 터지기 전, 그 시작의 모습 그대로 평생 꿈속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다.

그곳은 만(灣) 안쪽으로 툭 튀어나온 바위 언덕이었다. 덩굴 식물들이 지붕처럼 뒤덮여 있었고, 그 끝자락에는 바다 위로 아찔할 만큼 높이 솟은 아주 기묘하게 생긴 낡은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피우던 설리번 담배꽁초를 떨어뜨리는 순간 150피트 아래의 푸른 바닷속으로 곧장 수직 낙하할 것만 같은 높이였다.

"집 뒤편에 있는 정원에서 시작했어. 버니, 정말 환상적인 정원이었지. 협죽도와 미모사, 도금양과 로즈마리가 가득했고, 길들지 않은 불꽃 같은 붉은 꽃들이 엉켜 있었거든. 그 정원 한구석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지하 계단 입구가 있었어. 암반을 깎아 만든 계단이 이백 계단 가까이 이어지더군. 그러고 나면 철문이 하나 나오고, 다시 야외로 난 계단이 여든 개쯤 더 이어져. 마지막에는 해적들이나 쓸 법한 동굴이 나오는데, 아주 싸구려 같으면서도 묘한 색채를 띠고 있었지. 그 동굴을 지나면 작은 만이 나타나는데,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 깊고 푸른 바닷물과 정직한 바위들뿐이었으니까. 나는 거기서 포도주를 실어 나르는 배를 지켜봤지. 갈색 돛을 단 배불뚝이 배 한 척

이랑, 그 배를 따르는 작은 보트 한 척이 있었어. 그 배가 나폴리로 포도주를 실어 날랐고, 보트는 그 배의 보조 역할을 했지."

"저 위쪽 저택은 옛날 위대한 티베리우스 황제가 머물던 교외 별장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들 하더군. 그 노련한 죄인이 쓰던 개인 극장도 아직 남아 있어서, 관람석 단층이 지금까지도 말끔하게 남아 있었지. 노예들을 이용해 칠성장어를 살찌우던 우물도 있었고, 도미노처럼 얇고 체리보다 붉은 빛을 띠는 고대 로마 벽돌로 지어진 폐허가 된 신전도 있었어. 난 고고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만약 할 일이 없었다면 거기서 고고학자가 되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겐 할 일이 아주 많았거든. 배를 돌보는 일로 바쁘지 않을 때면 포도나무를 다듬거나, 포도를 따거나, 아니면 신전 아래에 있는 서늘하고 어둡고 퀴퀴한 지하 저장고에서 와인을 만드는 일을 도와야 했어. 지금 이렇게 떠들면서도 그곳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냄새까지 느껴지는걸. 소리도 들리고 감촉도 생생해! 철벅, 퍼억, 보글보글, 찌걱, 찌걱, 꾸르륵거리는 소리 말이야. 마치 도살장을 헤치며 왕좌를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발밑이 질척거렸지. 그래, 버니, 자네는 믿기 힘들겠지만, 공이 내 손을 떠날 때 단 한 번도 크리켓 경기의 경계선을 벗어난 적 없는 이 훌륭한 오른발이, 그런 곳에서도 쓰였다니까."

"고통이라는 붉은 포도에서 즐거움의 찌꺼기를 짜내리라."

그는 마치 농담을 던지다 말고 갑자기 진실을 마주친 사람처럼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방은 내가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텅 빈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바구니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겉으로는 모두 나를 위해 마련된 것처럼 보였다. 덕분에 래플스는 벨이 울릴 때마다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학생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침대로 쏙 들어가곤 했다.

오늘 오후만큼은 꽤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다. 아침에 테오발드가 다녀갔고, 테오발드 부인이 여전히 그의 시간을 많이 빼앗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린 창문 너머로 수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오르간 소리와 "마—가—리"라는 노래가 들려왔다. 래플스가 말을 멈춘 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담배를 건네자 그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그 이후로 그의 말투는 예전 같지 않았다.

“버니, 자네는 윤회설을 믿는지 모르겠군. 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보다 차라리 윤회를 믿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네. 티베리우스의 별장에서 내 생이 시작된 이후로는 나 자신도 그걸 믿기 직전까지 갔었지. 내 시절에 그 별장을 차지했던 그 짐승 같은 놈 말이야. 만약 그놈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지 않다면, 그놈은 역대 황제들 중 최악인 자들만큼이나 냉혈한 악당이었네. 그런데 나는 그놈이 티베리우스와 닮은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했어. 로마인 특유의 높고 큼직한 코를 가졌고, 눈빛만 봐도 죄악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지. 몸집이 비대한 만큼 얼굴도 기름기로 부풀어 올라서, 한 걸음만 걸어도 쌕쌕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네. 그 점만 빼면 꽤 볼만한 덩치였어. 갈매기 날개처럼 거대한 회색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부하들에게조차 아주 정중하게 대했으니까. 하지만 버니, 그놈은 정말 최악이었어. 역사상 손꼽히는 최악 중 하나였지. 그 포도밭은 그저 그의 취미 생활일 뿐이라는 말도 있었는

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그 취미를 아주 철저하게 이용했네. 주말이면 나폴리에서 놀러 오곤 했지. 파도가 너무 거세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 때면 그 배를 타고 오기도 했고, 항상 혼자 오는 건 아니었어. 이름부터가 불길하더군, 코르부치라니. 아, 덧붙이자면 그자는 백작이었네. 뭐, 나폴리에서는 백작이라는 작자들이 흔하긴 하지만 말이야. 사계절 내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들이지."

"그놈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내 앞에서 뽐내며 늘어놓곤 했다. 정말이지 진저리가 났다. 내 국적을 숨길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런데 그 돼지 같은 놈에게는 영국인 친구들까지 있었다. 11월에도 만(灣)의 물이 갓 짠 우유처럼 따뜻하다는 걸 알고 내가 수영을 하러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놈은 그 사악한 늙은 머리를 흔들며 이랬다. '자네 정말 대담하군, 아주 대담해!' 그러고는 이탈리아 친구들 앞에서 나를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치켜세우며 온갖 너스레를 떨었다. 맙소사, 그놈이 의도치 않게 딱 맞는 단어를 골라낸 셈이었다. 결국 내가 그놈에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않았던가!"

"하지만 버니, 그곳에서의 해수욕 말이야. 정말이지 내 평생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즐거움이었어. 아까 물이 꼭 와인 같다고 말했지? 속으로는 그 물을 '푸른 샴페인'이라고 불렀다니까. 그 멋진 표현을 감탄하며 들어줄 사람이 곁에 없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

물론 그곳에 있는 동안 내 평소 생활이 아주 그립지는 않았어. 정말이야. 하지만 자네가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자주

했지, 친구. 특히 혼자 수영하러 나갈 때면 더 그랬어. 아침 일찍 바다가 온통 장미 꽃잎을 뿌려놓은 듯 붉게 물들었을 때나, 밤늦게 자네의 몸이 인광을 내뿜으며 불꽃처럼 빛나던 그 순간들 말이야! 아, 그래. 가끔은 그런 삶도 꽤 괜찮더군. 몸을 숨기고 지내기엔 그야말로 완벽한 낙원이었어. 또 다른 에덴동산 같았지,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엾은 나의 이브!"

그는 말을 잇지 못할 만큼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꽉 다문 턱과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듯 보였다. 나는 마지막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 적는다. 래플스에 대해 글을 쓰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단어를 써야 할 만한 다른 상황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는 단순히 차분해진 정도가 아니라 냉혹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감정의 극단에서 반대쪽 극단으로 급격히 도망쳐 버린 모습은, 불경한 아이네아스를 보필하는 아카테스 역할을 자처해 온 내가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불신이자 예외적인 순간이다.

"난 그 애를 이브라고 불렀네." 그가 말했다. "본명은 파우스티나였지. 포도밭 안쪽 경계 지대의 오두막에 모여 사는 대가족 중 한 명이었어. 그런데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아프로디테라 해도, 그 구멍 속에서 나타난 아프로디테만큼 경이롭거나 아름답지는 못했을 거야!"

"내 평생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어. 이목구비는 완벽 그 자체였고, 피부는 은은한 구릿빛을

띠어 마치 오래된 금빛처럼 보일 정도로 섬세했지. 머리카락은 검은색에 가까울 만큼 풍성하고 멋졌고, 눈과 치아는 다른 장점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라도 그것만으로 명성을 안겨 줄 만큼 매혹적이었어. 정말이지 버니, 그런 여자라면 런던 전체가 미쳐버릴 거야. 하지만 세상에 그런 여자는 또 없을 거라고 확신해. 그런데 그런 여자가 그 아름답고도 황량한 구석진 곳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었던 거지! 뭐, 나한테만큼은 그 매력이 헛되지 않았지. 난 그녀와 결혼해서, 그녀의 집안처럼 허름한 오두막에서라도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그저 그녀를 바라보기 위해서라면, 남은 생을 오직 그녀를 바라보는 데만 쓰기 위해서라면, 너한테조차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낼 수도 있었을 거라고! 더 이상은 말 안 할 거야, 버니. 더 떠드는 놈은 천벌을 받을 테니까! 그렇다고 이 가여운 파우스티나가 내 인생의 유일한 여자였다고 오해하진 마. 난 '유일하다'는 식의 헛소리는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는데, 그녀는 내 미적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준 유일한 존재였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세상을 다 버리고 파우스티나에게 충실할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말했던 그 작은 신전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포도 덩굴 사이에서 만나기도 했지. 어떤 때는 순전히 우연이었고, 어떤 때는 아주 노골적인 계획이었어. 그러다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나오는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더할 나위 없이 낭만적인 우리만의 아지트가 되었지. 그러다 바다가 우리를 부르면, 나의 푸른 샴페인 같고 반짝이는 코발트빛 같은 바다가 말이야. 그러면 언제든 작은 배를 바로 띄울 수 있었어. 오, 그 밤들이란! 달빛 아래 은빛 물결을 가르며 수 마일 밖까

지 내다보던 밤이 좋았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어부들의 횃불이 바다처럼 보이고 하늘에 붉은 지그재그로 번뜩이는 베수비오 화산이 보이던 밤이 좋았는지 도무지 가릴 수가 없었어. 우리는 행복했지. 그걸 인정하는 게 뭐 대수겠어. 우리에겐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동료들은 내 일에 관심이 없었고, 파우스티나의 가족들도 그녀를 딱히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거든. 백작은 일주일 중 다섯 밤을 나폴리에서 보냈고, 나머지 이틀 동안 우리는 각자 한숨을 내쉬며 시간을 보냈을 뿐이야."

처음에는 문학에서 가장 흔한 이야기처럼 흘러갔다. 에덴동산에 이브가 나타난 격이었다. 그곳은 이전에도 지상 낙원이었으나, 이제는 그 자체로 천국이 된 듯했다. 잠시 동안은 그랬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밤, 보트 안에 있던 파우스티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물결을 따라 흘러가며, 그녀가 흐느끼며 털어놓는 사연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서 말한 이야기만큼이나 오래된, 아주 흔한 이야기였다.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었다고? 뭐라고!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내가 배를 뒤흔들어 놓으려 한 건가? 우리의 사랑 말고 그 약혼이라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파우스티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Niente, niente),'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니,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그 남자가 그녀의 심장을 찌르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보는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자가 누군지는 전혀 몰랐지만, 나폴리 사람들의 생리를 잘 알기에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지. 사실 그런데 나는 그 협박 자체는 약혼 사실보다 오히려 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 지금 생각하면 둘 다 웃음이 나지만 말이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낼 것 같아?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놈은 절대 용납 못 해! 그날 밤 당장 그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멀리 달아나 버릴까도 생각했지. 다시는 이 포도밭 근처에도 안 오고, 그녀도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말이야. 하지만 그때 우리에겐 리라 한 푼 없었어. 맨발로 배에 앉아 있는 우리 몸엔 누더기뿐이었지. 게다가, 감히 이런 여자를 위협한 그 짐승 같은 놈의 이름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거든."

"한동안 그녀는 아주 완강하게 입을 열지 않았어. 하지만 나 역시 그녀 못지않게 고집을 부렸지. 결국 그녀가 조건을 내걸더군. 그놈에게 칼을 꽂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였어.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놈이니까. 나도 그놈의 등에 칼을 꽂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지. 파우스티나는 내 태도가 조금 의아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꽤 만족한 눈치였어. 그녀 스스로가 차가운 강철에 대해서는 타고난 관용을 지닌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더니 다음 순간, 그녀는 내 숨을 멎게 만들었어. '스테파노예요.'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어."

"가여운 것, 그럴 만도 하지! 세상에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필이면 스테파노라니!"

"버니, 그놈은 정말 형편없는 놈이었어. 체구도 왜소하고 못생긴 데다, 비굴하면서도 성질은 고약했지. 짐승 같은 교활함과 위선만큼은

주인놈 다음가는 수준이었어. 그놈 얼굴만 봐도 견적이 나왔지. 난 사람 보는 눈이 꽤 정확하거든. 그놈이 코르부치의 심복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놈을 악당이라 손가락질했을 거야. 토요일이면 주인과 그 새 정부를 위해 준비할 게 있다며 늘 제일 먼저 나타났고, 월요일이면 뒷정리를 하고 문을 잠그느라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스테파노! 그 벌레 같은 놈! 그놈이 칼을 들고 여자를 협박하는 거야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놈 말을 듣고 살았단 말인가? 무엇보다 파우스티나가 왜 하필 그놈이었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그녀를 심문해 봤지.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예상대로 아주 뻔하고 진부한 변명뿐이었어.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다는 거야. 식구도 아주 많았고. 그중 몇몇은 구걸을 했다면서, 내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냐고 묻더군. 또 어떤 이들은 가끔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다들 굶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녀는 소를 돌봤지만 소는 고작 두 마리뿐이었고, 우유를 포도밭이나 다른 곳으로 배달하는 일은 한 명만 있어도 충분했지. 그녀를 대신할 자매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스테파노는 너무나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부자라고요!" 내가 되물었다. "스테파노 말입니까?"

"그래, 나의 아르투로."

"그래, 버니. 그 포도밭에서 난 승부수를 던졌어.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부자가 된 거지?" 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들을 선물했다. 그 가족들은 그 보석을 팔아 몇 달을 버텼다. 그녀는 결혼 전 보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변호사에게 관리를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며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보석이라니! 스테파노!" 나는 그저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백작께서 그중 몇 개는 이미 값을 치르셨을지도 몰라요. 정말 친절한 분이시거든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는 어떤 사람인데요?"

"아, 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렇다면 그 일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그 사람의 집에 살겠다는 건가요?"

"지금은 안 돼, 나의 사랑—지금은 안 된다니까!"

"아니, 절대 안 되지!" 내가 영어로 외쳤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분명 그랬을 거 아니야, 응?"

"물론이지. 이미 다 조율해 둔 일이야. 백작께서 정말 친절하시더라고."

"그가 여기 올 때, 그를 만나기는 하나?"

"그래요, 그는 가끔 그녀에게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주곤 했죠. 사탕이나 리본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선물은 언제나 스테파노라는 저 두꺼비 같은 놈을 거쳐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놈들과 어울리는 부류를 보니, 이제 모든 게 이해가 가더군요. 하지만 파우스티나는 달랐습니다. 신께서 빚어내신 그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은 진심이었어요. 별빛이 일렁이는 물결 사이에서 서툰 이탈리아어로 사랑을 속삭이던, 누더기를 걸친 불량배에게 베풀어준 그 친절도 진심이었고요. 기억하세요, 그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리 없었습니다. 코르부치와 그 부하들 곁에 있는 나를 보며, 그녀는 마치 지상으로 내려온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는 듯했을 테니까요."

"글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스윈번의 시 구절 두 줄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니 도무지 떠나질 않더군. 바로 이런 구절이었네."

"신께서 말씀하셨지. '그녀를 얻는 자, 파우스틴을 취하여 간직하라'고."

"그 구절을 곱씹으며 드디어 잠이 들었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그 문장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 버니, 자네가 스윈번의 시를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파우스티나와 내 파우스티나가 서로 닮은 구석이 있었다는 식의 오해는 하지 말아주게.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해두지만, 불쌍한 파우스티나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순결하고 가장 훌륭한 여인이었네."

"자, 다음 주 토요일이 되자마자 나는 한바탕 붙을 각오로 잔뜩 벼르고 있었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줄게. 코르부치 백작이 나폴리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는 맹세를 깨고 아주 깔끔한 솜씨로 그의 별장에 침입했거든. 딱히 힘들지는 않았어. 내가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알아챌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명심해,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그저 백작의 책상 서랍에서 권총 한 자루와 자잘한 소품 몇 개를 빌려왔을 뿐이지. 이쯤 되니 그 빌어먹을 나폴리 놈들의 생리는 훤히 보이더라고. 칼을 들이대면 제법 날쌔게 굴지만, 총구라도 들이밀면 토끼처럼 구멍을 찾아 잽싸게 도망치거든.

물론 그 권총을 내가 쓰려고 가져온 건 아니었어. 파우스티나를 위한 거였지. 나는 바닷가 근처 동굴에서 바위에 꽂아둔 양초를 쏘며 그녀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었어. 동굴 안에서는 소리가 무시무시하게 울렸지만, 다행히 위쪽까지는 전혀 들리지 않았지. 초기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우리 둘 다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였어. 덕분에 파우스티나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갖게 되었지. 그녀의 성격상 위급한 상황이 오면 아주 거침없이 총을 쏠 거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었고 말이야. 사실 우리 둘이 힘을 합친다면, 친구 스테파노는 아주 뜨거운 주말을 보내게 될 게 분명했어."

하지만 토요일에 소식이 들려왔다. 백작이 업무차 로마에 가 있는 바람에 이번 주에는 오지 못하며, 제때 돌아오기도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덕분에 일요일 내내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나는 그에 맞춰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 와서 이 일을 더 숨겨서 좋을 건 없었다. '그녀를 차지하는 자가 파우스티나를 가져가게 두라'고들 하지

만, 나는 그녀를 당당하게 쟁취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녀를 잃고 망해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일요일에 그녀의 사람들, 즉 백작과 스테파노가 얼굴을 비치는 즉시 그들과 정면으로 맞붙기로 결심했다. 기억하겠지만, 나는 워름우드 스크럽스 교도소 근처의 은밀한 범죄 생활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파우스티나와 나폴리만만 있으면 내게는 충분했다. 게다가 내 안의 원시적인 본능은 욕망을 위해 싸운다는 생각에 오히려 환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토요일, 우리는 이전처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었다. 해가 저문 뒤 가능한 한 빨리, 저 아래 동굴에서 딱 한 번 더 비밀리에 만난 것이다. 우리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해도 상관없었다. 서로가 결국에는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확신을 품고 기다리는 것조차 그 나름의 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나도 참을성을 잃고 말았다. 동굴 안이 아니라 그 위쪽에서 말이다. 디레토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를 계속 붙잡아 두었고, 결국 나는 무언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디레토레는 평소에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결점이라곤 우리 공동 상사에게 굽실거리며 복종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니 그가 코르부치 본인의 비밀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명백해 보였다. 의심이 드는 즉시 나는 그의 면전에서 사실인지 물었다. 그리고 내 예감은 맞았다. 그는 어깨를 몇 번이나 으쓱하며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는 참 편리할 정도로 유약한 사람이어서, 상황에 따라 그를 몰아세우다 보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사실은 이랬다. 백작은 로마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나를 불렀다. 백작은 지금 떠나게 되어 무척 유감이라며, 다른 용건도 있지만 파우스티나에 관해 내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파노가 백작에게 파우스티나와 벌인 소동에 대해 전부 털어놓은 모양이었다. 게다가 그 소동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말이다. 파우스티나는 내게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지만, 나 역시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다.

백작은 자기 앞잡이인 스테파노 편을 있는 힘껏 들어줄 작정이었다. 딱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백작은 돌아오면 나를 손봐줄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내가 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두었다. 그래서 그 심부름꾼 같은 디레토레에게는 내가 밤낮없이 일에만 매달리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나는 그 불쌍한 녀석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적어도 그날 밤에는 추가로 일을 벌일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두었다.

주변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디레토레의 숙소에서 빌라까지 이어지는 길고 완만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머리를 오렌지 나무에 찧었던 기억이 납니다. 빌라 뒤편에는 제가 말했던 정원이 있었고, 지하 계단이 뚫고 지나가는 깎아지른 절벽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수직 통로 속으로 뛰어들기 직전, 머리 바로 위로 낮게 내려앉은 별들과 저 멀리 아래에서 반짝이는 어부들의 횃불을 보았습니다. 해안의 등대 불빛과 베수비오 화산의 형상을 그려내는 붉은 상형문자 같은 빛도 보았지요. 그곳의 이국적이고 평화로운 정취를 온전히 만끽한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계단은 두 구간의 긴 통로로 나뉘어 있었다. 위쪽 계단 끝에는 환기구가 한두 개 뚫려 있었지만, 아래쪽 계단 끝에 있는 철문까지는 바늘구멍만 한 틈조차 보이지 않았다. 버니, 자네가 앞으로 쓸 그 어떤 소설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가벼운 분위기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묘사가 나오곤 하지. '정오에도 침침하고, 황혼에는 한밤처럼 어두우며, 자정에는 이집트의 아홉 번째 재앙처럼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말이야. 내가 인용한 문구의 정확성까지는 장담 못 하겠지만, 그 계단의 상태만큼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네. 그날 밤 그 계단은 챈서리 레인 예치소에서 가장 튼튼한 금고 안에 든, 가장 안전한 금고의 내부만큼이나 새까맸으니까.

맨발로 계단을 채 내려가기도 전이었네. 누군가 장화를 신고 쿵쾅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나? 네 계절 중 세 계절을 맨발로 지내는 파우스티나일 리는 없었네. 그런데 정작 아래에서는 파우스티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녀는 얼마나 겁에 질렸을까! 그 순간 내 피도 차갑게 식어버렸네.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오는 그 남자가 마치 끓는 주전자처럼 씩씩거리며 노래를 불렀거든. 그건 분명, 우리 모두가 로마에 있다고 믿었던, 숨이 찬 그 백작 본인이었음이 틀림없었네!

그는 점점 더 높이,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느릿하면서도 다급한 움직임이었다. 때로는 기침을 하거나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고, 때로는 코끼리 같은 육중한 몸을 밀어붙이며 몇 걸음씩 나아갔다. 만약 동굴 안에 불쌍한 파우스티나가 없었더라면 이 상황을 즐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휩

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거대한 범고래 같은 코르부치 녀석에게 한 방 먹여주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았다. 벽 한쪽에는 난간이 제멋대로 달려 있었기에, 나는 반대편 벽에 몸을 바짝 밀착시킨 채 조심스럽게 숨을 죽였다. 그는 마치 금관악기 밴드가 연주하듯 씩씩거리며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내 코앞 6인치 거리까지 지나갔다. 나는 그가 몇 걸음 더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 양쪽 폐가 터져라 그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부오나 세라, 엑첼렌차, 시뇨리!' 내가 그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그러자 대답 대신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정말이지 엄청난 비명이었다! 그 비명 속에는 온갖 종류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늙은 악당의 심장과 함께, 쌕쌕거리던 숨소리도 멎어 버렸다."

"'여기 누구냐?' 그가 마침내 쥐어짜듯 소리쳤다. 매를 맞은 원숭이처럼 횡설수설하며 낑낑거리는 꼴이라, 나는 그의 얼굴을 차마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일 준비를 마쳤다."

"아르투로, 시뇨리(signori)."

"그는 내 이름을 되묻지도, 그렇다고 나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쌕쌕거리는 숨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는, 마치 아주 정중한 신사라도 된 양 가장 품격 있는 영어를 구사하며 교묘하게 말을 걸어왔다."

"이리 좀 가까이 오게, 아르투로. 자네는 너무 아래쪽에 있군. 할 말이 있으니 좀 올라오게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성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상대는 무기를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니었다.

"'아이고, 아주 정신없이 서두르시는구먼!' 그가 즐겁다는 듯 쌕쌕거리며 말했다. '분명 내가 아직 로마에 있는 줄 알았겠지? 사실 오늘 오후 전까지는 정말 로마에 있었어. 마지막 순간에 급히 기차를 타고, 나폴리에서 포추올리로 가는 기차로 또 갈아탔거든. 여기까지는 포추올리의 한 어부가 배로 태워다 주었네. 나폴리에서는 역에서 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느라 어디 들를 틈도 없었어. 그래서 지금 나는 스테파노도 없이 왔네, 아르투로. 스테파노 없이 말이야, 아르투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교활한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음험하게 들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나는 그 목소리가 가짜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나는 난간을 움켜쥐었다. 난간은 내 손안에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서 있는 자리에서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마음을 다잡으려던 찰나, 이 억눌린 떨림, 아니 이렇게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진동이 내 심장에 기묘한 한기를 몰고 왔다.

"스테파노에게는 천만다행이군." 내가 죽음처럼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 하지만 그를 너무 몰아세우면 안 되네." 백작이 만류하며 말했다. "자네가 그의 여자를 가로챘으니, 그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

군. 그래서 자네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네. 이건 정말 대담한 짓이야, 아르투로. 아주 대담해! 어쩌면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인가?"

나는 내가 그렇다고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럼 서두를 필요 없겠군. 그녀가 거기 없으니까."

"동굴에서 그녀를 못 봤단 말이야?" 그 생각이 너무나 즐거워 나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나한테는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았지." 노인네가 투덜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그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사실 몸을 돌려 달려 내려가면서 이걸 어깨 너머로 휙 던져버렸어요."

"꼭 찾길 바랄게!" 그의 악의 섞인 목소리가 뒤에서 꺽꺽거리며 따라왔다. "정말로 찾길 바란다고. 그래야만 해."

"그리고 결국 찾아내고야 말았지."

래플스는 한동안 가만히 있지 못했다. 앉아 있지도, 그렇다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한 채 방 안을 흥분한 기색으로 서성거렸다. 그러다 이

제야 겨우 움직임을 멈추고 멈춰 섰다. 그는 주철로 된 벽난로 선반에 팔꿈치를 얹은 채, 두 손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

"죽었다고?" 내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는 벽 쪽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동굴 안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내 목소리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발에 그녀의 발이 닿았어. 바위보다도 더 차갑더군…… 버니, 그들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어. 그녀는 저항했지만, 결국 심장을 찔리고 말았어!"

"그들이라고 하셨나요?" 그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무거운 침묵 속에 서 있기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테파노는 남겨두고 온 줄 알았는데요?"

래플스가 순식간에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달아올랐고, 눈동자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놈은 동굴 안에 있었어!" 그가 소리쳤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 계단을 지나 황혼이 짙게 깔린 곳에서 놈을 발견했어. 난 맨손으로 놈에게 달려들었지. 주먹을 휘두르려던 게 아니야, 버니. 그런 놈한테는 주먹 따위 필요 없었어. 그 비열하고 작은 심장을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었단 말이야. 완전히 미쳐 있었지. 하지만 놈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 그 여자의 것이었지. 놈이 팔을 뻗어 총을 쏘았지만 빗나갔어.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 놈이 다시 총을 쏘기 전에 나는 놈의 팔꿈치를 바위에 세게 내리쳤어. 권총은 달그락거리

며 떨어졌지만 발사되지는 않았지. 나는 곧바로 권총을 움켜쥐었고, 마침내 그 작은 쥐새끼 같은 놈을 내 손아귀에 넣었어."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야?"

"자비라고요? 내 발치에 파우스티나가 죽어 있는데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저세상에서 자비를 기대할 자격조차 없을 겁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양손으로 권총을 쥐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약실을 확인하며 말이죠. 내가 서 있는 동안 그가 나를 찌르려 달려들기에, 나는 뒤로 물러나며 놈의 복부에 총알을 박아 넣었습니다."

"두세 발 정도는 더 내어줄 수 있네." 내 가여운 소녀가 총을 쐈을 리 없었기에, 나는 그렇게 말했다. "저것부터 지옥으로 가져가게나.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말이야!"

"그때부터는 나도 백작처럼 기침을 하고 쌕쌕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어. 사방이 연기로 가득했거든. 연기가 걷혔을 때 내가 상대하던 사내는 이미 완전히 숨이 끊어져 있었지. 나는 그를 바다로 밀어 넣었어. 파우스티나의 동굴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바다를 더럽히는 게 나았으니까. 그러고 나서—그러고 나서—우리는 우리가 아끼던 그 아지트에서 마지막으로 단둘이 남게 되었어. 그녀와 나 말이야.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성냥을 켜지는 않았지. 그녀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내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렇게 하면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 같았어. 나는 작별 인사를 했고, 사내답게 그녀를 뒤로한 채 떠났어. 머리를 높이 쳐들고 탁 트인 계단을 올라

가니 밤하늘의 별들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더군. 그런데 갑자기 별들이 일렁이며 흐릿해지더니,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 그녀가 정말 죽은 건지, 다시 살려낼 수는 없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야…… 버니, 더는 말할 수가 없어."

"백작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하시려는 건가요?" 마침내 내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백작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거야." 래플스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려 말했다. "그를 아주 비참한 상태로 남겨두고 왔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피에는 피로 갚아주었지만, 파우스티나를 죽인 건 코르부치도 아니었으니까. 그래, 계획을 짠 건 그였지만, 그런 일까지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니었어. 그들은 우리가 동굴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챘던 거야. 그래서 나를 머리 위에서 꼼짝 못 하게 붙들어 매두고, 배를 이용해 파우스티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썼지. 그들에게는 그게 유일한 기회였을 거야. 파우스티나가 스테파노에게 나에게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거든. 물론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더 밝히지 않겠지만 말이야. 그녀는 다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기에, 그들은 결국 힘을 쓰기로 한 거지. 그녀가 코르부치의 리볼버를 꺼내 그들에게 겨누긴 했지만, 그들이 기습하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 스테파노가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칼로 찔러버렸거든."

"그런데 그 모든 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래플스에게 물었다. 그가 늘어놓는 이야기는 말할수록 앞뒤가 맞지 않았고, 불쌍한 파우스티나

의 비극적인 결말만으로는 나로서는 이야기가 끝났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 그가 말했다. "코르부치에게서 직접 받아낸 겁니다. 그놈의 권총 총구 앞에서 말이죠. 코르부치는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빛을 등지고 귀를 기울이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놈을 아주 손쉽게 쏴 맞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놈이 스테파노냐고 물었을 때, 저는 '시, 시뇨레(예, 주인님)'라고 속삭였죠. 그러고 나서 아르투로를 처리했느냐고 묻길래, 똑같은 대답을 한 번 더 내뱉었습니다. 코르부치는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는지 채 알기도 전에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더군요."

"그래서, 그놈을 끝장냈나?"

"아니요, 코르부치에게 그런 대접을 하기엔 너무 과분했죠. 하지만 난 그를 아주 꽁꽁 묶고 입까지 틀어막았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결박이었죠. 그러고는 덧창을 굳게 닫고 집 문까지 잠근 채 그를 방에 가둬두었습니다. 그 낡은 저택은 덧창 두께만 15센티미터였고 벽은 거의 1.8미터나 됐으니까요.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고, 백작이 포도밭에 나타나기로 한 건 그다음 주 토요일이었죠. 그전까지 백작은 로마에 있을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분명 시체가 발견될 테고, 그 바람에 백작 본인도 숨이 붙어 있는 채로 들통날까 봐 걱정이 되더군요. 백작 본인도 그 사실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세 좋게 나를 협박했으니까요. 머리 뒤에 묶은 자로 머리가 두 갈래로 쪼개진 채, 커다란 콧

수염이 툭 튀어나온 눈 위까지 밀려 올라간 그 꼴이란, 정말이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를 어둠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가 지옥의 모든 고통을 겪기를 바랐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은요?"

"밤은 아직 깊지 않았고, 십 마일 이내에는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항구들이 있었다. 게다가 보잘것없는 밀항자가 숨어들 만한 화물칸도 수백 개나 되었지. 하지만 나는 제노아까지만 가기로 마음먹었어. 그때쯤이면 내 이탈리아어가 충분히 통할 테니까. 그래서 노르트도이처 로이드호의 낡은 배를 골랐지. 선교 위쪽 안쪽으로 매달린 구명보트 중 하나를 잡고 아주 훌륭한 항해를 즐겼단다. 버니, 그건 어떤 화물칸보다 훨씬 좋았어. 포도밭에서 갓 따온 오렌지도 아주 맛있게 먹었지."

"제노아에서는요?"

"제노아에서 나는 다시 한번 머리를 써서 살아남았고, 그 후로는 오로지 그 방법 하나로만 버텨왔네.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 사다리의 맨 밑바닥부터 말이야. 거리에서 잠을 잤고, 구걸도 했네. 차라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길 바라며 온갖 끔찍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끝내 죽음은 찾아오지 않더군.

그러던 어느 날이었네. 내가 노리고 있던 어느 상점 유리창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나. 내

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 사람도 나를 쳐다보더군.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둘 다 똑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네. 내가 결국 그 지경까지 몰락했구나 싶었지.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군. 나조차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대체 세상 그 누가 나를 알아보겠나 하는 생각이 말일세. 결국 런던이 나를 불렀고, 나는 지금 여기 와 있네. 이탈리아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그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네."

래플스는 방금 전까지 장난기 가득한 학생처럼 경박하게 굴더니, 다음 순간에는 비통함 속에서도 농담을 던질 만큼 유쾌했다. 이제 그는 이야기의 절정을 망쳐놓았던 그 감정에 더는 휘둘리지 않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그의 본모습을 알아야만 한다. 그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는 아주 잘 안다. 이탈리아에서의 비극적인 삶만 아니었다면, 그 삶이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수년 동안은 그를 지탱해주었으리라고 나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내가 보았던 그의 모습, 즉 얼굴에 패인 주름과 그 주름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그 주름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무엇이 그것들을 지워버렸는지는 당신들이 결코 짐작조차 못 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을 법한 일이었으며, 사실 그것은 그가 속내를 털어놓게 만든 바로

그것, 즉 손풍금 소리와 노랫소리가 다시금 우리 창문 바로 아래에서 울려 퍼진 것이었다.

"마르가리타 데 파레테, 그녀는 귀족들의 재봉사였지. 살바토레를 생각하며 늘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가며 살았다네! 마—가—리—타, 살바토레를 잃어버렸구나, 마—가—리—타! 마—가—리—타, 하지만 남자는 사냥꾼이라네! 마—가—리—타,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더는 말하지 말자고!"

나는 그저 래플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패어 있던 주름은 온데간데없었다. 그는 마치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다. 무모한 모험이 절정에 달해 숨이 멎을 듯한 긴박한 순간에 보았던, 장난기 가득하고 유쾌하며 눈빛이 살아있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는 손가락을 들어 신호를 보낸 뒤 창가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마치 우리 집 옆 골목이 스코틀랜드 야드라도 되는 양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살피더니, 다시금 흥분과 긴장감을 가득 머금은 채 내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왔다.

"전에는 정말로 저를 쫓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저 혼자서는 감히 제대로 살펴볼 엄두가 안 나서요. 만약 정말로 그들이 저를 노린 거였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죠!"

"경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경찰이라니! 버니, 자네는 나를 얼마나 모르기에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건가? 이 사람아, 난 이미 그들에게 죽은 목숨이야. 장부에서 이름조차 지워진 존재라고. 단순히 혐의를 벗은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끝났단 말일세!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스코틀랜드 야드로 달려가 자수한다 해도, 그들은 나를 해롭지 않은 미친놈 취급하며 쫓아낼걸세. 아니, 요즘은 적보다 차라리 한때 친구였던 사람을 더 두려워해야 할 판이지. 하지만 경찰만큼은 정말이지 전적으로 믿는다네."

"그럼 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카모라파!"

나는 억양을 바꾸어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읊조렸다. 그토록 강력하고 불길한 비밀 결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 거리의 악사들이 그 조직의 단원이라고, 래플스가 대체 무슨 근거로 단정 짓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코르부치가 했던 협박 중 하나였네." 그가 말했다. "내가 그를 죽인다면 카모라 조직이 분명 나를 죽일 거라고 했지. 그는 입버릇처럼 그 말을 늘어놓았어. 내가 자기를 죽이든 말든 어차피 그들을 내 뒤에 풀어놓겠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그다운 교활함이었네."

"그 사람도 아마 회원일 거야!"

"그가 한 말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렇겠지."

"대체 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두 번째 절이 긁는 듯한 뻔뻔한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내가 따지듯 물었다.

"생각해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떠오른 생각이었을 뿐이죠. 그 곡은 너무나 전형적인 나폴리풍이었거든요. 런던의 오르간 연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곡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대체 무슨 일로 다시 이곳까지 돌아왔을까요?"

나도 차례를 기다려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살짝 엿보았다. 과연, 그 사내는 푸르스름한 턱과 하얀 치아를 드러낸 채 소리를 지르며 우리 집 창문만을, 오직 우리 집 창문만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대체 왜?" 내가 그 말을 전하자 래플스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왜 그들이 굳이 *우리*를 찾아 몰래 돌아오겠어? 버니, 이거 정말 수상하지 않아?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니?"

"나한테는 아니야." 이번만큼은 나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지긋지긋한 소음을 몇 분간 들어 주는 대가로 5실링이나 던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네, 한 시간 전에는 자네가 직접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군!"

래플스는 잊고 있었다. 멍한 그의 표정이 그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기 자신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버니," 그가 말했다. "자네는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 나한테 이렇게나 넘치는 줄은 꿈에도 몰랐군! 물론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자네가 틀렸으면 좋겠어. 나폴리 녀석들 한두 명쯤 더 상대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을 테니까. 사실 말이야, 난 아직 그들에게 갚을 게 남았거든! 제대로 정산하지 못했단 말이지. 스틱스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할 거야!"

말을 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세월의 풍파가 새겨놓은 주름이 다시금 깊게 내려앉았고, 눈빛은 부싯돌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그 번뜩이는 눈동자 너머에는 진실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마지막 웃음

다른 데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솔직히 범죄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거둔 가장 화려한 전과들은 이 기록들을 남기는 순수한 목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런 기록을 실어줄 전문 잡지라도 있다면, 빠루나 커다란 뭉치 열쇠를 다루는 숙련된 기술자들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온 사소한 성공의 기록으로서 보자면,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 하찮고 기술적인 내용뿐일 것이다. 게다가 지저분하고 이득도 없는 일로 치부될 수도 있다.

실제로 래플스와 그의 모든 행적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래플스를 다룬 나의 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도덕적인 필자들이 저런 비난을, 혹은 그보다 더한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다. 나는 그 지극히 경건한 의견에 얼마나 진심으로 반대하는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

는 그들의 비판을 단 한 마디도 인정하지 않을뿐더라, 오히려 내 글이 세상에 던지는 가장 생생한 경고라고 주장한다. 래플스는 천재였지만, 그 재능을 돈벌이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래플스에게는 기발한 발상과 자원 활용 능력, 비할 데 없는 대담함, 그리고 만 명의 사람을 압도할 강심장이 있었다. 그는 전략가이자 전술가였으며,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달 동안이나 구멍 속의 쥐처럼 숨어 지내야 했다. 낮이든 밤이든 얼굴을 바꾸더라도, 눈에 띄는 검은 상복을 입고 위험을 자초하지 않는 한 정체를 드러낼 수조차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얻은 보상은 대개 보상이라 부를 만한 것조차 되지 못했다. 올버니에서 밤새도록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축제처럼 보냈던,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클럽과 크리켓 경기와는 참으로 대조적인 상황이었다.

이제 정체가 탄로 날지 모른다는 영원한 위협에 더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폴리 거리 악사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내 친구의 기이한 이탈리아 생활 중 한 페이지를 찢어내어 내게 보여주었던 그 장면만 가끔 떠올릴 뿐이었다. 래플스는 그 주제를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고, 나 역시 거리 악사들이 카모라 조직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래플스의 엉뚱한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말하자면,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다. 괜한 일로 예민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팰리스 가든에 있는 어떤 집을 지날 때면 래플스는 그냥 지나치곤 했다. 그 집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새어 나오는 불빛 하나 없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내 팔을 붙잡은 채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어갔다. 노팅힐 방향으로 왼쪽으로 급하게 꺾고, 실버 스트리트로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 서쪽과 남쪽을 향해 약간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하이 스트리트를 가로질러 내려가니, 이윽고 우리는 집에 도착했다.

"우선 잠옷부터 갈아입게."

래플스는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권위 있게 말했다. 9월이긴 해도 날이 따뜻한 밤이었기에 나는 별생각 없이 그의 명령대로 옷을 갈아입었다. 하지만 막상 갈아입고 들어갔을 때, 정작 그 독재자 본인은 여전히 장화에 모자까지 갖춰 쓴 상태였다. 그는 가스등을 낮게 줄여놓은 채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살피고 있었다. 래플스는 담배 한 대를 꺼내 물더니, 가스등을 밝혀도 좋다고 말했다.

"한 잔 말아 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아니, 괜찮네."

"무슨 일인가?"

"누군가 우리를 미행하고 있어."

"설마!"

"자넨 그걸 보지도 못했잖아."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버니, 난 귀 뒤에도 눈이 달려 있다고."

나는 손을 댔다. 불과 일 분 전의 나였다면 지켰을 절제심을 잊은 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군—"

"그래서 그랬던 거군." 래플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짓지 않았고, 나는 손도 대지 않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때 이미 우리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야!"

"팰리스 가든즈를 올라오는 내내 그랬지."

"언덕을 넘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다 해도, 그중 한 명은 지금 바로 저 아래 거리로 내려가 있단 말이지."

아니, 그는 나를 놀리는 게 아니었다. 표정은 매우 엄숙했다. 게다가 그는 옷을 단 한 벌도 벗지 않은 상태였다. 아마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사복이라고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옷차림에 관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갔다. 그러다 문득, 얼마 전까지 내 몸을 장식했던 그 끔찍한

화살 자국들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다. 다음번에는 아마 두 배로 받게 될 터였다. 래플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며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다.

"경찰이라니, 누가 그래, 버니?" 래플스가 말했다. "이탈리아인들이야. 그들은 나만 쫓고 있어. 네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도 못할걸, 머리카락을 빡빡 깎기는커녕 말이야! 자, 술이나 마셔. 내 걱정은 말고. 이 일만 끝나면 그놈들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게!"

"아니, 이보게. 자네는 못 해. 이건 나 혼자 꾸미는 작은 연극이니까. 이미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네. 처음 눈치를 챈 건 그 나폴리 사람들이 오르간을 메고 돌아온 날이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의심하진 않았지만 말이야. 그 두 사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자기 역할을 다했으니까. 들리는 말로는 그게 바로 카모라다운 방식이라더군. 내가 말했던 그 백작 말이야, 말투를 보니 조직 내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모양이야. 하지만 그 백작과 오르간 연주자 사이에는 수많은 계급이 존재하겠지. 만약 런던의 비천한 나폴리 아이스크림 장수들까지 전부 동원되어 내 뒤를 쫓는다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걸세! 그 조직의 규모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니까. 아, 그런데 며칠 뒤에 우리 집 문을 찾아왔던 그 품격 있는 외국인 기억나나? 자네가 눈빛이 벨벳처럼 부드럽다고 했던 그 사람 말이야."

"그 두 사람과 그를 연관 지어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못했겠지, 버니. 그래서 그놈을 계단 아래로 걷어차 버리겠다고 협박이나 했으니, 오히려 놈들이 냄새를 더 잘 맡게 만든 꼴이 됐잖아. 나중에 네가 말해줬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었지. 하지만 내가 다시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지나가는 내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 악마 같은 놈은 눈매가 벨벳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었어. 그러다 한동안 잠잠해졌지. 그건 몇 주 전의 일이야. 코르부치 백작이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나를 이탈리아로 보냈거든."

"하지만 이건 전부 추측일 뿐이잖아요." 내가 외쳤다. "도대체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죠?"

"글쎄, 나도 모르겠어."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내기를 하고 싶을 정도군. 저기 우체통 근처 모퉁이에 우리 친구인 그 사냥개 녀석이 서성거리고 있거든. 내 방 창문으로 한번 들여다봐. 안은 어두우니까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한테 말해줘."

그 남자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의 얼굴을 확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영국식이라기엔 지나치게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길 건너편 가로등 불빛은 그의 장화를 일정하게 비추고 있었다. 장화는 아주 노란 빛을 띠었는데, 그가 발을 뗄 때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다. 그러다 문득 그 장화가 떠올랐다. 굽이 낮고 밑창이 얇은, 옆으로 퍼진 형태의 노란 장화. 그건 바로 내가 명백한 사기꾼이라며 문전박대했던 그 교활한 외국인의 것이었다. 부드러운 눈매에 갈색 종이처럼 밋밋한 얼굴을 가졌던 그 사내 말이다. 벨 소리가 울렸을 때 나는 그가 온 줄 전혀 몰랐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의 발밑을 살피며 고무 밑창을 신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바로 그놈이야." 나는 다시 래플스에게로 돌아오며 말했다. 그리고 그의 장화에 대해 설명했다.

래플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잘했어, 버니. 제법 실력이 늘었는걸." 래플스가 말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군. 그자가 내내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일부러 이곳으로 보낸 걸까? 그 장화를 알아챈 건 네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일이야. 저건 분명 이탈리아제거든. 게다가 그 모습은 특사 같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추측만 해봐야 소용없지. 직접 알아내야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가 밤새도록 거기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요?"

"그가 지겨워지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며 그를 따라나설 작정이야."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글쎄, 두고 보면 알겠지. 금방 알게 될 거야." 래플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버니, 내가 살펴볼 동안 가스등 좀 꺼줘. 고마워. 자, 잠시만 기다려 봐…… 그래, 이거야! 그가 포기했어. 벌써 떠나버렸군. 나도 이제 가야겠어!"

하지만 나는 슬그머니 우리 집 바깥문으로 미끄러지듯 나가 통로를 지켰다.

"알다시피, 난 자네를 혼자 보내지 않아."

"잠옷 차림으로는 나랑 같이 못 가."

"이제야 왜 그걸 입으라고 했는지 알겠군!"

"버니, 자꾸 비켜 있지 않으면 내가 직접 치워버릴 거야. 이건 나 혼자만의 독무대라고. 한 시간 뒤에 돌아올 테니까—자, 그걸로 됐지!"

"맹세해?"

"내 모든 신을 걸고 맹세하지."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어찌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예전의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래플스라는 작자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지 않은가. 게다가 그가 나에게 손을 대는 상황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축복을 빌어주며 그를 보내주었다. 그러고는 곧장 그의 방으로 달려가 창가에서 그가 떠나가는 마지막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코트와 장화를 신은 그 괴한은 우리 집 앞 작은 골목 끝까지 달려갔다. 그곳에서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기에, 래플스는 그가 어느 방향으로 꺾는지 제때 확인할 수 있었다. 래플스는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그를 뒤쫓았다. 그가 모퉁이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나는 그의 경쾌하면서

도 태연한 발걸음에 쏠려 있던 정신을 잠시 놓치고 말았다. 저 발걸음만으로도 진작에 정체가 탄로 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내심 놀라던 참이었다. 그에게 그 발걸음만큼 무의식중에 그를 드러내는 특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문득, 이 외롭고 좁은 골목에 래플스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골목 반대편에서 다른 행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체구가 크고 옷차림도 두툼한 사내였다. 이토록 따뜻한 밤임에도 코트에는 아스트라칸 깃이 달려 있었고, 검은 챙 모자를 눌러써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내 시선으로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사내의 발걸음은 나이가 지긋하고 비만으로 인해 몸이 상한 사람 특유의 짧고 질질 끄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발걸음이 내 눈앞에서 딱 멈춰 섰다. 저 검은 펠트 모자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구슬을 떨어뜨려도 될 만큼 사내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래플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퉁이를 돌았다. 동시에 아래쪽에 있던 거구의 사내가 두 손과 얼굴을 번쩍 들어 올렸다. 사내의 얼굴 중에는 래플스가 묘사했던 것처럼, 마치 날아오르는 갈매기 같은 거대하고 하얀 콧수염만이 보였다. 나는 단번에 직감했다. 저자가 바로 래플스의 숙적, 코르부치 백작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진짜 사냥꾼은 뒤처져 있고, 그 수하가 사냥개처럼 먹잇감을 가리키는 이 교묘한 체계가 대체 어떤 원리인지 따져볼 겨를은 없었다. 나는 아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뒤뚱거리며 나아가는 백작을 뒤로한 채, 마치 집이 불이라도 난 것처럼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었다. 백작이 래플

스를 따라나선다면, 나 또한 백작을 따라나설 작정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한밤중에 이 도시를 행진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텅 빈 거리 어디에서도 백작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얼스 코트 로드(Earl's Court Road) 역시 길게 뻗은 구간 내내 텅 비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오직 허리춤에서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밀랍 인형처럼 꼿꼿이 서 있는 자연의 적, 즉 경찰관 한 명만이 그곳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경관님," 내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혹시 흰 콧수염이 덥수룩한 노신사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평범한 순경 녀석은 내가 정중하게 예우를 갖추자, 오히려 나를 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한섬 택시를 탔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한섬 택시라니! 그렇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뭐라도 말하거나 행동을 취해야만 했다.

"제 친구입니다." 내가 설명했다. "그를 따라잡아야 해요. 그 친구가 어디로 가라고 말했는지 들으셨습니까?"

경찰관은 그 말에 짧게 부정하며 대답을 잘랐다. 만약 내가 언젠가 주방 뒷방에서 권총과 몽둥이를 들고 맞붙는 야간 난투극에 휘말리게 된다면, 런던 경시청 소속 경찰관 중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싶은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백작을 앞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걸어가는 두 사람을 찾는 일은 비교적 쉬울 터였다. 나는 눈에 띄는 첫 번째 한섬 마차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았는지 래플스에게 반드시 알려야 했다. 얼스 코트 로드는 길었고, 그가 그 길에서 사라진 지는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양쪽 보도를 빗질하듯 훑으며 그 유용한 대로를 따라 달렸지만, 래플스의 모습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다음에는 풀럼 로드를 뒤졌다. 먼저 서쪽을 살핀 뒤 다시 동쪽으로 향했다. 결국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집으로 차를 몰았다. 마차비를 지불하고 계단을 오를 때까지도 나는 내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래플스가 여기까지 다시 차를 타고 돌아올 리는 만무했다. 나는 그저 그가 위층에서 깨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는 한 시간 뒤에 보자고 했었다. 그 약속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런데 이미 약속한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다.

하지만 집 안은 내가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다. 한섬 마차를 몰고 모퉁이를 돌 때 나를 안심시켰던 그 희미한 빛조차, 사실은 내가 그 쓸쓸한 복도에 남겨두고 간 불빛일 뿐이었다.

내가 보낸 그 밤이 어떠했는지, 당신은 도저히 상상조차 못 할 것이다. 밤의 대부분을 나는 창틀에 몸을 기댄 채 보냈다. 귀를 한껏 열어두고 넓은 그물을 던지듯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 그보다 더 멀리서 울리는 한섬 택시의 종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정작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집 앞 골목을 지나

가는 일조차 드문 낯선 이들의 소음뿐이었다. 그러다 나는 문가로 가서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가 지붕을 타고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실제로 누군가 넘어오긴 했지만, 지금은 대낮이었다. 나는 문을 벌컥 열어젖혔고, 눈앞에 있던 우유 배달부는 마치 자신이 들고 있던 양동이에 머리라도 박힌 듯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늦었잖아!" 내가 흥분한 나머지 첫마디부터 호통을 쳤다.

"실례지만, 말이 좀 그렇군요." 그가 분개하며 말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사실 매튜린 씨가 어젯밤 또 상태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분께 차 한 잔 대접하려고 우유를 기다린 지 벌써 몇 시간째인 것 같아서요."

이 작은 거짓말은—내 입으로 말하긴 뭣하지만 래플스에게도 손색 없을 만큼 그럴듯했는데—덕분에 나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 앞을 지키는 이가 베푸는 친절한 동정심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 선량한 남자는 내가 밤을 꼬박 새운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가 떠난 뒤, 꼭 필요했던 그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낸 내 재주를 스스로 대견해하며 한동안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나는 래플스의 영향력이 내 몸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 나가고 있는지는 하늘만이 아실 일이었다.

하지만 벌은 곧바로 찾아왔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위엄 있게 두 번 울렸고, 테오볼드 박사가 우리 집 매트 위에 나타났다. 그는 노란색 예거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잠옷을 가리려고 깃을 세운 옷 위로 노르스름한 턱이 툭 튀어나와 있었다.

"무슨 흉한 밤이라도 보냈다는 거야?" 그가 물었다.

"잠을 못 자길래 내가 못 자게 붙들고 있었어." 나는 문고리를 쥔 손에서 힘을 풀지 않은 채, 반대편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속삭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기처럼 아주 잘 자고 있어."

"그를 꼭 만나야겠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주치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당신도 알잖습니까."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깨어날 겁니다. 지금 굳이 만나겠다고 고집한다면 당신도 깨우게 되겠지요. 경고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알지만, 당신은 모르니까요."

의사는 불타는 듯한 콧수염 아래로 나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오전 중에 올라가겠소." 그가 으르렁거리듯 내뱉었다.

"종을 묶어둘게요." 내가 말했다. "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거겠죠. 하지만 다시 문 앞까지 가서 그를 깨우는 위험은 감수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쾅 닫아버렸다. 래플스의 말대로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무슨 불행이라도 닥친다면 내 발전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제 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소년이 휘파람을 불며 다가와 매트 위에 신문을 내려놓고 떠났다. 시계는 여덟 시를 향해가고 있었고, 열두 시 반에 주문했던 위스키 소다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잔 속에서 그대로 고여 있었다. 만약 래플스에게 정말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거나 아니면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만 같았다.

그사이 나는 식사조차 할 수 없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에 휩싸인 채 방 안을 배회할 뿐이었다. 갈아입지 못한 속옷은 그대로였고,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뺨과 턱은 누르스름하게 떴다.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한동안 그런 생각만 들었다. 그러다 문득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 상황을 내가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실제로 그 상황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하지만 내 인내심을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다. 나에게는 그 매 시간이 북극의 밤처럼 길고 고통스러웠으니까. 벨의 줄을 미처 묶어두지 않은 탓에 종소리가 울렸을 때는 아마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벨을 누른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다. 돌아온 방랑자 역시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집 벨은 가볍게 건드리는지 세게 누르는지까지 알려주는 공기압식 벨이었다. 지금 벨을 누르는 손길은 머뭇거리며 조심스러웠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의 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젊고 남루한 차림이었는데, 한쪽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멍했지만 다른 쪽 눈은 무언가 끔찍한 흥분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어라는 것밖에는 알 길이 없었지만, 만약 내가 그 언어를 알아듣기만 했더라면 그것이 래플스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쯤은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몸짓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니, 나는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남은 한쪽 눈에는 새로운 공포가 서렸다.

내가 그를 붙잡아 세우고 쏟아지는 폭언을 견뎌냈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르듯 물었다. "이해 못 하겠어?"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골치 아프죠!" 그가 어떤 질문을 하려는지 말투만 듣고도 짐작이 갔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친구," 그는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러더니 이어서 외쳤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 인생에서 사립학교 시절에 받은 고전 교육이 진정으로 빛을 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지체할 시간이 없네!" 나는 이 문장을 내 식대로 의역해 내뱉고는, 서둘러 모자를 가지러 달려갔다.

"에코, 시뇨레!"

사내는 내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낚아채며 외쳤다. 그는 검은 손톱 하나를 시침에, 다른 하나를 숫자 12에 갖다 대었다. "메초조르노—포코 템포—포코 템포!"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금 알아차렸다.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이며, 12시까지는 그곳에 도착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대체 어디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불려 나가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서 있는 상황은 미칠 노릇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침착함은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나는 일곱 걸음씩 성큼성큼 나아가는 기분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떠나기 직전 종의 드럼과 해머 사이에 손수건을 꽉 끼워 넣었다. 이제 의사가 얼굴이 시퍼래지도록 종을 울려대도 소용없을 것이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그도 그 사실을 알아야 마땅하니까.

한솜 마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반쯤 기대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마차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얼스 코트 로드를 한참이나 따라 내려간 뒤에야 겨우 마차 한 대를 잡을 수 있었다. 사실, 마차 대기소까지는 뛰어야 할 정도였다. 누구나 다 아는 시계탑이 달린 교회가 길 맞은편에 서 있었다. 동행한 친구는 시계 바늘을 보자마자 두 손을 움켜쥐며 안절부절못했다. 벌써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요, 아주 조금밖에 없다고요!" 그가 울부짖었다. 그러더니 마차꾼을 향해 소리쳤다. "블룸버리 스퀘어, 번호는 38번입니다!"

"블룸즈버리 광장이야!" 내가 소리쳤다. "도착하면 집을 보여줄 테니까, 일단 제발 미친 듯이 좀 달려!"

내 동료는 구석에 몸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작은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도 꽤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정말 대단한 구경거리군!" 내가 외쳤다. "그런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줄 셈인가? 나한테 전해줄 쪽지라도 가져온 게 아니었어?"

그가 쪽지 따위 가져오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쯤은 진작에 눈치챘어야 했다. 그래도 나는 소매 끝에 손가락을 대고 글씨를 쓰는 시늉을 하며 연극을 했다. 하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저 생사가 걸린 문제일 뿐이야, 생사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나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옛 습관대로 쏘아붙였다. "천천히 말해 봐. 안단테, 그리고 랄렌탄도처럼 말이야."

예전에 엉터리로 불러대던 노래 속에 (이탈리아어) 빠르기 지시가 들어 있었던 덕이라니, 이탈리아에 감사할 일이군! 그 친구는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있었어.

"생사가 걸린 문제다."

"아니면 죽음이란 거지, 응?" 내가 소리치자마자 우리 머리 위로 트랩도어가 덜컥 열렸다.

"아반티, 아반티, 아반티!"

그 이탈리아인이 외치며 외눈박이 얼굴을 치켜들었다.

"전속력으로 달리라고요?" 내가 통역했다. "열두 시까지 마치면 요금은 두 배로 드린답니다."

하지만 런던 거리에서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얼스 코트 로드에 있을 때는 아직 11시 반이 되지 않았는데, 하이 스트리트에 있는 바커네 가게를 지날 때는 겨우 1분 정도만 지나 있었을 뿐이다. 바람처럼 질주하며 1분에 800미터씩을 달려온 셈이니, 실제로 우리는 한참을 전력 질주했다. 그런데 그다음 100야드를 가는 데는 다음 시계로 5분이나 걸렸다. 대체 어느 시계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결국 내 손목시계에 의지했다. 서펜타인 다리를 건널 때 시계는 정각 18분 전인 11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정각 15분 전인 11시 45분이 되었을 때야 우리는 베이스워터 로드에 도착했다. 이번만큼은 늦지 않았다.

"서둘러, 서둘러." 창백한 안색의 안내자가 중얼거렸다. "빨리, 어서 가자!"

"그 일을 해내기만 하면 10실링을 주지!"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나는 천장의 환기창 너머로 소리쳤다. 하지만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una quistione di vita)'였고, 그가 말한 '당신의 친구(vostro amico)'는 불쌍한 래플스 말고는 다른 누구도 될 수 없었다.

서두르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행운이 또 있을까! 정말이지 완벽한 한섬 택시를 만난 것이다. 운 좋게도 우리는 아주 훌륭한 한섬을 잡아탔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맨 앞에 서 있는 차를 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차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 차는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했다. 새 타이어에, 스프링은 아주 훌륭했고, 말은 천 마리 중의 한 마리라 할 만큼 기운이 넘쳤다. 마부 또한 제 솜씨를 십분 발휘하는 베테랑이었다. 우리는 마치 럭비 경기장의 날렵한 하프백처럼 거침없이 도심을 누볐다. 마부는 교통량이 가장 적은 길만 쏙쏙 골라 달렸다. 길도 어찌나 잘 아는지! 마블 아치에서 큰길을 벗어나 위그모어 스트리트로 들어서더니, 이리저리 골목을 누비며 달렸다. 그러다 말의 귀 사이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박물관 울타리의 금빛 끝부분이 보일 때쯤이었다. 말발굽 소리와 종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다. 종소리와 말발굽 소리, 다시 말발굽 소리와 종소리가 이어졌다. 시계가 정각을 3분 앞두고 있을 무렵, 때 묻은 토가를 입은 C. J. 폭스의 거대한 조각상이 나타났다. 드디어 블룸즈버리 광장에 도착한 것이다.

"몇 번이야?" 머리 위에서 그 착한 친구가 외쳤다.

"트렌타토, 트렌타토." 가이드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기에, 나는 그를 재촉해 집이 보이는 방향으로 이

끌었다. 결국 마침 반 소버린짜리 동전이 없었지만, 나는 우리를 태워다 준 친절한 마부에게 차라리 한 소버린을 통째로 쥐여주고 말았다. 그 돈이 백 소버린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탈리아인은 이미 38번지 문에 열쇠를 꽂아 넣은 상태였다. 곧이어 우리는 런던의 어느 허름한 주택 안, 편견에 가득 찬 시골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지저분한 계단을 따라 급히 뛰어 올라갔다. 집 안은 나무 판벽으로 되어 있었으나 어둡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현관에 켜진 탁하고 노란 가스등이 아니었다면, 계단 입구조차 어떻게 찾아갔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어쨌든 우리는 정신없이 계단을 올라 중간층 계단참에서 오른쪽으로 꺾었고, 곧이어 몇 계단 더 올라가 거실 안으로 회오리바람처럼 들이닥쳤다. 닫힌 덧창 너머로 거실의 가스등도 켜져 있었다. 리더의 뒤를 따라 급히 뛰어 들어간 탓에 그 광경을 단 한 순간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장면은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내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다.

그 방 역시 벽면은 판자로 마감되어 있었다. 왼쪽 벽 중앙에는 래플스의 남은 흔적이라 할 만한 것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 매달려 있었다는 표현이 옳았다. 그는 머리 위 높은 곳에 달린 고리에 양손이 묶인 채, 발가락 끝만 겨우 바닥에 닿아 있었다. 양 귀 아래에 박힌 작은 고리들을 통과한 끈이 그의 목을 결박했고, 몸의 모든 부위가 같은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나는 그가 죽었다고 확신했다. 검은 자를 입에 물린 채 끈으로 목 뒤를 묶어 놓은 탓이었다. 가스등 불빛 아래, 자에 묻은 피는 청동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투박하고 오래된 괘종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계는 마치 커다란 망치질 소리를 내듯 째깍거리고 있었고, 단 하나뿐인 시계 바늘은 정각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찰나에 불과했다. 안내인이 몸을 날려 시계를 들이받아 구석으로 처박아버리기 전까지 말이다.

시계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터져 나왔다. 쓰러진 시계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시계판 아래 바이스에 단단히 고정된 권총 한 자루를 발견했다. 시계판 자체에서는 전선들이 뻗어 나와 있었고, 방금 전까지 정점을 향해 움직이던 시계바늘은 그 전선들에 닿아 있었다.

"눈치챘어, 버니?"

그는 살아 있었다. 그것이 그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이탈리아인은 피가 엉겨 붙은 자를 손에 든 채, 칼을 휘둘러 래플스의 손을 묶은 가죽끈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키가 닿지 않자, 나는 그를 붙잡아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내 칼을 꺼내 가죽끈을 자르기 시작했다. 래플스는 피칠갑이 된 얼굴로 우리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가 이걸 알아차렸으면 좋겠어." 그가 속삭였다. "내가 아는 복수 중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 일 분만 더 있었어도 완벽했을 거야. 열두 시간 동안 시계 바늘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어. 한 바퀴를 다 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도록 말이야! 전기 회로를 연결한 거지. 아주 간단해. 시침에만 연결했는데…… 오, 세상에!"

마지막 끈을 끊어내자 그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 방 안의 말총 소파로 옮겼다. 방 안에는 가구가 갖춰져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때 외눈박이 구원자가 문가에 다다랐으나, 래플스가 이탈리아어로 날카롭게 그를 불러 세웠다.

"그 친구가 내게 마실 것을 가져다주려는데, 그건 나중에 해도 돼." 그가 한층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하고 나면, 그때 마시는 게 훨씬 더 즐거울 거야. 버니, 그를 보내지 마. 문을 몸으로 막아 서라고.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다행히도 그들이 나를 포박하기 전에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그 친구가 앞길을 잘 개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어. 반드시 지킬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를 내 시야에서 놓치고 싶지 않군."

"어젯밤에 그를 다 해결해 두었다면서요!" 내가 외쳤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제야,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나를 찾아온 겁니까?"

"아, 그가 아슬아슬하게 일을 처리할 줄은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로 아슬아슬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 다행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몸이 상한 것 같지는 않아. 당분간은 목덜미가 좀 쑤시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는 청동 얼룩이 묻은 길고 검은 자를 가리켰다. 자는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가 손을 내밀기에 나는 그것을 건네주었다.

"그놈 입을 막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래플스가 여전히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코르부치 영감도, 알고 보면 제법 예술가 기질이 있었다니까!"

"자, 어떻게 그놈 손아귀에 떨어지게 됐는지 말해 봐요."

내가 활기차게 말을 건넸다. 나 역시 그가 말해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로서는 아파트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없을 정도였다.

"버니, 정말 가슴에 맺힌 걸 다 털어놓고 싶어." 래플스가 고백하듯 말했다. "그런데 막상 말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 벨벳 같은 눈을 가진 자네 친구를 미행했네. 여기까지 줄곧 따라갔지. 그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확인차 나도 집 근처까지 갔어. 그런데 젠장, 그자가 문을 살짝 열어두고 간 게 아니겠나! 그걸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어? 문을 반쯤 밀고 매트 위에 발 하나를 막 내디뎠을 때였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엄청난 충격이 머리에 가해졌지.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들이 내 양손을 붙잡고 저기 고리에 매달아 놓고 있더군. 게다가 그 코르부치 영감탱이가 나한테 고개를 숙이며 인사까지 하고 있더라고. 하지만 그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아직 모르겠네."

"그건 내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 나는 우리 집 창문 아래 보도에서 백작을 직접 목격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게다가 말이야," 나는 말을 이었다. "그자가 자네를 발견하는 것도 봤어. 그러고 나서 5분 뒤에 얼스 코트 로드에서 그가 택시를 타고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 백작은

자네가 자기 부하를 미행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그래서 자네보다 먼저 집으로 달려가서, 자네가 말한 것처럼 문을 열어둔 채 기다리며 자네를 낚아채려 한 거라고."

"글쎄," 래플스가 말했다. "그자가 나를 잡은 건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었어. 나를 잡겠다고 나폴리에서 자까지 챙겨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고정용 고리도 미리 설치해 뒀고, 이 집은 오로지 나를 잡기 위한 용도로 가구까지 다 맞춰 놓은 상태였거든! 그자는 나를 붙잡은 뒤에, 내가 그자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나를 몰아붙이려 했어. 물론 나보다 한 수 위로 말이지. 오늘 새벽 세 시, 지금 내가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그자가 직접 내게 말해주더군. 그때 피우던 시가 맛은 정말 형편없었어. 지금까지도 그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 것 같아. 내가 그자를 꽁꽁 묶어두고 떠났을 때, 그자는 스물네 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었다더군. 하지만 내 경우에는 열두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 어차피 끝에는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시간을 더 끌어봤자 내가 내 마지막을 즐길 기력조차 남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만약 그자가 권총을 쏘지도 않고 시계 바늘을 두 바퀴나 돌릴 수 있었다면, 난 결코 그자를 믿지 않았을 거야. 그자가 그 장치의 원리를 전부 설명해 주었거든. 내가 말했던 그 포도밭에서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더라고. 그러더니 그자는 내가 카모라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걸 기억하느냐고 묻더군. 난 그저 막연한 협박 몇 마디만 기억할 뿐이었지만, 그자가 그 조직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려준 덕분에 그 실체를 폭로하기만 하면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칠 수도 있었을 거야. 내가 그 빌어먹을 악당 래플스와 지독하게 닮았지만 않았어도 말이지. 버니, 이 오랜 시간

이 흐른 뒤에도 스코틀랜드 야드 놈들이 나를 알아볼까? 정말이지, 한 번 모험을 해보고 싶은 심정이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다. 애초에 내 알 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래플스에 대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내 평생 그토록 그에게 몰두했던 적은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그리고 반나절 동안이나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를 끌어내자마자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인데도, 생기는 여느 때처럼 넘쳐흘렀다. 최악의 상황에서 모욕을 당하고 패배했을 뿐인데도,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마치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처럼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드디어 래플스라는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그런 착각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악당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들의 잔인함에 분노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너무나 태연한 것에 화가 치밀었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 사람이 정말 래플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아," 그가 말했다. "그들은 즉시 이탈리아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어. 지금쯤이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겠지.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친구. 그 악질 노인 코르부치가 알고 보니 카모라 조직의 엄청난 거물이었어.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더군. 자네, 그가 '카피 파란체' 중 한 명이었다고! 그것도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지. 그리고 저 부드러운 말투의 조니는 '아 조바노 오노라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아주 촉망받는 신참이었어. 여기 이 친구도 그 조직에 몸담았었지. 그래서 난 이 친구를 그들에게서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네. 내 말이 맞지? 런던의 거리 악사 절반은 그 조직원이야. 게다가 그 놈들 모두가 비밀 지령을 받고 나를 추적하도록 배치된 거라니까. 이 아주 훌륭한 청년은 집에 있을 때면 새프론 힐에서 아주 차가운 독약을 제조하곤 하지."

"대체 왜 진작 나를 찾아오지 않은 거지?"

"그 친구가 당신과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당신을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우리 친구들이 떠나기 전에 그 일을 해내는 건 그 친구의 목숨이 걸린 문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빅토리아 역에서 열한 시 기차를 타고 떠날 예정이었거든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아슬아슬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두 사람이 눈치 없이 자리를 비켜준 그 짧은 일 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모든 준비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그 부랑아는 마치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외눈을 번뜩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공포에 질린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빌 것만 같았다. 하지만 래플스는 다정하고도 안심시키는 말투로 대답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안쓰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 친구 말로는 저택을 못 찾았대, 버니. 사실 그럴 만도 해. 내가 오늘 열두 시 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를 찾아내서 여기로 데려오라고 겨우 말해두기만 했으니까. 어쨌든 그 친구는 임무를 완수했어. 그런데 이제 그 불쌍한 녀석은 자네가 자기한테 화가 난 줄 알고, 우리가 자기를 카모라에 넘겨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아니, 내가 화가 난 건 그놈 때문이 아니야."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다른 악당들, 그리고—그리고 자네 때문이야, 이 친구야! 그런 파렴치한 악당들이 비웃으며 유유히 프랑스로 떠나고 있는데, 자네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으니 말이야!"

래플스가 묘하게 투명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가 진지한 태도를 보일 때가 아니면 좀처럼 볼 수 없는 눈빛이었다. 그는 내가 끝에서 두 번째로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했다. 결국, 그에게 이 일은 결코 웃어넘길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가 말했다. "전 확신이 서지 않네요."

"당신이 그렇다고 했잖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했을 텐데요."

"그들이 떠나는 소리 못 들었어?"

"밤새도록 시계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마치 빅벤이 마지막을 알리며 울려 퍼지는 것 같더군. 마치 떨어지는 놈에게 아홉 번의 종소리를 울려주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그 형형한 눈동자 속에서, 나는 마침내 그가 견뎌온 시련의 깊은 흔적을 보았다.

"하지만, 이보게 래플스. 만약 그들이 아직 건물 안에 있다면—"

그 생각은 너무나도 짜릿해서, 차마 문장으로 다 끝맺을 수 없을 정도였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군." 그가 문가로 향하며 엄숙하게 말했다. "가스등이 켜져 있군! 자네가 들어올 때도 불이 켜져 있었나?"

다시 생각해보니, 과연 그랬다.

"게다가 아주 고약한 냄새까지 나요."

계단을 내려가며 래플스를 따라가던 내가 덧붙였다. 래플스는 거실 문에 손을 얹은 채 엄숙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옷걸이에 아스트라칸 칼라가 달린 코트 한 벌이 걸려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놈들이 안에 있어, 버니." 래플스가 말하며 문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겨우 몇 인치 정도만 열렸다. 하지만 그 틈 사이로 노란 가스등 불빛이 넓게 번져 나오더니, 곧이어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쳐 왔다. 래플스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나도 그를 따라 손수건을 갖다 대며, 우리 동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 세 사람 모두 좁은 방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노란 장화를 신은 남자는 문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고, 백작의 거구는 식탁 위에 대자로 뻗어 있었다. 한눈에 봐도 두 사람 모두 죽은 지 몇 시간은 지난 듯했다. 늙은 카모리스트의 부어오른 푸른 손가락 사이에는 리큐어 잔의 줄기가 끼워져 있었다. 그중 한 손가락은 잔이 깨질 때 베인 듯했고, 검푸르게 변한 살점은 마지막으로 흘린 피가 굳어 갈색빛을 띠고 있었다. 백작은 얼굴을 식탁에 처박은 상태였는데, 납빛 뺨 양옆으로 삐져나온 거대한 콧수염만은 기이할 정도로 생생해 보였다. 식탁보 위와 수프 그릇 두 개, 그리고 수프 통 바닥에는 부서진 빵 조각과 얼어붙은 마카로니 찌꺼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마카로니에는 토마토 양념이 살짝 배어 있었다. 잔에는 붉은 술이 조금 남아 있었고, 그 술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듯 빈 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식탁 위 백작의 커다란 회색 머리 근처에 깨지지 않은 리큐어 잔 하나가 더 놓여 있었다. 그 잔에는 여전히 악취를 풍기는 하얀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은제 플라스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죽은 이들에게서 느꼈던 공포보다 더 큰 거부감을 느끼며 래플스에게서 움찔 물러섰다. 그 플라스크가 그의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 독한 공기 속에서 당장 나오게." 그가 엄하게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지."

우리 세 사람은 홀에 모여 섰다. 하지만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우리 둘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는 이는 래플스였다. 그는 처음에는 나에게만 말을 걸었지만, 이내 한 마디씩 끊어가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고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외눈박이 이방인을 위해 내용을 이탈리아어로 통역해 주기도 했다.

"버니, 자네는 아마 이름조차 모를 거야." 래플스가 입을 뗐다. "지금까지 과학계에 알려진 독 중 가장 치명적인 독 말이야. 바로 카코딜 시안화물이지. 난 이 작은 플라스크를 몇 달 동안이나 몸에 지니고 다녔어. 어디서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핵심은 그 냄새만 맡아도 생생한 육신이 진흙처럼 변해버린다는 사실이지. 자네도 알다시피 난 자살 같은 건 결코 권장하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무기를 갖춰두는 건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거든. 글쎄, 이 액체가 든 병 하나면 평범한 사람들이 가득 찬 방 안의 사람들을 5분 안에 전부 뻣뻣하게 굳혀버릴 수 있어. 오늘 새벽,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문득 이 플라스크가 떠오르더군. 그래서 그들에게 내 주머니에서 이걸 꺼내 달라고 했어. 떠나기 전에 마실 것 좀 달라고 간청했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나?"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사이 래플스는 자신의 설명을 꽤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쏟아냈다. 하지만 다시 나를 마주했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불타는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짐승 같은 코르부치 놈!" 그가 외쳤다. "내가 어떻게 그놈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나? 그놈은 내 플라스크를 가져갔으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한 모금도 주지 않았어. 오히려 내 얼굴에 술을 뿌려댔단 말일세. 내 계획은 적어도 그놈만큼은 나와 함께 가는 것이었네. 내 목숨값

을 비싸게 팔려면 말이야. 코끝에 스치는 술 향기만으로도 우리 둘 다 해결될 수 있었는데 말이지. 하지만 아니었어. 그놈은 나를 애태우고 괴롭히기만 했지. 그게 브랜디인 줄 알았나 본데, 내 파멸을 축하하며 마시려고 그걸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단 말이야! 그런 개 같은 놈을 보고 어떻게 동정심이 생기겠나?"

"이제 그만 가자." 래플스가 이탈리아어로 말을 마쳤을 때, 나는 마침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래플스의 말을 듣던 또 다른 청자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가기로 하지." 래플스가 말했다. "누군가에게 들킬 위험은 감수해야겠지만 말이야. 만약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친구가 도와줄 거야. 내가 오늘 새벽 한 시부터 줄에 묶여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테니까. 그놈들이 언제 죽었는지는 의학적 증거가 말해주겠지."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지는 않았다. 비극이 발견된 바로 그날, 블룸즈버리 광장까지 전속력으로 손님들을 태워다 준 그 잊지 못할 친구, 마부 덕분이었다. 그 마부가 자신이 누구를 어디서 태워 왔는지 입을 열지 않은 덕분에 말이다. 확실히 그들은 살인범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시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은 죽은 코르부치 역시 살인범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신원이 밝혀지며 드러난 그의 평판은 방탕아에 변절자라는 것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위층에서 발견된 끔찍한 장치들은 그가 무정부주의자로서 악랄한 수법을 부렸음을 증명했다. 결국 조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결되었으

나, 이 사건은 죄를 지은 채 죽은 이들에게 보통 느끼는 연민마저 싹을 잘라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래플스라면 이 이야기에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도둑을 잡는 법

최근 시즌 동안 사교계 인사들이 차례로 겪어야 했던 일련의 대담한 강도 사건들을 그들이 잊었을 리 없다. 런던의 가장 화려한 저택들을 겨냥한 습격이 연이어 이어졌고, 불과 몇 주 사이에 귀한 티아라를 도둑맞은 고귀한 신사 숙녀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도체스터 공작 부부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가면무도회를 연 바로 그날 밤, 가문의 유산인 은식기 중 절반을 도둑맞았다. 켄워시 다이아몬드는 1층에서 자선 모임이 열려 한창 소란스러운 와중에 대낮에 탈취당했고, 레이디 메이폴턴에게 바쳐진 신랑의 선물들은 형형색색의 꽃가루가 공중에 흩날리던 순간 사라졌다.

이 모든 일이 보통 도둑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했다. 고인에 대한 예우도 없이 무모하게 이름을 들춰내거나, 경찰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이들이 래플스라는 이름을 망각의 늪에서 끌어올린 것도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을지 모른다. 이 영악한 자들은 그런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살아있는 인물을 떠올리지 못하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이름을 불러댔다. 이 글은 바로 그들의 경솔하고 앞뒤 맞지 않는 비방을 반박하기 위해 쓰였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결백하다는 점은 우리가 느끼는 질투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 역시 한동안은 세상 사람들처럼, 대체 어떤 인물이 우리 뒤를 쫓으

며 이토록 짜증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자가 정말 내 방식대로 움직였다면 나도 덜 신경 썼을 거야."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호의를 악용하는 건 내 수법이 아니거든. 그런데 저 친구는 그 방법 말고는 낼 수 있는 수가 없는 모양이야. 버니, 기억나나? 우리가 멜로즈 부인의 목걸이를 가져갔을 때, 우리는 멜로즈가의 집에 머물고 있지 않았잖아."

우리는 벌써 수백 번째나 그 강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의 특수한 처지상 그 아파트에서는 나누기 힘든 대화보다 훨씬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였다. 평소 우리는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다. 테오볼드 박사가 함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었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킬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다. 박사가 자리를 비웠거나 환자가 완강히 거부할 때면, 우리는 풀럼 지구에 있는 소박한 식당을 찾곤 했다. 음식은 평범했지만 맛이 훌륭했고, 무엇보다 와인 저장고가 아주 놀라웠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마시던 89년산 샴페인은 이미 라벨이 보일 정도로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다. 래플스는 앞서 말했듯 추억에 잠긴 듯한 태도로 그 술병을 만지작거렸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나를 꿰뚫어 보듯 살피며 무게를 재던 그의 맑은 눈동자가 선하게 떠오른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알아차릴 만큼 예민하지 못했다. 그의 말투는 신중하고 치밀했으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술기운에 취해 있던 당시의 기억이 아니라, 그 순간과

지금 사이의 아득한 세월을 건너 다시 떠올려 보는 그의 목소리는 그러했다.

"정말 일품인 안심 스테이크군!" 내가 게걸스럽게 먹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 생각에는, 이 친구가 우리만큼이나 사교계에서 잘나간다는 말이지?"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질투할 일은 차고 넘쳤으니까. 하지만 래플스는 눈썹을 반 인치쯤 치켜올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말을 하는 듯했다.

"그 정도뿐이라고, 버니? 그는 단순히 그 세계에 발을 담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세계의 일원이야.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 사교계는 과녁처럼 여러 겹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네가 아무리 진하게 먹물을 칠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그 중심부인 정중앙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내 크리켓 실력 덕에 나를 불러주곤 했지. 그건 아직 잊지 않았어. 하지만 저 친구는 그들 중 하나야. 우리가 직업적인 의미로만 '침입'할 수 있었던 저 저택들에, 그는 당당히 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 모든 소소한 활약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솜씨가 아닌 이상 이건 자명한 사실이야. 물론 그건 절대 아니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 저 친구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난 오백 파운드라도 기꺼이 내놓겠어!"

"설마 당신이겠어요?" 나는 축제 분위기에 취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잔을 비우며 말했다.

"그럴 생각이야, 버니. 웨이터! 여기 이거 반 병 더 가져오게."

빈 병을 치워가는 사이, 래플스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내 평생 이렇게 진지했던 적은 없었어. 우리의 후계자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적어도 나처럼 죽은 목숨은 아니라는 뜻이야. 자네처럼 쫓기는 신세도 아닐 테고. 내 가설이 맞다면, 그는 의심을 살 일이 전혀 없는 사람 중 하나일 거야. 아, 버니,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나!"

상황이 좀 더 삭막했더라면 제삼의 동료를 들이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쾌감이 치밀었을 것이다. 하지만 래플스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았다. 게다가 샴페인 한 병이 더 곁들여지니 그의 논리는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사실 논리 자체도 꽤나 탄탄했다. 요점은 이러했다. 래플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아직 '두 번째 이닝'이라 부를 만한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나조차도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안타' 몇 개를 쳤을 뿐, 결정적인 '결정타'는 번번이 놓쳤고, 경기는 지독하게도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래플스에게도 그리 잘 맞지 않았다. 제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이다.

이미 나는 그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고용된 하인 노릇을 하는 가식적인 처지에 진력이 나던 참이었고, 또 다른 사기

꾼인 그 의사 녀석이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으니까. 아무런 제약 없는 새로운 시작이라니, 생각만 해도 매혹적이었다. 물론 둘이서 하는 것도 충분한데, 우리 같은 경우엔 셋이 되는 게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각자 결함이 있는 우리가, 이미 스코틀랜드 야드조차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도무지 가망이 보이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걸 풀어냈다고 치자고." 래플스가 손바닥에 호두를 올려놓고 툭 깨뜨리며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물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랬을 리 없다고,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한동안 <모닝 포스트>지를 구독해 왔어."

"그래서요?"

"저급한 잡지치고는 꽤나 희한한 것들을 많이 구해다 주었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군."

래플스는 너그럽게 미소 지으며 견과류를 하나 더 까먹었다.

"그건 네게 관찰력도 상상력도 없기 때문이야, 버니. 그러면서 글을 쓰겠다고 하다니! 뭐, 믿기 힘들겠지만, 이 소소한 사건들이 벌어지던 각 행사장에 누가 참석했는지 난 꽤 상세한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

나는 그게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아주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것은 유쾌하면서도 자만심에 찬 그의 경멸 섞인 태도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고, 마침 사실이기도 했다.

"생각 좀 해봐." 래플스가 인내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도둑이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 갔다면," 내가 말했다. "그때 아래층에 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아." 래플스가 말했다. "그놈들이 침입하기만 한다면 말이지."

"하지만 모든 사건이 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래층이 한창 소란스러울 때 위층 문은 나사로 단단히 잠겨 있고, 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도둑은 이미 보석을 챙겨 달아나 버렸죠. 세상에, 이건 너무나 고전적인 수법이라 당신 같은 분이 이런 걸 쓰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기만큼 오래된 건 아니야." 래플스가 시가 몇 개를 골라내더니 내게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코냑으로 할래, 아니면 베네딕틴으로 할래, 버니?"

"브랜디 좀 줘." 내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그가 말을 이었다. "방문이 나사로 잠겨 있던 것도 아니었어. 적어도 도체스터 하우스의 경우에는 문이 잠겨 있었을 뿐이고 열쇠만 없었으니, 안에서 잠갔든 밖에서 잠갔든 어느 쪽이든 가능했단 말이지."

"하지만 바로 저기에 그가 로프 사다리를 남겨두었단 말입니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해 외쳤다. 그러나 래플스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버니, 난 그 로프 사다리를 믿지 않아. 그저 눈속임용으로나 쓸 수 있겠지."

"그럼 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른바 도둑질이라 불리는 사건들은 전부 내부 소행이야. 투숙객 중 한 명이 저지른 일이지. 게다가, 내가 범인인 그 스포츠맨을 정확히 찾아낸 게 아니라면 내 눈이 틀린 셈이야."

그가 정말로 그랬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빛나는 그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짓궂은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축하의 의미를 담아 즐겁게 잔을 들어 올렸지만, 래플스가 내 잔이 비워지는 모습을 다소 초조하게 지켜보던 그 눈빛만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이 명단들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딱 하나뿐이야."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의심스럽지 않은 이름이지. 어니스트 벨빌 경이 그 모든 행사에 참석했거든. 버니,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설마 그 '이성적 음주' 광신도라는 분은 아니겠지요?"

"네."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전부야."

"맞아." 래플스가 말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유망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 견해가 이토록 넓고 온건한 데다, (자네만 빼고) 이미 수많은 이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면, 다른 속셈 없이 그저 자기 생각을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을 거야. 여기까지는 좋아. 그렇다면 이 친구의 속셈은 뭘까? 자신을 알리고 싶은 걸까? 아니, 그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럼 돈은 많을까? 오히려 정반대야. 지위에 비해 쥐뿔도 없을 만큼 가난한 데다, 딱히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야망도 없어 보여.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을 굳이 대중의 유행으로 만들어 자기 배를 불리려 들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다 갑자기 예전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바로 그 대안적인 직업 말이야! 내게는 크리켓이 그렇듯, 그에게는 '이성적 음주'가 있는 셈이지!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건 금물이야. 신문 기사 너머의 사실을 더 알아내야 해. 우리 귀족 친구는 마흔 살이고 미혼이야. 그동안 대체 뭘 하며 지냈을까?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내가 물었다.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소화 불량만 생길 게 뻔했기에, 나는 그가 노리는 수에 말려들지 않기로 했다.

"면담을 했지!" 래플스가 경악하는 나를 보며 느긋하게 미소 지었다.

"그를—직접 만나셨다고요?" 내가 되물었다. "언제, 어디서 말입니까?"

"지난 목요일 밤 말이야. 기억나겠지만, 그때 난 몸이 너무 축나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 버니, 내가 무슨 속셈을 품고 있는지 미리 말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어차피 아무 일도 없이 흐지부지 끝났을 수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날 엑서터 홀에서 어니스트 벨빌 경이 연설을 하고 있었거든. 난 연설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뒤쫓았어. 그가 머무는 킹 존 맨션까지 따라가서,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 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

기자로서의 질투심이 뼛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장하며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래플스가 대체 어느 신문사를 대표한다고 사칭했다는 것인지 말이다. 그의 뻔뻔함 앞에서는 그 어떤 만행도 놀랍지 않았기에, 굳이 의심하는 척을 해야만 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굳이 옮길 필요도 없을 것이다. 추가적인 설명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답변이었으니까.

"이 정도라면 당신이라도 눈치챘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가 말했다. "내가 특정한 상황에서 절대 빼놓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거든. 난 항상 응접실에 들러서 카드함에 있는 명함들을 내 조끼 주머니에 가득 채워 넣곤 하지. 잠깐 동안 다른 사람 흉내를 내야 할 때 이보다 더 유용한 도구는 없거든. 지난 목요일 밤에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와 연관된 저명한 작가의 명함을 위층으로 보냈어. 만약 어니스트 경

이 그 작가를 직접 본 적이 있었다면, 내가 기자 노릇을 하며 꾸민 속임수였다고 자백해야 했을 거야. 다행히 그분은 그를 알지 못했지. 마침 편집장이 다음 날 아침에 인터뷰를 따오라고 나를 보낸 참이었거든. 그 대안적인 직업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

나는 면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전부 다야." 래플스가 말했다. "어니스트 경은 지난 2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거든. 텍사스, 피지, 호주까지 말이야. 아마 그 세 곳 모두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을걸. 하지만 그 사람의 매너를 보면 꽤 괜찮은 교육을 받은 모양이야. 나한테 아주 좋은 위스키를 대접하더니, 자기 취미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리더군. 기운도 좋고 머리도 영리한 사람이지만, 내가 말을 잘 걸어서 방심하게 만들었어. 오늘 밤에는 커클레섬 저택에 갈 거야. 초대장이 붙어 있는 걸 봤거든. 그가 불을 끄고 나갈 때, 열쇠 구멍에 밀랍을 좀 채워 두었지."

래플스는 웨이터들을 살피며, 새로 깎고 다듬은 마스터키를 내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미 맥주를 한 잔 더 마신 상태였던 데다(공평한 양이라기엔 좀 과했으니 말이다), 머릿속은 멍해져 있었다. 마침 그의 뒤에 있는 거울을 통해 그 열쇠를 보게 된 나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열쇠와 래플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커클레섬 대부인 말이야." 그가 속삭였다. "콩알만 한 다이아몬드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몸에 두르는 걸 좋아하신다더군. 게다가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데다, 마침 지금 런던에 계시지!"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 악당이 그녀에게서 그것들을 뺏으려는 속셈이야!"

"그 악당에게서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야." 래플스가 말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네 몫과 내 몫을 모두 되찾겠다는 뜻이지."

"그가 동업을 수락할까요?"

"이제 그를 우리 손아귀에 넣은 셈이야. 감히 거절하지도 못할걸."

래플스의 계획은 자정 전에 어니스트 경의 방에 잠입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 귀족적인 악당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참이었다. 내가 모든 세부 사항을 래플스에게 맡기고, 혹시라도 소란이 벌어지면 곁에서 거들기만 한다면 내 역할은 충분했고 몫도 챙길 수 있었다. 전에도 해본 역할이었다. 늘 기분 좋게 임했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 몫이 돌아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기꺼이 나설 생각이었다. 샴페인도 딱 적당히 마신 상태였다. 래플스는 정말 내 주량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히려 갈망하고 있었다. 사실 래플스의 지시로 아주 진하게 타기로 한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조차 지루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커피만큼은 꼭 마셔야 한다며 고집을 피웠고, 결국 우리가 택시에 올라탄 것은 열 시와 열한 시 사이였다.

"너무 일찍 움직였다가는 일을 그르칠 거야."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가 말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것도 위험하지. 결국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 아, 피카딜리 거리를 달리며 화려한 불빛들을 구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불필요한 위험까지 감수할 생각은 없어."

II

모두가 알다시피, 킹 존 맨션은 런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못생겼으며, 가장 높은 공동주택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이후의 건물들처럼 공간을 아끼려는 계산적인 설계 대신, 훨씬 더 너그럽고 넉넉한 규모로 지어졌다. 우리가 넓은 안뜰로 차를 몰고 들어가려던 참에, 문지기가 다른 한섬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잠시 멈춰 세웠다.

그 안에는 우리처럼 예복을 차려입은, 군인 기질이 완연한 중년 남성이 타고 있었다. 그의 마차가 우리 앞을 가로질러 지나갈 때, 눈길을 피할 수 없었기에 그 모습을 보긴 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래플스에게 끼친 기이한 영향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치부하고 두 번 다시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래플스는 순식간에 마차에서 내려 마부에게 요금을 지불하더니, 다음 순간에는 나를 이끌고 저택들이 늘어선 거리에서 멀어지며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외쳤다.

"공원으로 가세." 그가 말했다. "너무 일찍 도착했군."

그의 말보다 목소리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알려주었다. 목소리에는 기이할 정도로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방금 그 한섬 택시를 타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까?"

"그랬지."

"자,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군." 나는 안심하며 말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래플스는 내 팔을 꽉 움켜쥐며 강제로 나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아슬아슬했어, 정말이지 질색할 뻔했다고." 그가 말했다. "자리는 여기로 하지. 아니, 다음 자리가 가로등에서 더 멀겠군. 그에게 족히 30분은 여유를 주자고. 이제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자리에 앉은 지 몇 분쯤 지났을까, 빅벤의 나른한 종소리가 머리 위 별들을 향해 울려 퍼졌다. 시각은 열 시 반, 후텁지근한 밤이었다. 래플스가 침울한 상념에서 깨어나 내 등을 툭 치며 나를 상념에서 끌어올렸을 때는 이미 열한 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 뒤였다. 우리는 이내 킹 존 맨션 안뜰 끝에 있는, 불이 켜진 현관으로 들어섰다.

"방금 레이디 커클레섬 댁에서 어니스트 경을 뵙고 나왔네." 래플스가 말했다. "그분이 열쇠를 건네주면서, 자기 방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군. 우리를 위층으로 올려보내 주겠나?"

사소한 일이라도 래플스만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망설임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 어니스트 벨빌 경의 방은

건물 꼭대기에 있었지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소년의 안내를 받아 순식간에 그곳에 도착했다. 결국 마스터키도 필요 없었다. 소년이 가진 열쇠로 바깥문을 열어주더니, 불을 켜주고는 우리를 남겨둔 채 떠났기 때문이다.

"이거 흥미로운데." 우리 둘만 남게 되자마자 래플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외출했을 때 청소부들이 들어와서 청소를 할 수 있잖아. 만약 그 사람이 훔친 물건들을 은행에 맡겨 두었다면 어쩌지? 세상에, 정말 기막힌 생각이야! 내 생각에 그 사람은 물건을 처분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분명 어딘가에 숨겨두고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는 말을 이어가는 동안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거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마치 당장이라도 범행 현장에서 덜미를 잡힐지도 모르는 도둑이 아니라, 오늘 안에 목록을 전부 작성해야 하는 경매소 서기라도 된 양 쉴 새 없이 말을 내뱉었다.

"어느 정도는 치펜데일 양식이잖아, 안 그래, 버니? 물론 진짜는 아니지만 말이야. 그런데 요즘 세상에 진짜 치펜데일을 어디서 구하겠어? 게다가 진짜를 보고도 알아볼 사람이 있긴 할까?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가치 있는 건 아니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제만 나오면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 물건이 보기 좋고 쓰기 편하며, 가구 제작 기술만 제대로 들어갔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차라리 이곳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초조하게 제안했다. 그는 바깥쪽 문조차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내가 그 사실을 지적하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그는 문을 잠그려 하지 않았다.

"어니스트 경이 자기 방이 잠겨 있는 걸 알면 난리가 날 거야." 래플스가 말했다. "그를 몰아넣기 전에, 일단 들어오게 놔두고 직접 문을 잠그게 해야 해. 하지만 그는 아직 오지 않을 거야. 만약 지금 온다면 오히려 곤란해질 수도 있어. 아래층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전해버릴지도 모르니까. 자정에는 교대 근무자가 새로 오거든. 요 며칠 사이에 알아낸 사실이야."

"만약 그가 예정보다 일찍 들어오면 어쩌지?"

"글쎄, 우리가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낼 수는 없을 거야. 내가 가서 말 한마디만 제대로 한다면 감히 시도조차 못 하겠지. 내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이제 슬슬 시험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보게, 버니. 내가 그동안 여기서 뭘 하고 있었을 것 같나? 여긴 숨겨둔 게 아무것도 없어. 치펜데일 가구는 커터칼 하나만 있어도 자물쇠를 다 딸 수 있을 정도고, 바닥에 헐거운 판자 하나 없더군. 저 애가 떠나기 전에 내가 미리 하나를 밟아봤거든. 굴뚝도 소용없어. 이런 곳은 애초에 깨끗하게 청소해 두니까 말이야. 그래, 이제 그의 침실을 뒤져볼 준비는 다 됐네."

욕실 하나가 전부였다. 주방도, 하인용 방도 없었다. 킹 존 맨션이라면 원래 그럴 만도 했다. 래플스가 침실로 들어가는 사이, 나는 욕실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실은 전등 불빛 아래 텅 빈 채로 빛나고 있었다. 침실은 여전히 어두웠기에, 나는 별이 박힌 듯한 네모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래플스를 발견했다. 나는 문가에 있는 스위치를 더듬어 찾았다.

"다시 꺼!" 래플스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창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조심스럽게 블라인드와 커튼을 쳤다. 그러고는 직접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불빛이 비춘 상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측은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고개를 떨구자, 래플스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괜찮아, 친구." 그가 말했다. "하지만 복도에도 창문이 있고 하인들의 눈도 피할 수 없지. 게다가 우리 둘은 이 방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 그래도 기운 내, 버니! 여기가 바로 '그' 방이야. 문에 추가로 달아놓은 빗장 좀 봐. 일부러 따로 달아둔 거라고. 게다가 화재에 대비해서 창문에는 철제 사다리까지 설치되어 있잖아! 위급한 순간을 대비해 탈출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둔 셈이지. 버니, 이 사람 생각보다 훨씬 철저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 집 안에 만약 훔칠 만한 귀중품이 있다면, 분명히 이 방에 있을 거라는 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방 안의 가구는 아주 단출했다. 잠긴 문이나 서랍도 하나 없었다. 우리는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옷장 안에는 코트와 바지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부드러운 실크와 고급 리넨이 가득했다. 침대는 수도승이 쓰기에도 너무 소박할 정도라, 보물을 숨겨둘 만한 공간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나는 굴뚝 안까지 들여다보았지만, 래플스는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말라며 나를 나무랐다. 그러고는 내가 평소에 자기 말을 듣기는 하는 거냐며 쏘아붙였다. 그의 성미가 지금 얼마나 까칠한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가 이토록 화를 내는 모습은 나도 처음 보았다.

"그렇다면 은행에 넣어뒀다는 소리군."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가 그자를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건 맹세할 수 있어!"

그 자리에서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무례를 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슬쩍 제안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자정 전이었으니까.

"그랬다간 아래층에서 우리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아." 래플스가 말했다. "절대 안 돼, 차라리 총에 맞고 말지! 그자가 커클리덤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버니, 자네 마음대로 하게. 하지만 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맞받아쳤다. "당신보다 더 잘난 놈한테 얻어맞아 다음 주까지 정신도 못 차리고 누워 있게 둘 순 없으니까요."

나는 그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 냈고, 그는 그것을 아주 불쾌해했다. 원래 다들 그렇다. 순간 래플스가 나를 한 대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주먹질 말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 역시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를 당장이라도 지옥으로 처넣을 기세였다. 나는 턱짓으로 벽난로 선반 쪽을 가리키며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무심코 훔쳐보았다고 짐작되는 굴뚝 양옆, 화로 보호대 위에 놓인 커다란 인도식 클럽 한 쌍을 가리키며 나의 결례를 더욱 강조하듯 말이다.

래플스는 순식간에 클럽을 낚아채더니, 아이 같은 심술과 유치한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희끗한 머리 위로 그것들을 빙빙 돌려댔다. 평소의 그라면 결코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이었다.

그를 지켜보던 나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목격했다. 그의 얼굴이 돌연 부드럽게 풀리더니 환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들고 있던 클럽을 침대 위로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크기에 비해 너무 가벼워."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맹세컨대, 분명히 무게가 다를 거야!"

그는 양손으로 몽둥이를 하나씩 번갈아 들어 귀 근처에 대고 흔들어 보았다. 그러고는 전등 불빛 아래에서 몽둥이 끝부분을 꼼꼼히 살폈다. 그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나도 깨달았고, 그가 억누르고 있는 흥분이 나에게도 전염되었다.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래플스는 평소 늘 지니고 다니는, 스스로 '칼'이라 부르는 휴대용 도구 상자를 꺼냈다. 그가 송곳을 꺼내며 자신이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게 건네

주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몽둥이의 짧은 쪽을 겨드랑이에 끼워 넣고, 나머지 한쪽을 래플스에게 내밀었다.

"꽉 붙잡아." 그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버니, 이 친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게다가 이런 종류의 수법으로는 내가 썼던 것보다 훨씬 더 기막힌 묘수를 찾아냈어. 다만 내가 그 두 개의 무게를 아주 미세한 차이도 없이 똑같이 맞췄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는 송곳을 원형 받침대 가장자리 근처에 단단히 박아 넣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 비틀어 열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래플스는 기도문처럼 나지막하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 직후 1분 동안, 래플스는 마치 오르간을 연주하듯 송곳을 잡은 손을 빙글빙글 돌렸다. 그러자 나사산이 정교하게 파인 단단한 나무 끝부분이 실을 뽑아내듯 천천히 기어 나왔다.

두 몽둥이는 마치 술잔처럼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침대 위로 쏟아지는 완충재 뭉치들을 일일이 풀어볼 겨를도 없이, 이 몽둥이에서 저 몽둥이로 연달아 옮겨 다녔다. 뭉치들은 손에 쥐었을 때 기분 좋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지만, 솜으로 두껍게 감싸여 있었다. 그 탓에 어떤 것들은 서로 달라붙어, 마치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속이 빈 모양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마침내 그 뭉치들을 열었을 때—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래플스가 직접 말하게 하겠다.

그는 내게 몽둥이 끝부분을 단단히 조여 매고, 몽둥이들을 원래 발견했던 난로 가리개 안으로 다시 가져다 놓으라는 임무를 맡겼다. 내가 일을 마치자, 침대 덮개는 진주로 반짝이는 곳과 다이아몬드로 번쩍이는 곳이 뒤섞여 눈이 부실 정도였다.

"만약 이게 레이디 메이가 결혼식 때 썼던 그 티아라가 아니라면," 래플스가 말했다. "계단 위로 꽃가루가 흩날리던 그 혼란을 틈타, 그녀가 옷을 갈아입던 방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티아라 말이야. 그렇다면 잃어버린 물건 대신 이걸 그녀에게 선물해 버리겠어. 아무튼 이 오래된 금수저들을 챙겨둔 건 실수였어. 귀중한 물건이긴 하지만, 무게 차이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기 있는 건 아마 켄워디 가문의 다이아몬드일 거야. 이 진주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마 세트로 된 반지들 같군. 세면대 선반 위에 남겨두고 온 모양인데, 아아, 가여운 부인 같으니! 자, 이게 전부야."

침대 너머로 우리의 시선이 맞닿았다.

"이게 다 얼마짜리인가?" 내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말하기 어렵군.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통틀어 손에 넣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었어. 그건 내가 장담하지."

"그 무엇보다도 더—"

그 생각을 떠올리자 입안이 바짝 마르고 혀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걸 현금으로 바꾸려면 꽤 애를 좀 먹어야 할 거야, 친구!"

"그리고…… 꼭 동업을 해야만 하나요?"

결국 나는 울적함이 가득 밴 목소리로 물었다.

"동업 따위 집어치워!" 래플스가 호기롭게 외쳤다. "들어올 때보다 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우리는 솜뭉치까지 포함해 물건들을 전부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솜뭉치까지 챙긴 건 그것이 탐나서가 아니었다. 우리가 저지른 이 훌륭한 업적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말끔히 지워버리기 위해서였다.

"그 죄인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감히 입도 뻥긋 못 할 거야." 래플스가 어니스트 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알아야 할 때보다 더 일찍 알아버릴 필요는 없지. 여기는 다 정리된 것 같군. 아니, 창문은 원래대로 열어두고 블라인드도 올려두는 게 낫겠어. 자, 이제 불 꺼. 옆방을 슬쩍 확인해 보자고. 좋아, 문제없어. 버니, 내가 문을 여는 동안 복도 불도 꺼줘."

그의 말은 속삭임이 되어 잦아들었다. 문밖에서는 열쇠가 자물쇠를 더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말해, 어서!" 래플스가 고통스러운 듯 속삭였다. 내가 입을 열자마자, 그는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바깥문이 열리며 위엄 있는 발소리가 들려오는 찰나, 나를 침실 안으로 조용히 옮겨 놓았다.

그다음 5분은 끔찍한 시간이었다. 이성적인 음주를 설파하던 그가 골동품 찬장의 깊은 서랍 하나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술을 따르는 소리와 사이펀에서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듯한 수상쩍은 소리가 이어졌다. 그때 느꼈던 갈증은 내 평생 처음 겪는 것이었으며, 열대 지방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조차 그에 필적할 만한 갈증을 느껴본 적은 드물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내 곁에는 래플스가 있었다. 그의 손길은 숙련된 간호사처럼 침착하고도 차분했다.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오버코트의 깃을 세워주고 목 부분의 단추를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도 자신의 코트 단추를 똑같이 채웠지만, 그때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침실에서 들려온 유일한 소리는 아주 작은 금속성 클릭 소리였다. 코트 주머니 안에서 둔탁하게 울린 그 소리는 내 마지막 떨림마저 멎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한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래플스가 어떤 게임을 시작하려 하는지, 그리고 내가 곧 그와 함께 그 게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어니스트 경이 침실로 들어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감각을 내 몸이 잊었을 리 없었다! 우리는 문 근처에 서 있었는데, 분명 그가 나를 건드린 것 같았다. 이어 그의 장화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벽난로 가림막이 달그락거렸다. 그 순간 래플스가 불을 켰다.

어니스트 벨빌 경은 눈부신 불빛 아래 몸을 웅크린 채, 마치 훔친 술병을 든 하인처럼 인디언 클럽의 끝부분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 건장한 체격, 철빛 머리칼과 강인한 턱선을 지닌 사내였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설령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저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어니스트 벨빌 경," 래플스가 말했다. "소용없습니다. 이건 장전된 리볼버예요. 만약 저를 강제로 제압하려 든다면, 다른 흉악범을 대하듯 당신에게도 이 총을 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도체스터 공작과 존 켄워스 경, 그리고 다른 귀족과 신사들의 저택에서 벌어진 일련의 강도 사건들로 당신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손에 든 건 내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비어 있더군요."

어니스트 경이 몽둥이를 한두 치 들어 올렸다. 그와 동시에 눈썹도 치켜 올라갔고, 이어서 몽둥이가 난로 가드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내자 그의 건장한 체구도 함께 움직였다. 짧게 다듬은 콧수염 아래로 정중하면서도 냉소적인 미소를 띤 채 그가 몸을 곧게 펴고 서 있자, 그가 범죄자이든 아니든 간에 그 존재감만큼은 확실히 드러났다.

"스코틀랜드 야드 말인가요?" 그가 물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경."

"그들이 그럴 배짱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니스트 경이 말했다. "이제야 당신을 알아보겠군요. 당신이 날 인터뷰했던 그 기자로군요. 아니, 당신들 중 누구도 그런 기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

니다. 저쪽 방으로 들어오시죠, 거기서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얼마든지 절 계속 겨누고 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고풍스러운 사이드보드 위, 매끄럽게 닦인 마호가니 표면에 비쳐 실제보다 두 배는 커 보이는 보석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니스트 경은 별다른 감흥도 없다는 듯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그 보석들을 래플스에게 건네주었다. 보석들은 그의 손가락을 따라 화려한 줄을 이루며 흘러내렸다.

"커클리섬 다이아몬드야." 그가 말했다. "어서 가방에 챙겨 넣는 게 좋겠어."

래플스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턱밑까지 단추를 채운 오버코트에 눈을 가릴 정도로 눌러쓴 실크햇, 그리고 그 사이로 드러난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매서운 눈빛까지. 그는 소설이나 연극 속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탐정의 모습 그 자체였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신만이 아시겠지만, 적어도 나는 래플스의 곁에서 최대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이를 드러내려 애썼다. 나는 이 연극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분명 승산이 있는 게임이었다.

"아마도 지분은 안 받으려 하겠지?" 어니스트 경이 무심하게 말했다.

래플스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나는 불독처럼 입술을 비죽거리며 반항했다.

"그럼 술이라도 한잔합시다!"

입안에 침이 고였지만, 래플스는 참을성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경. 저희와 함께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그를 손에 넣고 나면, 도대체 그를 데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짐 챙길 시간 좀 달라는 말이야. 잠옷이랑 칫솔 같은 거 말이지, 몰라서 물어?"

"경,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으니, 원하신다면 저들이 택시를 부르도록 일러두겠습니다. 하지만 전 금방 돌아올 테니, 5분 안에는 준비를 마치셔야 합니다. 자, 경위님, 제가 없는 동안 이걸 좀 맡아주십시오."

결국 나는 그 위험천만한 범죄자와 단둘이 남겨지고 말았다! 래플스가 권총을 건네주며 내 팔을 툭 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었다.

"'바다빛 청록색의 청렴지사라 이건가?'" 우리가 마주 선 채로, 어니스트 경이 물었다.

"나를 타락시킬 순 없을걸요." 나는 이를 드러낸 채 으르렁대듯 대답했다.

"그럼 내 방으로 들어오게. 내가 앞장서지. 혹시 내가 말썽이라도 피우면, 나를 맞힐 수 있겠나?"

나는 지체 없이 우리 사이에 침대를 놓았다. 죄수는 침대 위로 여행 가방을 내팽개치더니, 낙담한 기색으로 물건들을 가방 안에 쓸어 넣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지켜보고 있던 그의 머리는 들지도 않은 채, 짐을 정리하던 오른손을 뻗어 내가 그를 겨누고 있던 총구를 움켜쥐었다.

"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가 침대 한쪽 면에 무릎을 올린 채 말했다. "만약 쏜다면, 나만큼이나 자네도 큰 화를 입게 될 테니까!"

나는 그에게서 리볼버를 빼앗으려 몸싸움을 벌였다.

"억지로 시키신다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내가 낮게 읊조렸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만약 내가 방아쇠를 당긴다면, 총알은 침대나 내 다리에 박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내 손등 위로 제 손을 얹어 내 손과 권총을 통째로 짓눌렀다. 그 힘은 내 열 배는 족히 되어 보였다. 어느새 그는 양 무릎을 침대 위에 올린 상태였다. 그리고 갑자기, 서류 가방 위로 그의 다른 한쪽 주먹이 천천히 치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도와주세요!" 내가 힘없이 외쳤다.

"도와달라고? 참나! 이제야 당신이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는군." 그가 내뱉은 말과 함께 '야드'라는 단어가 섞인 어퍼컷이 날아왔다. 주먹은 그대로 내 턱밑을 강타했다.

그 충격에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떨어지면서 어디에 부딪혔는지, 그 요란한 소리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III

의식을 되찾았을 때, 래플스가 내 머리맡에 서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길게 뻗어 누워 있었다. 바로 그 비열한 벨빌이 간악한 수작을 부려 나를 쓰러뜨린 그 침대였다. 바닥에는 여행 가방이 굴러다니고 있었지만, 그 가방의 사악한 주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가 갔나요?" 내가 겨우 내뱉은 첫 질문이었다.

"어쨌든,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해야겠군!" 래플스가 대답했다. 당시 내가 느끼기에 그는 그저 경박하게 대꾸하는 듯했다. 나는 간신히 한쪽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어니스트 벨빌 경을 말한 거였네." 나는 품위를 지키며 대답했다. "그가 정말로 자취를 감췄다고 확신하나?"

래플스가 창밖을 향해 손짓했다. 창문은 여름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었다.

"물론이지." 그가 말했다. "내가 의도한 경로로 갔을 거야. 내 바람대로 철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겠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대체 어쩔 뻔했겠나? 내 가여운 버니, 난 자네가 뇌물이라도 받을 줄 알았네!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훨씬 설득력 있어. 어쨌든 어니스트 경도 당분간은 그렇게 믿는 편이 낫겠지."

"정말 그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확신하나?"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당연하지!" 래플스가 다시 한번 외쳤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한지,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은 저절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다. 그는 이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덧붙였다. "뭐, 사실 아무 상관도 없지만 말이야. 어차피 그놈은 우리 손바닥 안이니까. 언제든 눈치채고 무너질 수 있겠지만, 막상 사실을 알게 되면 감히 입도 뻥긋 못 할걸."

"그럼 한시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열린 창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곁눈질했다. 머릿속이 여전히 빙빙 돌고 있었다.

"기운이 좀 나면 그때," 래플스가 대답했다. "그때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내가 직접 벨을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불러줄게. 버니, 자네는 습관이 너무 몸에 배었어. 창문은 내가 닫아둘 테니, 모든 건 우리가 처음 발견했을 때 그대로 두자고. 어니스트 경은 아마 사람들이 그를 크게 찾기도 전에 진상을 눈치챌걸? 그러고 나서 우리를 몰아세우려고 돌아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설령 그가 성공한다 해도, 대체 뭘 할 수 있겠나? 자, 버니, 정신 좀 차려. 밖으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야."

그 지옥 같은 저택에서 손목이 풀린 채 빠져나왔을 때, 나는 말로 다 못 할 해방감을 느꼈다. 탈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래플스는 위층에서 벌인 거창한 계획만큼이나, 이번에 맡았던 작은 역할 또

한 완벽하게 수행해 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는 성공한 예술가 특유의 고양된 기운이 감돌았다. 그가 이토록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하는 모습을 본 지도 참 오래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성취감을 맛보지 못한 채 지내온 시간 또한 너무나 길었다.

"내 평생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있었나 싶어." 그가 말했다. "그가 바로 옆방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생각조차 못 했거든. 설령 생각했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사실 그때는 그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라 별로 신경도 안 썼지. 그런데 자네가 그 놈한테 얻어맞고 쓰러지는 걸 보니 정말 안타깝더군. 나는 내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내내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버니, 기억나겠지만 나도 예전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잖아. 그런데 그때는 이만큼 대단한 명분도 아니었다고!"

래플스는 주머니를 하나씩 훑어보았다. 주머니마다 꽤 쏠쏠한 거금이 들어 있었다. 조명이 밝게 비치는 몰(the Mall)의 가로수길을 가로지르며 그는 내 얼굴을 보고 싱긋 웃어 보였다. 그러더니 곧장 한섬 택시를 불러 세웠다. 아마도 내 안색이 여전히 창백해 보였던 모양이다. 우리는 숙소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내릴 때까지, 그는 내가 입을 열 틈조차 주지 않았다.

"내가 정말 못나게 굴었어, 버니!" 그는 나직이 속삭였다. "하지만 이봐, 훔친 물건의 절반은 네 거야.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아니, 정문 대신 뒷문으로 들어가서 지붕을 타고 넘어가자. 테오볼드 영감이

연극을 보고 있을 시간은 지났고, 그렇다고 술에 잔뜩 취해 잠들 만큼 이른 시간도 아니니까."

우리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수많은 계단을 올라갔고, 그 기세 그대로 때가 탄 지붕 위로 몸을 숨기며 기어 나갔다. 하지만 오늘 밤의 지붕은 머리 위의 밤하늘만큼이나 어두웠다. 별 하나 없는 밤이라 굴뚝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건물 안쪽 방들에 빛을 들여보내기 위해 지붕에서 지하까지 이어진 L자형 환기창이 곳곳에 있었는데, 낮은 난간에 발이 걸리지 않으려면 손으로 더듬어가며 길을 찾아야 했다. 래플스가 앞장서서 건너가는 동안, 환기창 하나를 가로지른 허술한 다리와 철제 난간에서는 손끝에 닿는 온기가 느껴졌다. 이토록 뜨겁고 눅눅한 밤은 내 평생 처음이었다.

"집이 아주 오븐처럼 뜨겁겠군." 우리 집 계단 맨 위층에 올라서며 내가 투덜거렸다.

"그럼 내려가지 말자." 래플스가 즉시 대답했다. "대신 여기서 잠시 쉬면서 속도를 늦추는 거야. 아니, 버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마실 거랑 안락의자를 가져다줄 테니까, 몸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절대 내려오지 마."

그에게 뜻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었다. 평소 같았더라면 막아섰겠지만, 그날 밤은 평소보다도 저항할 기운이 더 없었다. 그 빌어먹을 어퍼컷 때문이었다! 앞서 말한 난간 중 하나에 걸터앉아 뜨거운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있으니,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몰려왔다. 두통을 잊게 해줄 만한 밤도 아니었다. 공기 중에는 분

명한 천둥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몸을 웅크린 채, 불운한 사고를 곱씹으며 한심한 부하 악당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다 기다리던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가 엉뚱한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손이 빠르시군요." 내가 담백하게 말했다.

"그래," 내가 아는 목소리가 낮게 쉿쉿거렸다. "게다가 훨씬 더 서둘러야 해! 자, 손목 내밀어. 아니, 한 번에 하나씩. 만약 입이라도 뻥긋했다간 넌 죽은 목숨이야."

어둠 속에서 짧게 다듬은 철회색 콧수염이 굳게 다문 치아 위로 번뜩였다. 어니스트 벨빌 경이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 한 쌍이 번뜩이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수갑 하나가 내 오른쪽 손목을 덥석 물었다.

"자, 이쪽으로 오게." 어니스트 경이 리볼버 한 자루를 내보이며 말했다. "친구를 기다리게나. 그리고 명심하게. 경고를 위해 입을 떼는 순간, 자네 목숨은 끝이라네!"

그 불한당은 나를 끌고 가더니, 방금 래플스의 뒤를 따라 건너온 바로 그 다리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는 협곡 중간에 있는 철제 난간에 내 손목을 수갑으로 채웠다. 손끝에 닿는 다리의 감촉은 더 이상 따스하지 않았다.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결국 저 고귀한 척하는 위선자가 우리 게임과 자신의 게임 모두에서 우리를 이긴 것이다. 래플스가 마침내 자신과 맞먹는 상대를 만난 셈이

었다! 이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생각이 어디 있을까. 나 때문에 래플스가 그 아파트에 머물러 있는데, 정작 나는 그에게 닥칠 운명을 경고조차 해줄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그렇다고 소란을 피워 집이 무너져 내릴 만큼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그 비참한 판자 위에서 마치 바위에 묶인 안드로메다처럼 떨고 있었다. 위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암흑뿐이었다. 그 기묘한 어둠에 익숙해진 내 눈앞에는 어니스트 벨빌 경이 서 있었다. 그는 래플스가 아무런 의심 없이, 양손 가득 전리품을 챙겨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래플스라 해도 이토록 허를 찔린다면, 자신에게 뒤지지 않는 수완과 용기를 지닌 무법자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래플스는 처음부터 그를 치명적일 정도로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따져볼 겨를은 없었다. 내 유일한 걱정은 오직 다음에 벌어질 일뿐이었다.

결과는 내 최악의 예감보다 더 참혹했다. 우선 계단 끝에 있는 승강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며 나타나더니, 마침내 래플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셔츠 차림으로 말이다! 그는 단순히 촛불을 들고 나타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손쉬운 표적이 될 상황이었다. 아래층에서 이미 코트와 조끼까지 벗어 던진 그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어 무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디 있나, 친구!" 그가 나지막이 외쳤다. 자신이 들고 있는 촛불 빛에 눈이 멀 지경이었다. 그는 벨빌을 향해 두어 걸음 다가갔다. "이거 자네 아닌가, 그렇지?"

래플스는 한쪽 팔에 접이식 의자를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촛불을 높이 치켜든 채 걸음을 멈췄다.

"아니, 난 당신 친구가 아니오." 어니스트 경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부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 주게. 그리고 촛불을 단 한 치도 낮추지 말게나. 머릿속이 산산조각 나 길거리로 흩뿌려지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래플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잠시 동안은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흔들림 없는 촛불은 밤의 정적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가 유럽에서 가장 강인한 신경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다 그는 내 공포를 자아낼 만큼 태연하게 몸을 굽혔다. 촛불과 의자를 지붕 위로 내려놓는 그의 손은 마치 자신을 가로막는 것이 고작 장난감 총이라도 되는 양,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무심하기 짝이 없었다.

"왜 안 쐈습니까?" 그가 무례하게 일어나며 물었다. "소음이 무서웠던 겁니까? 저런 구식 권총이라면 저라도 겁이 났을 겁니다. 야전에서 쓰기에는 아주 좋겠지만, 한밤중에 건물 지붕 위에서 쏘기에는 적절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난 총을 쏠 겁니다." 어니스트 경이 차례를 이어 대답했다. 그는 앞선 말보다 덜 무례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다. "당장 내

물건을 돌려놓지 않는다면, 총소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발사하겠어요. 마지막 단어에 토를 달지 않으니 다행이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도둑들 사이에 존재하는, 혹은 마땅히 존재해야 할 그 명예만큼 날카로운 명예는 없는 법이지요. 당신이 우리 동료라는 사실을 내가 금방 알아챘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6펜스짜리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영리한 탐정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착각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좀 더 격에 맞는 부하를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들통나게 만든 건 바로 그 친구였으니까요."

그 악당은 우리를 모욕하려 애쓰던 가식적인 말투를 잠시 내려놓으며 낄낄거렸다. "영리한 탐정은 조수 노릇을 하는 순진한 꼬맹이를 데리고 다니지 않거든요. 아, 참, 그 친구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길바닥으로 내쫓을 필요까지는 없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만 눈을 돌린다면, 말은 안 해도 얼굴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친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창문으로 나갔다고 확신하게 만든 건 그 친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나는 내내 욕실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말입니다."

"욕실이라고요?" 래플스가 전문가다운 흥미를 보이며 되물었다. "그럼 공원을 가로질러 우리 뒤를 걸어서 쫓아왔다는 말씀이시군요?"

"물론이지요."

"그러고 나서 택시를 타고 간 건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걸어서 왔지."

"가장 단순한 만능열쇠만 있어도 아래층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군."

바닥에 놓인 촛불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어니스트 경의 얼굴 하반부가 비죽비죽 웃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그가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도 우리 동료 중 한 명임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같은 본보기를 두고 각자의 방식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군요. 혹시 A. J. 래플스를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래플스 본인은 대답하는 데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아주 친하게 말이죠."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래서 그런 거군." 어니스트 경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라네. 비록 그 거장을 직접 뵙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 말이야. 어느 쪽 제자가 더 나은지는 내가 감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지. 하지만 말일세, 지금 자네 친구는 허공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자네는 내 손아귀에 놓여 있으니, 이 정도는 내가 잠시 우위를 점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겠나?"

래플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하늘을 두 갈래로 찢어발기는 번갯불이 번쩍였다. 촛불이 아닌 그 강렬한 빛 속에서, 그의 짧게 다듬은 콧수염 아래로 또 한 번 비죽한 웃음이 번졌다.

"지금 당장은 불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래플스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우리가 챙긴 부당한 이득을 손에 넣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를 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건, 오히려 당신 자신을 훨씬 더 폭력적이고 수치스러운 파멸로 몰아넣는 짓일 뿐입니다. 가문의 명예만 생각하더라도 그런 위험한 도박은 피해야 마땅하죠.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는데 말입니다."

번개가 예고한 천둥소리가 뒤늦게 터져 나오며 래플스의 남은 말을 집어삼켰다. 천둥소리가 워낙 거세게 몰아치는 것을 보니 폭풍우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마지막 메아리마저 잦아들었을 때, 나는 래플스가 마치 한 번도 말을 멈춘 적이 없었다는 듯 계속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지분을 나누겠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를 냉혹하게 살해할 작정이 아니라면, 방금 그 제안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는 아주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차라리 우리를 친구로 삼아 이득을 챙기는 편이 훨씬 현명할 겁니다."

"자네 집으로 안내하게." 어니스트 경이 군용 리볼버를 휘두르며 말했다.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지. 조건은 내가 제시할 테니 말이야. 무엇보다 여기서 비를 쫄딱 맞으며 서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네."

그가 말을 마침과 동시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번갯불이 번쩍였을 때, 나는 래플스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가 물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 그놈은 괜찮아." 거구의 사내가 대답했다. "비 좀 맞는 게 그놈한테는 약이 되지! 내가 왜 굳이 이길 확률이 두 배나 낮은 도박에 내 돈을 걸겠어?"

"그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래플스가 대꾸했다. "이런 밤에 내 친구를 사지로 몰아넣으라고 저를 설득하려 해봤자 소용없을 테니까요. 그는 당신 방에서 당신에게 맞은 충격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당신을 비난할 만큼 제가 어리석지는 않지만, 만약 그를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두고 떠날 생각이라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스포츠맨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남는다면, 저 또한 떠나지 않겠습니다."

소리가 멎자마자 래플스의 목소리가 분명히 내 곁으로 가까워진 듯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우박처럼 거세게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빗물에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벨빌이 욕설을 내뱉는 소리와 래플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찰나의 순간이 전부였다. 래플스는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총을 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다음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몰아치는 그 캄캄한 정적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는 천둥과 번개가 한꺼번에 몰아쳤다. 번개가 그 광경을 비추고 천둥이 환호를 보냈던 그 광경을, 나는 죽는 순간까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놓은 구름다리가 가로지르는 협곡의 난간 위로 래플스가 서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그는 마치 정원의 산책로를 건너듯 가볍게 난간을 딛고 넘어왔다. 난간의 폭은 그리 넓지 않았으나, 그 아래의 깊이는 차원이 달랐다. 갑작스러운 섬광 덕분에 우물 바닥처럼 아득한 콘크리트 밑바닥까지 보였는데, 그 깊이가 마치 내 손바닥 안의 오목한 공간처럼 작게 느껴질 정도였다. 래플스는 내 귓가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철제 난간을 꽉 붙잡고 있었다. 난간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발디딤은 내 것만큼이나 견고했다.

반면 어니스트 벨빌 경은 빛이 번쩍이기 5분의 1초가량 늦게 움직였고, 도약도 반 자나 모자랐다. 무언가가 우리 발밑의 판자 다리를 너무 세게 들이받는 바람에, 다리가 하프 줄처럼 파르르 떨렸다. 공중에서는 짧은 비명과 흐느낌이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저 아래 먼 곳에서 차마 묘사하고 싶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 적절한 비유를 찾아낼 자신이 없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히 들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하니까.

그 역겨운 소리와 함께 지금까지 중 가장 거대한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다. 뒤이어 눈이 멀 듯한 하얀 섬광이 번쩍이며 저 멀리 아래에 쓰

러진 적의 몸을 드러냈다. 그의 하얀 손 하나가 불가사리처럼 펼쳐져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머리는 아래로 뒤틀려 보이지 않았다.

"다 그 친구 잘못이야, 버니. 불쌍한 녀석! 그 친구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용서받기를 빌어야지. 하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신 좀 차려. 자, 넌 떨어질 일 없어. 잠시만 그대로 있어 봐."

래플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납게 몰아치던 자연의 소동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소음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문 하나 열리는 소리도,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도 없었다. 그러다 래플스가 비누와 물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마치 손가락이 굵어져 빠지지 않는 반지를 빼내듯, 능숙한 솜씨로 한쪽 손목에서 족쇄를 달래듯 벗겨냈다. 그 뒤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아파트에서 아침까지 덜덜 떨었던 기억뿐이다. 평소라면 환자였을 집주인이 이번만큼은 간호사가 되었고, 나는 그의 환자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둘이 우리와 같은 부류의 자를 잡으려 애썼던 그 사건의 진짜 결말이다. 비록 다른 대목에서 진실을 일부 숨긴 적은 있으나 말이다. 당시 래플스가 저질렀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그가 완전히 잘못했다고 드러내는 일은 결코 유쾌한 작업이 아니다. 또한 내가 겪었던 이중의 굴욕을 떠올리거나, 결코 나쁘지 않은 죄인의 죽음에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일조했다는 사실을 회상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미묘한 즐거움도 없다.

하지만 진실에는 진실만의 가치가 있는 법이다. 불쌍한 어니스트 경의 일가친척들이 그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잃을 것도 그리 많지 않을 테니 말이다. 정황을 보아하니, 그들은 '절제하는 음주'의 전도사였던 그가 실제로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엑서터 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비극은 과연 은폐되었다. 그런 상류층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극이란 대개 그렇게 처리되기 마련이니까.

다만 그 불쌍한 악당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류의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에 관한 소문만큼은 하루빨리 잠재워야 한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켄싱턴의 가장 점잖은 아파트 몇몇의 명성까지도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옛 연인

그 광장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다만 피카딜리에서 서쪽으로 곧장 달려가다 보면 마부의 왼편에 나타날 것이며, 그는 2실링의 삯을 받고 당신에게 고마워해야 마땅할 것이다. 세련된 광장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곳은 드물다. 게다가 남쪽 면에 늘어선 화실들은 이곳에 색다른 품격을 더해준다. 하지만 집들은 작고 칙칙해서, 한탕할 집을 찾는 전문 도둑들의 눈에 띄기에는 가장 마지막 순위일 것이다.

하늘은 아시겠지만, 내가 래플스를 이곳까지 몰아넣은 건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해 시즌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불운한 저녁이었다. 테오발드 박사가 결국 내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 환자용 의자를 쓰라고 고집을 부린 날이었다. 앞서 말한 푸른 정원에서는 나무들이 속

삭이는 듯했고, 시원하고 매끄러운 잔디밭은 어찌나 매혹적인지 자비로운 주민 중 누군가에게 열쇠를 좀 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내가 그 제안을 하려고 멈춰 섰을 때, 래플스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작은 집들을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런 발코니라면 말이야, 버니! 발을 한 번만 딛고 올라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그 광장에는 가져갈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듯 말했지만, 말을 이어가는 동안 그가 다시 움직이도록 세심하게 유도했다.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래플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반지나 시계 같은 게 타깃이겠지. 하지만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 뺏는 건 운이 좀 나쁜 일이야. 글쎄, 잘 모르겠군. 저기 봐, 저 집은 층수가 하나 더 높잖아. 버니, 멈춰! 계속 그러면 나 난간 붙잡고 버틴다! 저 집은 꽤 괜찮은 집이야. 문고리랑 전기 벨 좀 봐. 벌써 설치해 뒀잖아. 여긴 돈 좀 있겠는데, 친구! 내기해도 좋아, 응접실에는 분명 은제 테이블이 놓여 있을 거야. 게다가 창문도 활짝 열려 있군. 세상에, 전등까지 들어오잖아!"

멈춰야 했기에 나는 길 건너편, 잎이 무성한 울타리 그림자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래플스가 말을 이어가던 그때, 맞은편 건물 1층의 창문

들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창 너머로는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저녁 식탁이 보였다. 식탁 저 끝에는 한 남자가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우리 쪽을 향한 자리에는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마치 스크린 위에 비친 등불 그림을 보는 듯한 광경이었다. 식탁에는 단 두 사람뿐이었지만, 은식기들은 눈부시게 빛났고 꽃들은 화사했다. 하녀는 숙련된 하인 특유의 정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들을 시중들고 있었다. 분명 아주 부유한 집임이 틀림없었다.

"블라인드를 내리려 해!" 래플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제기랄, 하지 말라고 일렀나 보군. 버니, 저 여자 목걸이 좀 적어 둬. 그리고 저 남자의 셔츠 장식 단추도 목록에 올려 두고. 저 자식, 정말 무식하게 생겼군! 하지만 저 테이블은 마음에 들어. 저 여자의 안목이지. 취향은 확실하네. 하지만 저 남자는 분명 돈이 많을 거야. 저 찬장 위에 있는 축제 분위기의 그림 보여? 내가 보기엔 자크 세이야르의 작품 같아. 그래도 저 은제 테이블만 있다면 나한테는 충분하겠어."

"어서 가게." 내가 말했다. "지금 환자용 의자에 앉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광장 전체가 저녁 식사 중이라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라고. 눈 깜짝할 새에 끝날 거라고!"

"블라인드를 다 올려둔 데다, 바로 아래쪽 주방에는 요리사까지 있는데 말입니까?"

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양손은 다리에 감은 담요 위에 얹은 채였다.

"제정신이 아니군." 나는 그 말을 내뱉으며 다시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의자를 힘껏 잡아당기자, 의자는 너무나 가볍게 움직였다.

"무릎 담요를 잘 지켜보고 있어."

길 한복판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몸이 불편한 내 친구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 서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무모할 정도로 단호했다.

"그 여자가 은제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만 하려는 거야……."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금방 끝날 거야—"

"미친 짓이야, 이건 미친 짓이라고!"

"그럼 기다리지 마세요!"

그가 나를 그런 식으로 내팽개치고 떠나는 건 딱 그다운 행동이었다. 만약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의 마지막 말을 그대로 믿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그를 미쳤다고 불렀다. 필요하다면 선서까지 하며 그가 미쳤다고 증언할 수도 있었다.

이 일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었다. 근처 저택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금방 알아차릴 터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테오발드 박사를 찾아가라고 일러두었다. 이분은 박사의 환자인 마투린 씨

이며, 나는 그를 돌보는 관리인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전에는 한 번도 나를 따돌린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이런저런 설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비어 있는 환자용 의자를 가리키며 증거라고 내세우는 내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다. 그사이 예쁘장한 하녀는 경찰을 부르러 달려갔다.

이 일은 내가 돌보는 환자보다 나에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자칫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다. 아니, 그는 전에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내가 보증할 수 있었다.

나는 래플스를 의자로 다시 안내하며, 단호한 손길과 엄한 말투로 그를 다스리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가 나에게 나직이 고마움을 전하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그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위기에 빠지기를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깨달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걸린 불과 몇 초 사이, 나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나는 래플스를 지켜보면서도 전혀 불안하지 않을 만큼 확고한 위치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켜볼 가치가 충분한 인물이었다.

그는 대담하면서도 조용히 현관문 앞까지 걸어갔다. 문이 열리거나 안뜰에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나면 즉시 벨을 누를 준비를 한 채, 그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벨을 누르는 척 연기할 속셈이었으리라. 하지만 벨을 누를 필요조차 없었다. 갑자기 그의 발이 우편함 안

으로 쑥 들어오더니, 왼손이 머리 위 문설주를 움켜쥐는 모습이 보였다. 미리 설명을 듣고 준비했던 나 같은 노련한 공범조차 전율이 일 정도였다. 그는 다섯 손가락에 온 체중을 실어 뒤로 몸을 젖혔고, 왼손은 무언가를 꽉 움켜쥐었다. 오른팔은 한계까지 뻗어 위를 향했고, 마침내 돌출된 낮은 발코니의 밑부분을 안전하게 붙잡는 데 성공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불이 켜진 방 안에서 하녀가 부스러기를 치우고 있었고, 광장은 아까와 다름없이 텅 비어 있었다. 시즌이 끝난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다. 아직 불이 꺼진 집들이 많았으니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래플스는 발코니 난간 너머로 왼쪽 다리를 넘기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발코니로 통하는 프랑스식 창문 중 하나를 통해 방 안으로 사라졌고, 곧이어 방 안의 전등을 켰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제 적어도 나만은 그가 하는 짓을 훤히 지켜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그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 짓을 저질렀다. 내가 단번에 알아챘고 나중에 래플스도 자백했듯이, 그 미친 짓은 오로지 나를 위해 벌인 일이었다. 그런데 그 광인이 다시 발코니로 나타나더니, 검은 가면을 쓴 채 마치 광대처럼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게 아닌가!

빈 의자를 들고 일단 자리를 떴지만, 나는 이내 되돌아오고 말았다. 설령 내가 그러고 싶을 때조차, 래플스를 모른 척 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가 제때 가면을 벗을 눈치조차 없었다면, 내가 대신 그 가면의 정체

를 어떻게든 해명해야만 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보통 도둑질을 할 때 목욕용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말이다. 나머지는 테오볼드 박사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사이 래플스는 적어도 발코니에서는 물러나 있었다. 이제 방 건너편에 있는 수납장을 들여다보는 그의 머리 부분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마치 오페라 <아이다>의 한 장면 같았다. 지하 감옥과 지상 신전에서 두 개의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는 그런 무대 말이다. 내 시선도 그와 비슷하게 나뉘었다. 위층 방에서 살금살금 움직이는 래플스의 모습과, 그 아래 식탁에 앉아 있는 부부의 모습 사이를 오갔다.

그러다 갑자기,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잔을 다시 채우는 순간이었다. 여자가 의자를 뒤로 밀치고는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래플스는 위층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액자 사진 하나를 집어 들더니, 여전히 쓰고 있는 흉측한 가면의 눈구멍 사이로 위험천만할 만큼 오래도록 사진을 살피고 있었다. 결국 이 가면이 필요할 것 같았다. 아래층에서는 여인이 직접 문을 열고 닫으며 방을 나갔고, 남자는 다시 잔을 채우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 래플스가 죽을 만큼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바람에, 나는 그에게 경고의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 하필이면 순경 한 명이 우리 쪽 광장을 향해 유유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쓸쓸한 눈길로 목욕 의자를 바라보며 순경에게 시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밤새도록 이곳에 붙잡혀 있게 될 것 같다고 순경에게 내뱉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 때문에 내가 준비했던 다른 설명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적은 인도 위에 있었기에, 설령 그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더라도 거실 천장 정도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집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길 건너편까지 들려왔다. 그리고 낮은 발코니와 프랑스식 창문 너머, 불이 켜진 방 안에서 펼쳐진 그 뒤의 광경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래플스는 어둡고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 서 있었다. 전기 조명 아래 처음 보았던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카메오 조각처럼 내 기억 속에 선명히 각인되어 있다. 이마에서 코로 이어지는 곧은 선, 짧은 윗입술, 그리고 완벽한 턱선까지. 살결보다는 대리석 조각에서나 볼 법한 그 완벽한 조화가 그녀에게 있었다. 그녀는 대리석처럼, 아니, 차라리 아름답고 창백한 청동상처럼 서 있었다. 피부색이 그랬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떨지도 않았다. 다만 가슴이 오르내릴 뿐이었다.

그녀는 가면을 쓴 무뢰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텼다. 저 무뢰한이야말로 그녀의 용기를 가장 먼저 알아볼 사람이리라. 그 용기가 어찌나 대단했는지, 나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느꼈을 정도였다. 동시에 래플스 본인은 어떻게 저토록 당당한 여인 앞에서 태연할 수 있는지 경이롭기까지 했다.

래플스가 그 자세를 유지해야 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여인이 그를 경멸하듯 쏘아보았으나, 래플스는 액자에 담긴 사진을 손에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여인이 재빠르고 단호한 동작으로 몸을 돌렸다. 문이나 벨 쪽이 아니었다. 래플스가 침입했던 열린 창문 쪽이었다. 그 곁에는 저주스러운 경찰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러다 래플스가 무어라 말을 건넸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여인이 몸을 휙 돌렸다. 래플스는 자신이 쓰고 있던 검은 크레이프 가면을 벗어 던진 채, 겸허한 태도로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다.

"아서!" 그녀가 외쳤다. 그 비명은 넓은 정원 한복판에서도 들릴 만큼 컸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느 쪽도 감정의 동요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서 있는 사이, 거리 쪽 현관문이 열리더니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집을 나서는 남편이었다. 체격은 건장했으나 얼굴에는 방탕한 기색이 역력했고, 걸음걸이에서는 곧 비틀거릴 듯한 위태로움을 감추려는 극도의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그의 등장으로 마법 같은 정적이 깨졌다. 아내는 발코니로 걸어 나왔다가 다시 방 안을 돌아보았고, 이어서 길 너머를 살폈다. 그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마치 찬란한 태양신 하이페리온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추잡한 사티로스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어 그녀의 손이 래플스의 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그 창문 너머로 사라졌다. 잠시 뒤 옆 창문에 그들의 머리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고, 새로운 빛을 받은 안쪽 천장이 번쩍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내가 들여다볼 수 없는 안쪽 응접실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하녀가 커피를 들고 올라왔고, 여주인이 급히 문가로 나가 그녀를 맞이하더니 다시 안으로 사라졌다. 광장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나는 그 자리에 몇 분간 더 머물렀다. 간간이 안쪽 응접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내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나의 개인적인 내면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때를 돌이켜보는 건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래플스의 처지가 되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의 정체가 탄로 났고,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직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지만, 그 사람은 여자였다. 그것도 한때 그를 연모했던 여자였다. 만약 사람의 얼굴이 마음을 말할 수 있다면 분명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과연 그녀가 그의 비밀을 지켜줄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어디 사는지 말하게 될까? 우리가 이토록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나는 최선의 대처가 무엇인지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거처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도망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목욕용 의자와 내가 그를 들통나게 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 빌어먹을 의자를 끌고 가까운 모퉁이로 돌았다. 그

러고는 기다렸다. 기다리는 것 정도는 해가 되지 않으니까.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그는 발걸음이 꽤나 경쾌했다. 내 짐작이 맞았던 것이다. 그는 그녀 앞에서 환자 행세를 하며 엄살을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는 기쁨에 겨워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는 의자에 몸을 던지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홀가분하던지 내 마음까지 다 개운해질 정도였다.

"잘했어, 버니. 정말 잘했어! 난 이제 얼스 코트로 갈 거야.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목욕 의자에 앉아 있는 나를 찾아내지는 못할 테니까. 자, 어서 집으로 가자.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광장 남쪽의 스튜디오 구역을 채 지나기도 전에, 후드가 달린 오페라 망토를 두른 여인이 우리를 앞질러 갔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얼스 코트로 향하는 길을 따라 안전하게 방향을 틀었다. 우리가 머무는 초라한 거처로 향하는 길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래플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께 감사를 올렸고, 5분 뒤 우리는 숙소에 도착했다.

그날은 드물게 래플스가 직접 잔을 채우고 담배를 찾아왔다. 그리고 내가 아는 래플스의 모습 중 단 한 번뿐이었을, 그가 술을 단숨에 들이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발코니 장면은 못 봤나?"

그가 한참 뒤에야 물었다. 그 여인이 그의 뒤를 지나쳐 우리 곁을 떠난 이후,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가 내려왔을 때 말이야."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야 할 텐데." 래플스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우리에게 남매 같은 사이였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버니, 자네라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군!"

그는 연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표정을 지은 채, 카펫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옛 연인이라도 되는 건가요?"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유부녀라니요." 그가 신음하듯 내뱉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런 여자였어, 버니." 그가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문제야.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차이점은 나도 알아챘다. 하지만 그 차이가 지금 당장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어쨌든 그는 그 여인을 따돌리지 않았던가. 우리는 그야말로 더없이 거짓된 단서를 쫓도록 그녀를 떠나보내지 않았던가. 앞으로는 몇 배로 조심해야겠지만, 당장 불안해할 이유는 없었다. 나는 분위기를 띄우려 테오발드의 구절을 인용하며 위로를 건넸으나, 래플스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내내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내 위로가 닿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졌음을 깨달았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그가 물었다.

"전혀 모릅니다."

"자크 세이야르라고 하네." 그는 마치 이제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저 들어본 적이 있다는 정도가 전부였다. 무지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는 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예술보다는 문학에만 치중해 공부한 사람이 아니던가.

"그녀의 그림을 분명 본 적이 있을 거야." 래플스가 인내심 있게 말을 이었다. "아마 여자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말이야. 버니,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저기 찬장 위에 놓인 화려한 그림도 그녀의 작품이거든. 어떤 때는 아카데미에서 그녀의 작품을 과감히 전시하기도 하

지만, 어떤 때는 다들 피하기도 하지. 그녀는 이 광장 근처에 작업실을 하나 가지고 있어. 예전에는 로즈 경기장 근처에 살았었지."

숲속 연못에 비친 님프들의 희미한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 그렇군요!" 나는 무릎을 탁 치며 외쳤고, 이어서 "정말 영리한 여성이군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을 듣자 래플스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영리한 여자라고!" 래플스가 경멸하듯 말을 되받았다. "그 여자가 정말로 영리하기만 했다면, 내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안심했을 거다. 하지만 영리한 여자들은 자기 영리함을 과시하느라 정신이 없지. 마치 소년들이 술을 다루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말이야.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나는 자크 세이야르가 자기 분야를 제외하면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여자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녀는 남자의 이름으로 남자의 일을 해내고, 내가 아는 열 명의 남자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졌으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녀가 두렵다."

래플스가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한때 그녀와 관계를 끊은 적이 있지. 하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런던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단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자크 세이야르라고 답할 거다."

래플스가 그녀의 이름을 내게 처음으로 말한 것은, 그가 과거의 관계나 그날 저녁 뒷방 응접실에서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던 모습만큼이나 그답고도 특징적인 행동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원칙의 문제였고, 나 또한 늘 기억하고 싶은 말이었다. "버니, 여자는 절대로 배신하지 말게." 그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오늘 밤 그 역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그 기사도 정신이 혹독한 시험대에 오른 듯한 모습이었다.

"그건 상관없어." 내가 말했다. "자네가 정체가 탄로 나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바로 그거야, 버니! 바로 그게—"

이미 뱉어버린 말이었다.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나는 핵심을 정확히 찔러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당신을 협박했다는 거군요." 내가 말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소." 그가 차갑게 대꾸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광대 같은 놈이랑 짝을 맺다니!" 내가 말을 이었다.

"대체 그녀가 어떻게 그와 결혼했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군." 그가 털어놓듯 말했다.

"늘 그렇지요." 이번만큼은 내가 현자라도 된 듯 대답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꽤 마음에 들었다.

"남부의 피라고요?"

"스페인 사람입니다."

"이보게, 그녀가 자꾸만 같이 도망가자고 조를걸세." 내가 말했다.

래플스는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찰나의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벌써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단 말인가! 친구의 일에 관해서라면 아무리 멍청한 놈이라도 놀라울 만큼 예리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래플스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고, 나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녀를 얼스 코트로 보낸 거군요."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마침내 그가 미소를 지었다.

"버니, 자네도 들으면 흥미로울 거야." 그가 말했다. "내가 지금 세븐 다이얼스에 살고 있다는 사실 말이야. 빌 사이크스 같은 놈도 나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니까. 세상에, 그 여자는 내 옛 경찰 기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고 있더군. 하지만 내가 새로 써 내려간 기록에 비하면 그건 액자에 넣어 장식할 만큼 아주 깨끗한 수준이었지. 난 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었거든. 밤마다 탁 트인

공원과 세븐 다이얼스의 도둑놈 소굴을 전전하며 지냈어. 옷차림이 제법 멀끔해 보였다면, 그건 그저 그저께 밤 템스 계곡 순찰 구역에서 양복 한 벌을 훔쳐 입었기 때문이었지. 다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그 나른한 광장과 그녀의 열린 창문을 마주한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내가 그녀에게 제발 내 방식대로 지옥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자네가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난 진심을 다해 내 속내를 다 털어놓았어.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6피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맹세했지."

"정말 과장이 심하시군요." 내가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효과도 확실했지. 덕분에 그녀는 나를 보내주었으니까.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그러더군. 내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네가 놓친 발코니에서의 장면이 이어졌지."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초에 발을 들이지나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결과적으로는 저지른 일에 비해 훨씬 잘 빠져나왔다고 말이다. 하지만 말을 내뱉은 직후, 나는 곧바로 그 발언을 후회했다.

"내가 거기서 벗어난 건지 모르겠군." 래플스가 의구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너무 가까운 이웃이잖아. 게다가 노인 테오발드가 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당장 움직이기도 어렵고. 일단은 몸을 죽이고 지내는 게 상책일 것 같아. 그래도 일단은 그녀가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신께 감사해야겠지."

우리의 대화는 아마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아직 화제조차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울려 퍼진 전기 벨 소리가 우리 둘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의사라고요?" 나는 공포를 억누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되물었다.

"벨이 한 번만 울렸어."

"마지막 우편물인가요?"

"그 사람은 노크를 하잖아. 벌써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말이야."

전기 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마치 영원히 멈추지 않을 기세였다.

"네가 가, 버니." 래플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미소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 숙녀분이시라면 들여보내게."

그 여인이었다. 여전히 이브닝 망토를 걸친 채였다. 후드 아래로 검고 고운 머리칼이 반쯤 가려져 있었고, 화가 난 얼굴에는 겉치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매혹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훨씬 더 대담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인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토록 서둘러 문을 열어준 탓인지, 여인의 분노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통로는 내가 전에도 말했듯 무척이나 좁았다. 여인은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나는 감히 그녀의 앞길을 막아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망토를 바스락거리며 분노를 쏟아내듯 성큼성큼 지나쳐 밝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보며, 나는 그저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비켜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당신네 도둑놈들의 주방이라는 거군요!" 그녀가 날카롭고 경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나 역시 문턱에 서 있었다. 래플스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내 젊었을 적엔 분명 더 좋은 곳에서 지내기도 했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 하인 앞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부를 필요는 없네."

"그럼 당신네 '사람'을 내보내시오." 자크 세이야르가 말했다. 그는 특정 단어에 불쾌한 기색을 담아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래플스가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신은 갑작스러운 충동에 휩싸인 진짜 환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그동안 말해온 삶은 행방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으며, 지금 그녀에게 하는 말들은 이 건물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아래층 문지기를 먼저 찾아가 확인을 마친 듯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가 어느 쪽 이야기가 진실인지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줄 알았나 보군요." 그녀가 말했다. "이 세상 그 누구를 만난다 해도 내 마음이 당신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줄 알았냐 말이에요!"

II

"버니," 래플스가 말했다. "정말 미안하네, 친구. 하지만 자네는 이제 가야만 해."

자크 세이야르가 처음 불쑥 찾아온 뒤로 몇 주가 흘렀다. 그사이 그녀는 하루 중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찾아오곤 했고, 래플스는 결국 인근 광장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에도 적어도 한 번은 발걸음을 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래플스도 이런 불청객의 방문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척하며 넘겼다. 하지만 그 연기는 생각만큼 나에게 통하지 않았다. 래플스는 그녀가 악의는 없으며, 자신의 비밀을 충직하게 지켜줄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래플스가 그녀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보였다. 그가 믿는 척했던 것은, 사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휘두르고 있는지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연기였다. 만약 정말로 그녀를 믿었다면, 자신의 정체라는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래플스는 자신의 건강 상태라는 부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크 세이야르를 속여 넘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테오발드 박사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도운 셈이었다. 이미 보았듯이, 래플스는 그녀에게 내가 사실은 자신의 수행원일 뿐이며, 의사 자신만큼이나 그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애썼다.

"그러니 걱정 마, 버니. 넌 괜찮아." 래플스가 내게 확신을 주듯 말했다. "그 여자는 네가 지난번 밤에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말했지, 그 여자는 자기 일 말고는 그리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참 대단한 고집불통이야!"

나는 래플스에게 나를 사건에서 제외해 준 것은 매우 사려 깊은 처사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고양이가 도망쳤는데 빈 주머니를 묶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래플스는 그런 여자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듯 인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 상태가 몹시 나빠 보였던 래플스는 자신의 마지막 방어 수단인 침대로 몸을 숨겼다. 결국에는 늘 그렇듯, 래플스의 그런 교묘한 수법에도 나름의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오발드 박사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내 정직함 또한 의심받을 일이 없었기에, 자크 세이야르를 문밖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비교적 쉬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동안 우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곧 편지들이 날아들었고, 의사가 끊임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토

록 구구절절한 설명을 늘어놓게 만든 그 믿기 힘든 말들과 함께 나는 해고되고 말았다.

"간다고요?" 내가 되물었다. "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 멍청한 테오발드 놈 때문이야." 래플스가 말했다. "그자가 고집을 피우고 있거든."

"제가 아예 떠나버린단 말씀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셈인가요?"

굴욕감과 혐오감을 표현할 마땅한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그 감정들이 놀라움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말이다. 이 모든 소동을 불러온 그 미친 짓이 가져올 결과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예상해 보았다. 하지만 래플스와 내가 자발적으로 갈라서는 상황만큼은 결코 계산에 넣지 못했다. 게다가 오늘 아침, 그 어처구니없는 의사가 방문하기 전까지는 래플스조차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침대에 누워 내게 이 소식을 전하던 래플스의 표정은 짜증이 가득했었다. 그런데 지금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은 그의 모습에는 묘한 동정심마저 서려 있었다. 마치 그 자신도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친구에게 져줄 수밖에 없었네." 그가 말했다. "그자가 내 친구로부터 나를 구해주는 셈이니, 기분을 맞춰주는 게 도리겠지. 하지만 버

니, 지난 반 시간 동안 우리가 자네 이야기를 두고 얼마나 논쟁했는지 모를 걸세. 소용없는 짓이었어. 그 바보는 처음부터 자네를 눈엣가시로 여겼거든. 다른 조건으로는 내 말을 들어줄 생각조차 없더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당신을 보살펴 주겠다는 거군요?"

"합계가 딱 그렇게 된다는 소리야." 래플스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어찌 됐든 그는 일단 나를 구해준 셈이고, 남은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해. 버니,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지금이라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니까. 하지만 말해두겠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도 도망치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과 경찰들에게 낱낱이 알려지는 편이 나을까? 내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사실상 이 문제였어. 그리고 일단은 몸이 아픈 척하는 것으로 임시방편을 마련했지. 사실, 나 정말로 아프긴 해.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 내키지는 않지만 너에게는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버니. 그녀는 나를 '태양이 진정으로 내리쬐는, 따스하고 정겨운 지하 세계'로 데려가서, '나를 보살펴 다시 살려내고 사랑을 줄 것'이라더군! 버니, 악마 같은 의지를 가진 여자의 예술가적 기질이란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야!"

래플스는 흥미로운 구절들을 읽어 내려갔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마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연기할 수 있는 진짜 환자처럼,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베개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최선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상황을 이용해 테오발드 박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야 한다는 근거로 삼았다. 런던에는 장티푸스가 창궐하고 있으며, 가을철의 불길한 전염병 기운이 분명히 감돌고 있다고 나는 주장했다. 래플스가 정말로 중병에 걸려 앓아누울지도 모르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나도 모른다니까, 이 사람아." 래플스가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하지만 테오발드는 알고 있어. 지금은 그와 척을 질 형편이 안 돼. 그 여자가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걸 알아버린 이상,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사실 별로 상관없긴 해. 분명히 소문을 퍼뜨릴 테니까. 기껏해야 소동이 일어나는 정도겠지만, 그 소동이야말로 내가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피해 온 것이거든. 자, 이제 자네가 해줬으면 하는 건, 어디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폭풍이 몰아칠 때 내가 잠시 몸을 피할 안식처가 필요하거든."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나는 기운을 차리며 외쳤다. "난 당신이 아예 나를 내팽개치고 가버릴 줄 알았다고요!"

"딱 네가 생각할 법한 내용이군." 래플스가 대꾸했다. 방금 전까지 가슴을 졸였던 내게는 그 경멸 섞인 말투조차 반가울 정도였다. "아니, 이 귀여운 토끼야. 네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둘이 함께 지낼 새로운 굴을 파는 거야. 템스강 근처를 한번 알아봐. 문학가라면 자연스럽게 선택할 만한 조용한 구석진 곳으로 말이야.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배를 활용하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 친구, 만약 래플스가 다시 기운을 차린다면,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라도 제대로 한탕 벌여볼 테니까! 자전거도 활용

할 방법이 있을 거야. 햄 커먼이나 로햄프턴, 아니면 노선에서 살짝 벗어난 그런 한적한 마을을 찾아봐. 그러고는 식구들에게 식민지에서 형님이 오기로 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계획에 동참했다. 계획을 여유롭게 추진할 만큼 자금은 충분했고, 래플스는 당장 쓸 수 있도록 내 몫의 비용도 넉넉히 떼어 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 역시 새로운 환경을 갈망하던 차였다. 나는 새로운 터전을 찾겠다는 결심을 아주 문자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는 생활은 이제 지긋지긋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길 돈이 충분해진 지금은 더욱 그랬다.

최근 나는 장물아비들과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았는데, 그 덕분에 불쌍한 어니스트 벨빌 경이 거둔 성과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뒤따른 복잡한 문제들은 꽤나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했다. 무엇보다도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경솔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가장 짜증스러웠다. 물론 그 일로 래플스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다음에 다시 자리를 잡을 때쯤이면 그 교훈이 꽤나 값지게 작용할 것이라 나는 생각했다.

"정말로 그런 날이 오기만 한다면 좋겠어, 버니!"

내가 그의 손을 맞잡으며 벌써부터 그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하자, 그가 대답했다.

"물론 가야지요!" 나는 외쳤다. 그가 내뱉은 말투와 그 표정 때문에 그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원망이 가슴 속에서 다시금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애써 그 마음을 감추었다.

"글쎄, 난 잘 모르겠어."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난 지금 누군가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거든. 일단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야."

"당신이 할 때까지 난 꼼짝 않고 기다릴게요."

"글쎄," 그가 말했다. "열흘 안에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영 못 볼 줄 알게나."

"겨우 열흘이라고요?" 내가 되물었다. "그 정도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열흘이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래플스가 대답했다. 특유의 그 우울한 어조였다. 듣는 사람마저 가라앉게 만드는, 그만의 아주 우울한 말투.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 번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작별을 고하듯 갑작스럽게 손을 꽉 쥐었다가, 이내 툭 하고 내 손을 놓아버렸다.

결국 나는 몹시 낙담한 채 집을 나섰다. 래플스가 정말로 몸이 아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알다시피 그저 걱정이 많아진 것뿐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단 아래에 이르렀을 때, 나를 쫓아낸 장본인이자 그 빌어먹을 테오발드라는 작자가 문을 벌컥 열고 나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정말 가려는 건가?" 그가 다그치듯 물었다.

내 손에 들린 짐이 내가 정말 떠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그와 결판을 내기 위해 그것들을 그의 발치에 내던졌다.

"그래요," 내가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부 당신 덕분이지!"

"이보게, 친구," 그가 말했다. 마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혈기 넘치는 그의 얼굴이 환해지며 부드럽게 풀렸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건 나로서도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니네. 하지만 자네는 간호사 체질이 아니지 않은가. 나만큼이나 자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테고 말이야."

그가 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섣불리 추측만 할 뿐,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결론 내리려던 찰나, 그가 말을 이었다. "잠시 이쪽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는 나를 작은 진료실로 안내하더니, 미안함을 표하며 보상이라도 하듯 금화 한 닢을 엄숙하게 내밀었다. 나 역시 그 엄숙한 태도에 맞춰, 마치 주머니에 금화가 한 닢도 없는 사람처럼 아주 정중하고 감사하게 그 돈을 챙겼다. 사실 내 몸 어딘가에는 이미 금화 쉰 닢이나 들어있었지만 말이다.

이 선량한 의사 선생님은 첫 만남 때 그토록 까다롭게 따지던 나의 사회적 지위를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나를 신

사로 대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들어설 때 사진 뒤로 슬쩍 밀어 넣는 커다란 술잔을 보니 기억력이 좋아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가기 전에 꼭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의사의 매트 위에서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다. "매튜린 씨가 정말로 아픈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을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테오발드 박사는 마치 교관의 호령을 들은 신병처럼 몸을 꼿꼿이 세우며 마음을 다잡았다.

"당연히 그렇고말고." 그가 톡 쏘듯 대꾸했다.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간호할 줄 아는 간호사가 꼭 필요한 형편이란 말이야."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내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가 내 말을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막막한 어둠 속으로 말이다.

이 점에 대해 품게 된 불안감만 아니었다면, 나는 이어지는 며칠 동안 꽤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입을 만한 옷도 갖춰져 있었고, 앞서 말했듯 주머니 곳곳에는 돈도 넉넉히 들어 있었다. 무엇보다 죽었다는 세상의 믿음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구속받는 사람과 늘 붙어 지낼 때보다,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훨씬 더 컸다.

래플스는 여전히 대담했고 나 역시 그를 아꼈다. 하지만 래플스가 범죄를 저지르며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을 때, 나에게는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모한, 아주 건전하고 평범한 유흥거리가 많이 남아 있었

다. 예를 들어, 매년 그가 없으면 신사팀의 전력이 약해지는 로즈 경기장에서 6펜스짜리 저렴한 좌석에 앉아 크리켓 경기를 관람하는 일조차 래플스에게는 불가능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법이 없었고, 외식을 하는 일도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을 때나 감수하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사실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래플스는 이제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간대에든 아무런 제약 없이 얼굴을 내밀 수 없었다. 게다가 이번 일을 겪으며 교훈을 얻은 래플스가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는 점도 나는 예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런 지속적인 불이익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래플스에게 적당한 것이라면 나에게도 충분히 괜찮았지만, 나는 이번 기회에 나 자신을 위해 "호사를 누리는 것"이 결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한섬 택시를 타고 리치먼드로 향하며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래플스가 원하는 교외의 은신처를 찾기에 리치먼드만큼 좋은 거점이 없다는 점에는 우리 둘 다 동의했다. 잘 갖춰진 고급 한섬 택시를 타고 길을 따라 이동하는 방식 또한 그곳까지 가는 가장 쾌적한 방법이었다. 일주일이나 열흘쯤 뒤면 래플스가 리치먼드 우체국을 통해 내게 편지를 보내오겠지만,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안락한 택시 좌석에 몸을 기대자 나쁘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거울을 제대로 보기 위해 몸을 약간 옆으로 틀었다. 택시의 경사 거울은 고무 타이어만큼이나 이 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장치였다. 서른

살이라는 나이에 스스로를 청년이라 부를 수 있다면, 사실 나는 딱히 못생긴 편도 아니었다. 래플스처럼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이나 독특한 표정의 매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평범함이 다행이었다. 래플스의 얼굴은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위험한 특징이 있었지만, 나는 런던 거리에 흔히 보이는 수많은 청년 중 한 명으로 묻혀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덕론자들이 들으면 믿기지 않겠지만, 감옥에 다녀왔다고 해서 내 얼굴에 겉으로 드러나는 낙인이 찍히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악이 내 얼굴에 따로 새겨져 있지 않다고 믿는 자만심이 있었다. 실제로 오늘 오후, 거울 속에서 나를 마주한 내 모습은 갓 세수한 듯 깨끗한 안색을 띠고 있어 놀라울 정도였고, 그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우울해질 지경이었다. 긴 휴가 끝에 그 아파트에서 기른 밀짚색 콧수염은 여전히 실망스러울 만큼 볼품없는 모양새였고, 왁스를 바르지 않으면 빛에 따라 잘 보이지도 않았다. 한 번 죄를 짓고 그 대가를 치른, 아니 몇 번이고 더 치러야 마땅한 악랄한 범죄자의 모습은커녕, 안목은 높지만 통찰력은 얕은 관찰자가 본다면 내 얼굴에서 그저 약간의 어리숙함 정도만 발견할 법했다.

어쨌든 그 얼굴을 보고 1등급 호텔의 문이 나에게 닫힐 것 같지는 않았다. 설령 그보다 훨씬 노골적인 증거가 우연히 드러나지 않는 한 말이다. 나는 꽤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마부에게 스타 앤 가터 호텔로 가달라고 일렀다. 리치먼드 파크를 가로질러 가라고도 덧붙였다. 마부는 그렇게 하면 거리가 훨씬 멀어지고 요금도 꽤 나올 거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가을이었기에 그곳의 단풍이 아주 아름다울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담한 범행을 앞둔 흥분 속에서도 이런 미학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나는 래플스에게서 배웠다.

내가 이 시절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굳이 덧붙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즐거움이 그렇듯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이다. 스타 앤 가터 호텔에서의 생활은 무척 안락했다. 호텔이 워낙 한산한 덕분에 왕자에게나 어울릴 법한 방을 쓸 수 있었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하며 (애국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만끽할 수도 있었다. 나는 품격 있는 공원을 지나 햄과 윔블던의 공유지를 거쳐 수 마일을 걸어 다녔다. 어느 날은 에셔의 공유지까지 발길을 옮겼는데, 그곳에 이르니 예전에 이 아름다운 동네의 저명한 주민에게 우리가 베풀었던 도움을 강렬하게 떠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래플스가 특히 추천했던 장소 중 하나인 햄 공유지에서, 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은신처를 찾아냈다. 여름 동안 방을 내놓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작은 오두막이었다. 인품이 훌륭하고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여주인은 겨울 동안 방을 빌리겠다는 내 요청에 무척 놀란 기색이었다. 하지만 나는 '작가'라는 직함만 당당하게 내세우면, 행동이나 차림새에서 나타나는 사소하고 해괴한 불규칙함조차 다 이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그런 기묘한 면모가 어느 정도 필요할 정도였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북향 방이 아니면 글을 쓸 수 없으며, 양고기 찹스테이크와 우유만 먹고 살고, 밤중에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때를 대비해 옷장에 차가운 햄을 항상 구비해 두어야 한다고 설명

했다. 그러자 나의 문학가적 정체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립되었다. 나는 방을 구했고, 내 요청에 따라 한 달 치 방세를 미리 지불했다. 그러고는 래플스가 언제 도착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주가 다 지나갈 때까지 방 안에서 지독하게 우울한 기분에 빠져 지냈다. 나는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이며, 갑작스럽게 양고기가 뉴질랜드산인지 물었다.

리치먼드 우체국을 세 번이나 찾아갔지만 소용없었다. 열흘째 되는 날에는 거의 매시간 우체국을 들락거렸다. 밤늦게 도착한 마지막 우편물까지도 나를 위한 소식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햄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리치먼드로 향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열한 시 10분 전, 나는 얼스 코트 역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곳의 아침은 형편없었다. 길게 뻗은 직선 도로 위로 울먹이는 듯한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얼굴에 닿을 때마다 축축하고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우리 집 골목으로 들어서며,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이 산처럼 거대하게 솟아 있고 굴뚝들이 안개 속에 몸을 숨긴 그 풍경을 보니, 햄(Ham)에 있을 때가 얼마나 훨씬 나았는지 새삼 실감 났다. 우리 집 입구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탈것 한 대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상인의 운반용 마차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영구차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입술 위로 하얗게 흩어지던 입김마저 멎어버렸다.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니 블라인드가 내려가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의사의 진료실 문은 열려 있었다. 노크를 하거나 벨을 누르지는 않았다. 진료실 안에서 마주한 의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얼룩덜룩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숙한 검은색 옷차림이었다.

"누가 죽었다는 거야?" 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대체 누가 죽었다고?"

테오볼드 박사가 불쑥 나타난 나를 보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충혈된 눈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붉게 번뜩였다. 그는 대답하는 데 한참이나 머뭇거렸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분명 나를 쫓아낼 생각이었던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그는 그러지 않았다.

"매튜린 씨." 그가 말했다. 패배한 사람처럼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았다. 사실 지난 몇 분 동안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이 순간을 두려워해 왔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예감했던 일이었다. 비록 마지막까지 내 확신을 애써 부정해 왔지만 말이다. 래플스가 죽다니! 결국 정말로 병사하고 만 것인가! 래플스가 죽었다. 이제 곧 장례를 치를 판이다!

"그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나도 모르게 비장한 자제력이 솟구쳤다.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 정말 큰 재앙을 마주하

면, 마음 한구석에 비축해 두었던 그런 냉정함이 불쑥 튀어나오곤 하는 법이다.

"장티푸스야." 그가 대답했다. "켄싱턴은 지금 온통 장티푸스 천지거든."

"내가 떠날 때 그는 이미 그 병에 걸려가고 있었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때 나를 떼어낼 수 있었던 거잖아!"

"이보게 친구,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경험 많은 간병인을 구해야만 했다네."

의사의 말투가 어찌나 달래는 듯 부드러운지, 나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기꾼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러자 문득 그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는 막연한 확신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게 정말 장티푸스였다고 확신해?" 나는 그의 얼굴을 마주하며 격하게 소리쳤다. "자살이거나, 아니면 살인이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말이야!"

지금 이 말을 글로 옮기다 보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건가 싶어 스스로도 의아할 따름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슬픔과 걷잡을 수 없는 의구심에 휩싸여 내뱉은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테오볼드 박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박사의 잘 빗어 넘긴 머리칼부터 티 없이 깨끗한 칼라에 이르기까지, 얼굴 전체가 새빨갛게 달아올랐으니 말이다.

"당장 길바닥으로 내쫓아 버릴까요?" 그가 외쳤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래플스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실례했습니다." 나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제게 참으로 친절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께 마음을 많이 쏟았고요. 제가 원래 그분과 같은 계층 출신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모양이군요."

"깜빡 잊고 있었네요." 테오볼드가 내 말투가 누그러진 것을 보고 안도하며 대답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쉿! 저기 그를 데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출발하기 전에 술이라도 한잔해야겠으니, 당신도 같이 하는 게 좋겠군요."

이번에는 술을 마시는 데 있어 조금의 가식도 없었다. 꽤 독한 술이었지만, 내 술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독했을 것이다. 내 경우, 술기운 덕분에 그다음 한 시간 동안은 차라리 다행이었다. 그 시간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어느 순간 내가 한섬 택시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택시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문득 의아해하다가, 다시금 참혹한 현실을 마주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를 그토록 멍하게 만든 것은 술보다는 현실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다음 기억은, 파헤쳐진 무덤 속을 내려다보던 장면이다. 무덤에 새겨진 이름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격정적인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물론 그 이름은 내 친구의 본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사용해 온 이름이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여 멍하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서히 실감하게 만드는 그 참혹한 광경에서 차마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팔꿈치 근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온실에서 갓 꺾어온 듯한 꽃들이 내 시선이 머물던 곳 위로 거대한 눈송이처럼 흩뿌려졌다.

고개를 들자, 짙은 상복을 입은 위엄 있는 여인이 내 곁에 서 있었다. 얼굴은 촘촘한 베일로 가려져 있었지만, 워낙 가까이 있었기에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세상이 자크 세이야르라고 부르는, 그 압도적인 미모의 여인이었다.

그녀에게 동정심 따위는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그녀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막연한 확신이 들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여인은 그녀뿐이었다. 모여 있는 사람이 채 대여섯 명도 되지 않았는데, 꽃을 가져온 사람도 오직 그녀 하나였다.

우울한 의식이 끝났다. 자크 세이야르는 장례식용으로 따로 빌린 듯한 마차를 타고 떠났다. 나는 그 마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안개 너머로 내 마부에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제야 내가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일러두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내가 마지막으로 자리를 뜨려던 참이었다. 이미 마지막 작업을 시작한 무덤 파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발을 떼었을 때,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가볍지만 단호하게 짚었다.

"묘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군요."

누군가 속삭였다. 딱히 불친절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말투였다.

“본인 전용 마차를 타고 조용히 따라오겠습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외쳤다.

장례식 내내 그자가 주변을 서성거리던 모습이 이제야 떠올랐다. 나는 무의식중에 그를 장례식장 책임자로 생각했다. 실제로도 딱 그런 차림새였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다른 사람일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 이름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가 가엾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금방 짐작하시겠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토록 강렬한 만족감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다. 슬픔을 잊게 해줄 새로운 자극이 생겼고, 머릿속을 채울 고민거리도 생겼다. 무엇보다 햄에 있는 그 작은 집으로 홀로 돌아가야 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면하게 된 것이다. 마치 팔다리 하나를 잃은 와중에 누군가에게 얼굴을 세게 얻어맞아, 그 충격 덕분에 더 큰 통증을 잠시 잊게 된 기분이었다.

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한섬 택시에 올라탔다. 나를 붙잡은 사내는 내 뒤를 바짝 따라붙더니,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마부에게 직접 행선지를 일렀다. 내가 들은 말은 "역"이라는 단어뿐이었기에, 이번에도 다시 보

우 스트리트 경찰서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이어지는 동행자의 말, 아니 그가 내뱉은 말투는 내가 헛된 추측을 이어갈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매튜린 씨라니요!" 그가 말했다. "정말로 매튜린 씨란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이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가 누구였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자가 누구였지?" 나는 도전적으로 물었다.

"너도 알 거 아냐." 그가 말했다. "지난번에도 그놈 때문에 감옥에 갔었잖아. 그때도 그놈이 제일 좋아하던 이름이 래플스였지."

"그건 그 사람의 본명이었어요." 내가 분개하며 말했다. "게다가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고요."

나를 붙잡은 자는 그저 껄껄 웃을 뿐이었다.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이미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다고!"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격앙된 태도로 그에게 말을 내뱉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래플스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성이 본능을 이기지 못한 탓이었다. 친구의 장례식을 치른 직후라, 나는 마치 그가 아직 살아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죽은 친구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려 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나는 내 착각임을

깨달았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울컥 차올랐다. 그러나 내 곁에 있던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대놓고 웃어젖혔다.

"하나 더 말해줄까?" 그가 말했다.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그자는 그 무덤 밑에 있지도 않아! 죽긴 누가 죽었다는 말인가, 당신이나 나나 다름없이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야! 가짜 장례라니, 이건 그자가 저지른 가장 최근의 악행이야!"

애를 써봤자 입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애를 쓸 생각조차 없었다. 말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확실한지 되묻지도 않았다. 나 자신이 이미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답을 알고 난 뒤의 수수께끼가 그렇듯, 모든 상황이 너무나 명백하게 다가왔다. 의사의 경고, 그의 파렴치한 탐욕, 꾸며낸 병세, 그리고 나의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마지막 해고조차도 아직은 내 기쁨을 망치지 못했다. 그 모든 일은 단 하나의 핵심적인 사실을 비추는 작은 촛불에 불과했다. 그 사실은 마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살아있어!" 내가 외쳤다.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아.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거면 충분해!"

결국 나는 그들도 그를 잡아갔는지 물었다.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어떤 대답이 돌아오든 별로 상관없었다. 내 머릿속은 이미 우리가 각자 형을 얼마나 받을지, 그리고 출소할

때쯤이면 우리 나이가 몇 살이나 되어 있을지 계산하느라 분주했으니까.

그때 동행하던 이가 모자를 뒤로 젖히더니,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그가 내놓은 대답은 다름 아닌 래플스의 얼굴이었다. 그는 목소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주 훌륭하게 변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변장이 워낙 허술한 탓에, 처음에 너무 비참한 나머지 그를 다시 쳐다볼 생각조차 못 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자크 세이야르가 래플스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이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래플스는 의사에게 천 파운드를 지불했고, 의사는 자기와 똑같은 부류의 '간호사'를 자기 책임으로 따로 고용했다. 래플스는 왠지 모르게 나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였다. 그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나를 해고해야 한다고 고집까지 피웠다. 래플스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그 세부 사항들은 유머러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하게 다가왔다. 한때 그는 정말 대담할 정도로 약물을 투여받았는데,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만큼 죽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사후에 간호사와 '헌신적인 주치의'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말 것"을 엄격히 지시해 두었다. 이 조항 덕분에, 오로지 이 상황을 위해 구입한 수많은 책이 켄설 그린 묘지에 불경하게나마 매장될 수 있었다. 래플스는 나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만약 내가 장례식에 불쑥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즉 래플스가 자신의 마지막 확인을 위해 참석했던 그 장례식에 말이다, 그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

켰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설명을 들으며 나는 마침내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을 얻었고, 잠시 후 우리는 패딩턴의 프레드 거리로 접어들었다.

"분명히 보우 스트리트라고 하지 않았나요?" 내가 말했다. "지금 저와 함께 리치먼드로 바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 래플스가 말했다. "사실은 장비부터 좀 챙겨두려 했어. 그래야 마치 오랫동안 야생에서 떠돌다 돌아온 잃어버린 형제처럼, 아주 당당하고 깔끔하게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동안 편지를 못 썼던 거야. 행사가 생각보다 하루 늦게 열리더라고. 안 그래도 오늘 밤에 편지를 쓰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이제 우린 어쩌면 좋지?"

그가 택시비를 지불할 때, 나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동안 식민지 형 행세를 최대한 우려먹고 있었단 말이야!"

"아, 짐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파도가 선실 안으로 들이닥쳐 옷가지들을 전부 망쳐놓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육지로 가져올 만한 게 하나도 없었을 거야. 기차 안에서 천천히 따져보자고." 그가 말했다.

잘못된 집

내 형 래프는 지금 햄 커먼 언저리에서 나와 함께 지내고 있다. 그는 호주에서 돌아왔는데, 그곳의 강렬한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된 탓인지

눈에 묘한 이상이 생겨 있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갈 때는 반드시 색이 들어간 안경을 써야만 했다. 보통 식민지 거주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건강한 피부색은 아니었고 오히려 유난히 창백한 편이었는데, 아마 항해 기간 대부분을 선실 안에만 머물렀던 모양이다. 벌써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니, 거친 야생에서의 삶이 본래 강건했던 그의 체력을 결국 갉아먹은 것이 분명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내 형을 애지중지하던 집주인 아주머니는 형의 건강을 몹시 걱정하며 동네 의사라도 불러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래프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끔찍한 말들을 늘어놓더니, 앞으로는 절대로 의사를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못 박아 아주머니를 겁먹게 만들고 말았다. 나는 "식민지 사람들"이 가진 편협한 편견과 거친 말투에 대해 아주머니께 사과드려야 했지만, 다행히 인심 좋은 아주머니는 금세 마음을 풀었다. 아주머니는 첫눈에 내 형에게 반해버린 터라, 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다. 아주머니가 형을, 그리고 형도 아주머니를 "래플스 씨"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형제는 생전 처음으로 그를 "래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래선 안 돼.” 그가 나에게 말했다.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이잖아.”

“다 내 잘못이야! 분명 나한테 들었을 거야.” 나는 자책하며 말했다.

“그게 래프를 줄여 부르는 거라고 꼭 말해줘야 해.”

“하지만 더 길잖아요.”

“돈이 모자라요.” 그가 말했다.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랄프 씨'에 대해 듣는 일이 많아졌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마음에 들어 하고 어떤 것을 꺼리는지 말이다. 게다가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훌륭한 신사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 이야기에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나도 모르게 "이보게, 랄프!"라고 친근하게 부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음 그곳을 발견했을 때 말했듯이, 그곳은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오두막이었다. 그곳에서 우리의 섬세한 친구는 빠르게 기운을 되찾았다. 물론 공기까지 이상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11월부터 3월까지 늘 변함없이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았으니까. 하지만 랄프에게는 밤공기 말고 다른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고, 나머지는 자전거가 해결해 주었다.

우리는 스스로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혔다. 오후가 가장 짧았던 시절, 리치먼드 공원을 가로질러 달렸던 초기 시절의 라이딩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마음먹고 하루를 통째로 비우면 비교할 데 없이 멋진 리플리 로드에서도 달렸다. 래플스는 비스턴 험버를 탔고 나는 로열 선빔이면 충분했지만, 그는 반드시 둘 다 던롭 타이어를 써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인 모양이야. 리플리에서 코밤까지 오는 내내 도로를 유심히 살폈는데, 던롭 마크가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이 보이

더라고. 정말이지, 타이어마다 제각기 특유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지. 우리 흔적이 유독 눈에 띄어서는 안 되잖아? 던롭은 방울뱀 같고, 팔머는 전신주 전선 같은 자국을 남기지만, 우리 방식에는 역시 뱀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템스 계곡의 리치먼드 일대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속출하던 그해 겨울의 일이다. 도둑들이 매번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세상에 말하지 않은 사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내가 알기로 그들은 때때로 도보로 움직이기도 했다. 우리는 연이어 성공을 거두는 이 범죄의 행보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래플스는 자신의 충직한 노부인에게 최근 지역 신문 기사를 읽어달라고 부탁하곤 했고, 그동안 나는 내 방에서 글쓰기에 몰두했다. 사실 나는 꽤 많은 양의 글을 써 내려갔다. 우리는 도둑들의 흔적을 쫓아보려고 밤중에 직접 자전거를 타고 나가기도 했는데, 돌아올 때면 언제나 화로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우리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삶을 살고 있었다. 안개 자욱한 밤은 어쩌면 도둑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도둑들의 성공이 늘 일정했던 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히 엄청난 규모도 아니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평소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귀중품을 잃었다며 엄살을 부리곤 했다. 도둑들에게는 실패가 잦았고, 한 번은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야 했을 안개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고, 어쩌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려줄 테니,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열광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강가 근처 높은 지대에는 딱 적당한 집이 한 채 있었다. 집 앞 계단으로는 한쪽 문으로 들어와 다른 쪽 문으로 나갈 수 있는 꽤 긴 진입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었다. 두 대문 사이에는 반달 모양으로 관목들이 심겨 있었고, 계단 왼쪽에는 온실이, 오른쪽에는 하인용 출입구와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었다. 식료품 저장실 창문도 바로 그 근처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그 집은 묵직한 시계 줄을 차고 다니는, 아주 부유한 주식 중개인의 저택이었다. 한눈에 봐도 아주 좋은 사냥감이었다.

만약 내가 그 주식 중개인이었다면, 이 집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 우선 이 집은 꽤 근사한 저택들이 늘어선 거리의 일부였다. 즉, 옆집과 붙어 있는 구조였다. 게다가 바로 옆집에는 입시 과외 학원이 들어서 있었다. 교외 지역에는 이런 식의 학원들이 종종 생기곤 한다. 그곳 학생들은 평소에 니커보커스 바지를 입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돌아다니지만, 토요일 밤만큼은 예외였다. 토요일 밤이면 학생들은 마지막 열차를 타고 돌아오는 서로를 집까지 배웅하느라 분주했다.

우리가 그 소년들을 감시할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 방식이나 관습은 관찰할 가치가 충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리 전체가 밤새 깨어 있을 법한 밤은 일부러 고르지 않았다.

우리가 선택한 그날 밤은 템스 계곡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짙은 안개가 자욱했다. 래플스는 출발하기 전, 자신의 비스턴 험버 자전거 도금 부위에 바셀린을 골고루 펴 발랐다. 우리의 다정한 집주인 아주머니는 우리 둘을 극진히 챙겨주며, 고약한 좀도둑들을 마주치는 일 없이 무사

히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도둑을 잡은 이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아주 유용할 것이라는 점은 물론, 명예와 영광 또한 말할 것도 없었다. 우리는 만약 성공한다면 아주 넉넉한 사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주머니는 이 계획을 다른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발설하여 우리의 아이디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자전거를 타고 햄 들판을 가로질러 킹스턴을 지나 서비턴으로 향했을 때는 자정 무렵이었다. 안개에 싸인 들판은 마치 아케론 강가처럼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그렇게 테딩턴 다리를 건너 나아갔다.

열 집 중 아홉 집은 왜 하필 식료품 저장실 창문이 가장 취약한 지점인지, 나는 종종 의구심이 든다. 우리 집도 열 번째 사례가 될 뻔했다. 문제의 창문에는 나름대로 창살이 달려 있었지만, 제대로 된 물건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래플스가 유일하게 허락하는 창살은 석조 벽면 안으로 깊숙이 박힌 종류뿐이다. 창틀 안에 고정된 창살은 그저 나무에 나사로 박혀 있을 뿐이라, 수고를 좀 들이고 시간만 있다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 창살이 달린 창문은 대개 다른 잠금장치가 허술하기 마련인데, 이 집도 그 어리석은 법칙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펜나이프 하나로 툭 밀어 넣으니 일이 아주 쉽게 풀렸다. 나는 지금 집주인들에게 아주 값진 조언을 해주고 있는 셈이니, 아마 비평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강변 교외에 사는 부유한 주식 중개인이었다면, 반드시 이 점들을 확인했을 것이다. 다만 좋은 조언을 건네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앞마당 반원형 관목 사이에 기계들을 그대로 두었으며, 래플스가 등불에 암막 슬라이드

를 아주 기발하게 설치해 둔 덕분에 불을 켜둔 채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창살 밑부분의 나사만 풀면 충분했다. 나사를 푼 뒤 양옆으로 힘껏 비틀어 제치자 창살이 벌어졌다. 우리 둘 다 나이가 들었다고 살이 찐 편은 아니었기에, 불과 몇 분 만에 창살 사이로 몸을 구겨 넣어 싱크대로 들어간 뒤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아주 소리 없는 작업은 아니었지만, 일단 식료품 저장실 안으로 들어서자 우리는 더 이상 눈먼 생쥐가 아닌, 아주 영리한 생쥐가 되어 움직였다. 벽에는 가스등이 달려 있었지만 우리는 굳이 건드리지 않았다. 요즘 래플스는 가스등보다 훨씬 나은 광원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가 거의 특허라도 낸 듯 사용하는 휴대용 전등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 편리한 발명품인 전기 손전등에, 래플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검은 덮개를 씌워 개조해 두었다. 그가 나사를 푸는 동안 나는 창살 틈으로 손전등을 비춰주었다. 이제 래플스는 열쇠 구멍에 손전등을 갖다 대었다. 열쇠 구멍 반대편에는 열쇠가 꽂힌 채 돌려져 (잠긴 채) 있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 침묵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가면을 썼다. 템스 계곡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들이 모두 범죄자 차림을 한 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오늘 밤 전까지는 우리가 가면을 쓴 모습조차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으니까. 래플스가 은밀하게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오늘 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 번이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주겠다.

문 뒤쪽에서 열쇠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집게 도구도 있다. 하지만 그 도구는 생각만큼 다루기가 쉽지 않다. 래플스는 차라리 날카로운 칼과 문짝 모서리를 이용하는 쪽을 선호했다. 열쇠와 가장 가까운 모서리 쪽의 문짝을 뚫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얇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을 사용하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으니 가능한 한 칼을 썼다. 물론 시간이 몇 분은 걸리는 작업이다. 구멍이 충분히 커져서 래플스의 손과 손목이 들어갈 정도가 되기 전까지, 내가 손에서 손으로 전등을 옮겨 쥐었던 순간이 기억날 정도다.

그럴 때면 그는 늘 좌우명처럼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진작에 언급했더라면 좋았을 말이다. 사실 나는 내가 도왔던 노골적인 절도 사건을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묘사하지 않았다. 그마저도 당시에는 내가 도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 기록을 가장 엄숙하게 연구하는 학자라 할지라도, 내가 언급한 그 첫 시도 이후로 우리 일행이 수많은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A. J. 래플스와 함께 너무나 많은 금고를 털어왔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내게 속삭이곤 했다. “승리냐, 아니면 워뭄 스크럽스 교도소행이냐, 버니!” 때로는 워뭄 스크럽스 대신 포틀랜드 빌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 다 아니었다. ‘승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던 그 순간, 그의 입술은 하얗게 질리며 패배의 첫맛에 벌어지고 말았다.

"내 손이 잡혔어!" 래플스가 숨을 헐떡이며 내뱉었다. 그의 눈동자 주위로 흰자위가 훤히 드러났다. 생각보다 흔치 않은 광경이었다.

그와 동시에 문 너머에서 발을 끄는 소리와 흥분한 젊은이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래플스의 손목 주위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다.

"잘했어, 비피!"

"그를 붙잡아!"

"우리 영락없는 비피구먼!"

"비피가 그를 잡았어!"

"나도 그래, 나도 그렇다고!"

래플스가 남은 한 손으로 내 팔을 꽉 붙잡았다. "꼼짝없이 잡혔어." 그가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문 너머로 쏴버려!" 내가 재촉했다. 만약 내게 무기라도 있었다면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무기가 없었다. 그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하는 건 언제나 래플스의 몫이었다.

"안 돼, 애들이 있어. 집을 잘못 찾았어!" 그가 속삭였다. "빌어먹을 안개 같으니, 안개 때문에 망했군. 하지만 버니, 기회가 있을 때 어서 나가게. 내 걱정은 말고. 이제 내 차례야, 친구."

그는 다정한 작별의 인사를 건네듯 내 손을 꽉 쥐었다. 나는 온몸을 떨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떠나기 전 그의 손에 손전등을 쥐여 주었다.

"나가! 네 차례야!"

그래, 나가야지. 하지만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만 나갈 뿐이다. 내 차례였으니까. 내 차례였단 말이다. 그의 차례가 아니라 바로 내 차례였다. 래플스라면 문틈 사이로 뻗어 나온 손에 붙잡힌 채 나를 내버려 두었을까? 만약 내가 래플스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행동이었다.

나는 우선 식료품 저장실 창문으로 머리부터 뛰어내려 네 발로 땅을 짚으며 착지했다. 하지만 몸을 일으켜 손바닥과 반바지 무릎에 묻은 자갈을 털어내면서도, 정작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다 앞문까지 절반쯤 달려갔을 때야 비로소 얼굴에 쓰고 있는 이 끔찍한 크레이프 가면이 떠올랐다. 나는 문이 벌컥 열리고 발이 현관 계단에 닿는 순간, 가면을 거칠게 벗어 던졌다.

"그 사람, 옆집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맨발을 드러낸 채 파자마 차림으로 서 있는, 앳된 얼굴의 무리에게 외쳤다.

"누구? 누구라고요?" 그들은 내게 길을 내어주며 되물었다.

"어떤 녀석이 당신네 집 창문으로 머리부터 쑥 들이밀고 들어오더군."

"또 다른 조니, 또 다른 조니!" 천사들이 합창하듯 외쳤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불빛을 보고 멈췄소. 아니, 거기 붙잡고 있는 게 뭐요?"

그들의 손에 붙잡힌 것이 래플스의 손이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홀 안에서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통통한 체구의 소년 하나가 온 힘을 다해 래플스를 붙들고 있었다. 소년은 한 손으로는 손목을 움켜쥐고, 다른 손은 손바닥을 맞댄 채 무릎으로 벽판을 단단히 지탱했다. 다른 한 명은 생색만 낼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나머지 서너 명은 잠옷 차림으로 이리저리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어찌 됐든 숫자는 네 명이 한 명을 상대하는 격이었다. 나는 래플스가 내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고, 다시 한번 소리쳤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영감이었음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목소리 좀 낮춰!"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속삭였다. "위층 사람들이 깨면 안 돼. 이건 우리 판이라고."

"그럼, 한 명을 잡으신 모양이군요." 요청받은 대로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원하신다면 그 친구도 드릴게요. 아마 다친 것 같더군요."

"저놈이다, 잡아라!"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가 담을 넘은 것 같은데요—"

"자, 어서들 가자고, 친구들! 어서!"

사람들이 홀 문 쪽으로 소리 없이 우르르 몰려갔다.

"제발, 다들 나를 버리지 말게나!" 래플스를 붙잡고 있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영웅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둘 다 가져야 해, 비피!"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봐요," 내가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내가 곁에 있어 줄게요. 밖에 친구가 한 명 더 있으니, 그 친구도 데려오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용맹한 비피가 말했다.

홀은 이제 비어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어떻게 들었나?" 나는 그를 훑어보며 물었다.

"우린 저 안에서 술도 한잔하고, 내기 카드 게임도 하며 시간을 보냈소."

비피가 커다란 머리를 까딱하며 열린 문 쪽을 가리켰다. 그 순간 곁눈질로 불빛에 반사되어 번뜩이는 유리잔을 보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내가 대신할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제 고집을 꺾을 수 없겠군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그의 뜨겁고 매끄러운 살결 속으로 파묻힐 정도였기에, 목이 졸리는 소리조차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오지 못했다. 아,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럽지는 않다. 그야말로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였다. 하지만 나는 래플스가 붙잡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내 유일한 소망은 그를 구해내는 것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나는 그가 힘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잡아당겼다. 마침내 억세던 손들이 하나둘 힘이 풀리더니, 오랫동안 버티느라 기운이 다 빠진 채 허공을 더듬으며 나를 찾아 헤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는가?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해 하얗게 질렸던 래플스의 손이 붉게 달아오르고 손목에는 핏덩이가 맺혀 있었음에도, 그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없이 손을 위로 뻗어 자물쇠의 열쇠를 돌리고 있었다.

"진정해, 버니!"

비피의 귀가 파랗게 질린 것이 보였다. 하지만 래플스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다. "이제 그만 숨 좀 쉬게 둬." 래플스가 불쌍한 청년의 입 위에 손수건을 갖다 대며 말했다. 그의 다른 한 손에는 빈 약병이 들려 있었다. 불쌍한 청년이 내뱉은 처음 몇 번의 거친 숨소리는, 그것으로 그를 한동안 의식 잃게 만들고 말았다.

아, 하지만 정말이지 악랄한 짓이었다. 특히 내 역할이 더욱 그랬다. 청년이 너무나 쉽게 의식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 이미 상태가 매우 나빴던 게 분명했다. 나는 이 일을 기록하며 뼈저린 참회를 하고 있으며, 이 행위가 얼마나 비겁한 짓이었는지 그 비열함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먼저 말해두고 싶다. 글을 쓰다 보니, 당시의 내 모습이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까지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건대, 나는 결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순진한 청년을 목 졸라 죽일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저 래플스를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해내고 싶었을 뿐이다. 어찌 됐든,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 일에 대해 단 한 마디도 고치지 않을 것이며, 더는 변명하며 징징거리지도 않겠다.

우리는 용감한 그 친구를 들어 올려 래플스가 있던 식료품 저장실 자리에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문을 잠근 뒤 열쇠를 벽판 틈 사이로 밀어 넣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때였다. 하지만 래플스가 그토록 신뢰하던 그 지긋지긋한 가면이 다시금 우리 둘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우리가 계단에 다다랐을 무렵, 밖이 아니라 안쪽에

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래플스가 고개를 돌리기 직전, 나는 간신히 그 저주스러운 가면을 그의 얼굴에서 떼어낼 수 있었다.

금발 콧수염을 기른 건장한 남자가 계단에 서 있었다. 그 역시 아이들처럼 잠옷 차림이었다.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가 물었다.

"댁의 저택에 침입을 시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나는, 여전히 영감의 날개를 타고 고양된 기분으로 말했다.

"댁의 아드님들이—"

"제 제자들입니다."

"그렇고말고요. 그 소리를 듣고는 도둑들을 몰아낸 뒤에 바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맡는 건가요?" 덩치 큰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당신네 식료품 저장실 창문으로 머리부터 쑥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담을 넘어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숨을 헐떡이는 소년 하나가 달려 들어왔다.

"그놈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럼 사실이라는 말이군." 가정교사가 말했다.

"저 문을 좀 봐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숨을 헐떡이던 소년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고, 곧이어 그 소년만큼이나 숨이 가쁜 다른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비피는 어디 있어?" 그가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비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 녀석들, 정말 못 말리겠군!"

과외 선생이 외쳤다.

"너희들 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냐? 그리고 이 신사분들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게냐? 죽기 싫으면 일단 다 들어오너라. 교실에 불빛이 켜져 있는 건 물론이고, 불빛 그 이상의 소란이 들리는구나. 설마 지금 다 같이 술판이라도 벌이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아주 순진한 놈입니다, 선생님." 나보다 훨씬 짙은 콧수염을 기른 건장한 청년이 말했다.

"자, 올퍼트. 애들이 다 그렇지 않나. 서로 탓하기 전에 우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해 보게."

그 오래된 격언이 내게 준 첫 번째 경고였다. 나는 두 청년이 눈썹을 치켜뜨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들의 듬직하고 여유로운 스승은 마치 세상 물정 잘 아는 신사끼리 나누는 눈빛처럼, 장난기 어린 시선으로 나를 안심시키듯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 그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란 어려웠다. 그럼에도 나는 그곳을 서둘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젊은 올퍼트는 아주 솔직하고 매력적인 태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 시간 정도 낮잠을 자며 담배를 피우러 내려왔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게다가 잔에 든 것이 위스키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아마도 온기를 찾으려 다시 교실로 모두 돌아간 모양이다. 하지만 래플스와 나는 니커보커스 바지와 노퍽 재킷 차림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밖에 남게 되었다. 침실용 슬리퍼를 신은 군사 과외 교사는 문턱에 서서 이쪽저쪽을 살피고 있었다. 그 남자를 보면 볼수록 나는 그가 마음에 들면서도, 동시에 그가 두려워졌다. 지금까지 그가 느낀 가장 큰 불만은 아이들이 소란을 듣고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점, 즉 즐거운 놀이에서 자신을 빼놓을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 선생님." 올퍼트가 말을 맺었다. "우리는 비피 스미스가 자기 손을 부여잡고 매달려 있는 채로 떠났고, 이 신사분도 그 옆에 같이 있

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분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군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린 가운데 나는 외치듯 말했다. 그사이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제가 아까 길가에 있는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는 걸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랬어요." 안에서 아주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글쎄요, 제가 그와 함께 돌아왔을 때 상황은 지금 보시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보아하니 남자의 힘이 소년을 압도한 모양입니다만, 소년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는지 아니면 밖으로 도망쳤는지는 저도 당신만큼이나 모르는 일입니다."

"그 아이 성격에 어느 쪽으로든 도망칠 리가 없는데." 가정교사가 맑고 푸른 눈을 치켜뜨며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만약 그가 추격하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가 손을 놓는 일 따위는 결코 있을 수 없었다."

"비피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올퍼트가 말을 거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그 자리를 맡긴 거고요."

"그가 식료품 저장실 창문으로 따라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내가 다급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잖아요." 한 소년이 끼어들며 말했다.

"내가 한번 살펴보지." 가정교사가 말했다.

열쇠는 이미 자물쇠에서 빠져나갔고, 안에는 정신을 잃은 청년이 쓰러져 있었다! 열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겠지. 아니, 그 남자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쫓고 있는 상황이라, 코끝에 클로로포름 냄새가 스치는 것만 같았다.

신음 소리가 들린 것 같아 나는 곧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비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이지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푸른 눈과 금빛 콧수염, 그리고 겉보기만큼 바보 같지 않은 저 건장하고 태평한 부류의 인간들을 질색하게 되었다. 소년들 앞에서는 배짱 좋게 버텼지만, 처음 마주한 성인 남성은 내 상대가 되지 않았다. 마치 등 뒤에 래플스가 없는 것처럼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려갔다. 사실, 나는 그를 잊고 있었다. 이 일을 내 힘으로 완수하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나 컸던 탓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의 다정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감미로운 음료처럼 귓가에 들려왔을 때 나는 오히려 실망감마저 느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금 돌이켜봐도 참 흥미롭다. 지금까지는 과외 교사가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래플스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가로

챘다. 사람들은 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잠깐만요!" 그가 말을 꺼냈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가정교사의 시선이 거두어졌다.

"재미있는 일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럴 수도 없지요." 강사가 강조하며 말했다.

"그런데 자전거를 밖에 두고 왔군요. 제 건 비스턴 험버 모델이고요." 래플스가 말을 이었다. "괜찮으시다면, 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기 전에 얼른 안으로 들여놓죠."

그는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 역시 그가 보여준 자제력을 필사적으로 흉내 내며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그 영리한 스승도 아주 잠깐은 속아 넘어간 듯 보였으나, 내가 계단에 다다랐을 때 그가 학생들에게 밖에서 혹시 자전거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이 승부를 갈랐다. 우리가 관목 숲에 있을 때였다. 래플스가 손전등을 꺼내 불을 밝히고 있는 찰나, 식료품 저장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자전거를 챙겨 들고 곧장 진입로로

달려 나갔다. 계단 아래에서는 그 남자와 소년들이 뒤엉켜 정신없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가까운 쪽 문으로 자전거를 몰았다. 문이 양쪽 다 닫혀 있었기에, 우리는 간신히 문을 통과한 뒤 뒤쪽에서 문을 쾅 닫아걸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래플스가 불필요할 정도로 용감하게 문을 버티고 서준 덕분에, 문이 다시 열리기 전 나조차도 올라탈 수 있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내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보고 싶어 했기에, 결국 내가 앞장서서 길을 이끌어야 했다.

그날 밤은 안개가 자욱했다. 모든 사건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 안개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집들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다고 언덕 꼭대기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는 내 처지라면 누구나 그랬을 법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 래플스는 자기가 직접 했으리라 말하긴 했지만, 그건 그 특유의 너그러움이 섞인 농담일 뿐이었다. 사실 래플스는 결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한 행동이라곤, 자칫하면 퇴로가 막힐 수도 있었던 다른 쪽 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돌려 죽기 살기로 페달을 밟는 것뿐이었다. 그것도 무려 오르막길을 향해서 말이다!

"세상에!"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돌릴 수 있겠나?” 래플스가 충직한 추종자처럼 뒤따르며 물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계속 가. 어쩔 수 없었던 일이잖아. 하지만 정말이지, 지독하게 가파른 언덕이군!"

"자, 저기 온다!"

"어디 마음대로 하라지." 래플스가 말하며 손에 든 전등을 휘둘렀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빛이었다.

어둠 속에서는 언덕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맨발로 달려오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나는 이 언덕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언덕을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안개 너머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장한 강사의 목소리까지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아, 내가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만들다니!"

나는 핸들바 위로 머리를 처박은 채 신음하며, 온 몸의 무게를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번갈아 실으며 간신히 버텼다. 래플스를 힐끗 쳐다보았다. 손전등의 하얀 불빛 아래 비친 그의 모습은 마치 체육 대회라도 나간 사람처럼, 오로지 발목의 힘만으로 능숙하게 자전거를 몰고 있었다.

"내 평생 이보다 더 짜릿한 추격전은 없었네." 그가 말했다.

"전부 내 잘못이야!"

"이보게, 버니. 세상이 무너져도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었지!"

그는 나를 앞질러 가려 하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나를 추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년 시절부터 그런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능수능란하게 해내던 그였으니까. 하지만 그는 굳이 내 뒤를 바퀴 하나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따라왔다.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이 달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오른쪽에서 래플스가 손전등을 비추며 휘둘렀다. 어둠 속에서 얼굴 하나가 불빛을 향해 튀어나왔다. 달궈진 필라멘트가 비치는 두꺼운 유리 전구에 부딪힌 것은, 부러운 콧수염을 기른 올퍼트라는 소년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유리가 박살 나는 굉음과 함께 소년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드러난 전구의 필라멘트는 마치 빨갛게 달궈진 소리굽쇠처럼 눈앞에서 번뜩이며 굵게 일렁였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중 한 놈이 내 옆으로 슬금슬금 따라붙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자, 녀석이 내 자전거 왼쪽 손잡이를 낚아채려 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오른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는 바람에 래플스를 울타리 너머로 날려 버릴 뻔했다. 래플스가 바퀴 하나 길이만큼 떨어져 있던 덕분에 무사했다. 하지만 내 뒤를 쫓던 소년은 달리기 실력이 좋았다. 녀석은 다시 나를 따라잡았고,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잡을 기세였다. 바로 그때, 선빔 자전거가 가볍게 나아갔다. 양발에 온 체중을 실어 힘차게 페달을 밟자 드디어 언덕 꼭대기를 넘어섰다. 브레이크를 잡으려 손을 뻗는 사이, 회색빛

도로가 내 발밑에서 어지럽게 뒤로 밀려 나갔다. 뒤를 돌아보니 래플스는 페달 밟기를 멈춘 상태였다. 고개를 더 깊숙이 돌려 뒤를 확인하자, 잠옷 차림의 소년들이 마치 위켓키퍼들처럼 무릎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한 거구의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가로등을 마지막으로, 시야가 끊겼다.

우리는 강을 따라 내려가 템스 디튼을 지나 에셔 역까지 달렸다.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자, 임버 코트 근처의 어두운 구간을 지나 몰지 쪽의 밝은 곳으로 들어섰다. 부시 파크에 접어들자 우리는 마치 한가로운 신사들처럼 여유롭게 페달을 밟았다. 전등은 환하게 밝히고 고장 난 손전등은 꺼서 멀리 치워 두었다. 커다란 정문은 진작에 닫혀 있었지만, 옆에 있는 다른 문으로는 자전거를 몰고 지나갈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더 이상의 소동도 없었다. 난로 위에는 우리가 마시려던 커피가 여전히 따스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건 설리번을 피울 만한 자리지." 래플스가 말했다. 그는 이제 그런 자리를 위해 설리번 궐련을 아껴 두고 있었다. "세상에, 버니! 우리 인생을 통틀어 이보다 더 짜릿한 밤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짜릿했는지 알아?"

"그 언덕길을 타고 올라갔단 말인가요?"

"그건 생각지도 못했어."

"손전등을 몽둥이로 쓰시겠다?"

"이보게, 버니! 정말 용감한 친구였어. 때리기가 정말 싫었어."

"알고 있어." 내가 말했다. "네가 우리를 그 집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했는지 말이야!"

"아니야, 버니." 래플스가 담배 연기로 고리를 만들어 내뿜으며 말했다. "그보다 훨씬 전이었어, 이 죄 많은 친구야.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한 일 중에는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내가 쑥스러운 듯 물었다. 그가 정말로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이제야 왜 내가 이 이야기를 그토록 과장되고 변명할 여지 없는 열정으로 늘어놓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질 것이다. 내게는 이보다 더 나은 이야깃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연대기 속에서 이 이야기는 유일하게 소중한 단 하나의 보물과도 같다. 하지만 래플스는 이 이야기를 훨씬 더 상스러운 이름으로 불렀다.

"그건 버니의 신격화나 다름없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내 평생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랐어." 내가 말했다. "전부 어쩌다 운 좋게 일어난 일이었을 뿐이야."

"그럼," 래플스가 말했다. "득점이 절실할 때마다 자네가 꼭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런 행운이었군."

그는 정겨운 손을 내밀었다.

신들의 무릎

"이 전쟁에서 가장 최악인 점은 말이야," 래플스가 말했다. "사람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물론 재작년 겨울의 일이었다. 초가을 이후로는 딱히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적도 없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 때문이었다. 우리가 전쟁 초기에 피해를 입은 부류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나는 협상 과정에 아주 품위 없을 정도로 무관심했고, 래플스는 최후통첩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스포츠 도박이라도 하는 양 흥미를 보였다. 그러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이 크리스마스면 끝나리라 여겼다. 신문에서 크리켓 소식이 사라진 건 여전히 아쉬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갈색빛 도는 오후, 우리는 리치먼드에 있었다. 그런데 어떤 끔찍한 부류의 사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영국군 막대한 손실! 끔찍한 보어인 학살! 끔찍한 학살! 끔찍한 학살! 영국군 막대한 손실!" 나는 그 괴상한 사내가 저 구호를 지어낸 줄 알았는데, 래플스는 그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주었다. 그러고는 내가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래플스는 '엘란트 라흐테(Eland's Laagte)'를 발음하려고 애를 썼다.

그때부터 우리는 저녁 신문을 한 더미씩 챙기지 않고는 못 배겼다. 래플스는 아침 신문도 세 부나 주문했고, 나 역시 문학 면이 아까웠지만 내 신문은 포기했다. 우리는 전략가가 되었다. 불러 장군이 상륙할 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장군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지도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고, 지도 위에 꽂힌 깃발들은 가

만히 멈춰 있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었다. 래플스는 '건망증 심한 거지(The Absent-Minded Beggar)'가 발행되던 날 아침, 그 소식을 듣게 하려고 나를 깨우기까지 했다. 그는 그 기금에 가장 먼저 거액을 기부한 사람 중 하나였다.

이 무렵 우리의 다정한 집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다. 아주머니는 토머스에 대한 우리의 열광에 더해, '와일드 보어(Wild Boars)'라 부르는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까지 보태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매번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이 모든 일에 임하는 아주머니의 태도를 나는 곱씹어 보곤 한다. 아주머니는 이 상황을 유일한 농담거리로 삼았지만, 진정한 유머를 아는 사람답게 정작 본인은 웃지 않았다. 다만 이 모든 일의 배후라고 아주머니가 지목한 그 존경받는 신사에 대해 한마디만 던지면, 아주머니가 그를 붙잡았을 때 어떤 짓을 할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아주머니는 그를 새장에 가두고 전국 순회공연을 돌며, 매일 새로운 관객 앞에서 먹이를 구걸하며 울부짖고 춤추게 만드는 천한 곰처럼 다룰 기세였다. 하지만 나는 이보다 더 마음씨 착한 여인을 본 적이 없다. 전쟁은 우리 세입자들의 정신을 고양시켰을지 몰라도, 우리 집주인 아주머니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 충격도 무뎌졌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인으로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비극이 닥쳐왔다. 아프리카의 세 마을 이름이 피로 쓰인 채 영원히 기억될, 그 암흑 같은 일주일이 시작된 것이다.

그 주의 마지막 날 아침, 래플스가 신음하듯 내뱉었다. "세 곳 모두 아웃이야. 아주 처참하게 말이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가 처음으로 꺼낸 크리켓 이야기였다.

우리 둘 다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다. 옛 학교 동창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었는데, 래플스는 그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그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애틋한 어조로 말하곤 했다. 나는 그를 기운 차리게 해주려고 우리 근처에 있는 수많은 왕실 저택 중 한 곳을 털어보자고 제안했다. 그에게는 자극적인 사건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내게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그해 겨울, 영국에는 지난 몇 년간보다 범죄가 줄어들었다. 래플스에게는 범죄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전쟁을 비난할 수 있는 자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렇게 어둡고 침울한 날들이 며칠간 이어졌다. 래플스는 매우 낙담한 채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아침, 요먼리(Yeomanry)를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우리 모두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그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작전이 될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계획이 주는 고양감이 다른 이들만큼 나에게까지 전달되지는 않았다. 나는 여우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영국의 신사들은 나를 자신들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을 터였다. 래플스의 경우는 그 점에 있어서 더욱 절망적이었다. 로즈 경기장에서 그들과 함께 경기를 치렀던 그였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래플스 본인도 그 사실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오전 내내 나와 말도 섞지 않았고,

오후에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가 아니라, 흰 종이에 싼 작은 병을 흔들며 들어온 다른 사람이었다.

"버니," 그가 말했다. "난 한 번도 무절제하게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 그건 내게 없는 유일한 결점이지. 버니, 내 입맛에 딱 맞는 술을 찾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드디어 찾았어. 이건 내 만병통치약이자, 영약이며, 마법의 물약이야!"

그가 길에서 술을 마시고 온 줄로만 알고, 도대체 그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접 보고 확인해 봐, 버니."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정해진 횟수만 사용하면 어떤 색이든 한 때 유행했던 금발로 바꿔준다는 보증까지 붙은 여성용 염색약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그걸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라!" 그가 가슴을 펴며 외쳤다. "버니, 친구!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참으로 달콤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야!"

"전선으로 직접 나가겠다는 말인가요?"

"그 일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면 말이야."

모닥불 빛 속에 서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화살처럼 곧게 뻗어 있었고, 몸집은 왜소했으나 근육질이었으며, 겨울 산책을 마친 뒤라

얼굴에는 상기된 기운이 돌았다. 그는 활짝 웃으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동안, 내가 그를 알고 지낸 세월이, 그리고 그 이상의 세월이 내 눈앞에서 그에게서 스르르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학창 시절, 팀을 이끌던 주장으로서의 모습이 보였다. 오늘 같은 날씨에 진흙투성이가 된 공을 몰고, 양 떼를 몰고 달리는 양치기 개처럼 다른 열다섯 명의 선수 사이를 누비던 모습도 보였다. 그는 여전히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 아래로 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지만, 그 순간 갑자기 안개가 끼듯 그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그가 떠난다는 사실에 슬픈 것은 아니었다. 그를 홀로 보내둘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것은 열정이었고, 경외심이었으며, 애정이었다. 또한, 그가 지금 내 마음을 흔드는 그 본성을 그동안 왜 제대로 자극하지 못했나 하는 갑작스러운 후회이기도 했다. 일종의 작은 참회심이 전율처럼 밀려왔다. 이제 이 감정은 이쯤 해두자.

"정말 대단하시군요." 내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게 전부였다.

그가 나를 얼마나 비웃던지! 그는 이미 충분히 타석에 들어섰고, 이보다 더 멋지게 물러날 방법은 없었다. 그는 아프리카의 백만장자부터 프로 선수단, 퀸즐랜드의 입법가, 카모라 조직, 그리고 고인이 된 어니스트 벨빌 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을 상대로 점수를 냈다. 스코틀랜드 야드조차도 몇 번이고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며 이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설령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에게 죽음이란 차라리 달콤한 휴식일 터였다. 침대도, 의

사도, 고통스러운 열병도 없는 죽음 말이다. 래플스는 문득 말을 멈췄다.

"그게 더 마음에 든다면, 억지로 묶어두거나 하얀 모자를 씌우는 일은 없을 거야." 그가 덧붙였다.

"전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아주 정중하게 외쳤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인가?" 그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잠깐 의구심이 들었다. 내가 느낀 그 작은 전율이 그에게도 전달되었을까? 그는 사소한 전율 따위에 흔들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괴로움에 휩싸였다. 당연히 나도 가고 싶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맞잡아 주었지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나를 제국 요먼리로 받아줄 리 만무했다. 그때 래플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약 3초 동안 나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그가 외쳤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럴 바엔 차라리 런던 경찰청에 자수하는 게 낫겠다. 아니야, 버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케이프까지 가는 거야. 가서 거기서 입대하자고. 불규칙 기병 연대 중 하나에 들어가면 딱이야. 네가 그 큰돈을 들여 말도 좀 샀다고 들었는데, 내가 오지에서 어떻게 말을 탔는지 기억하지? 버니, 우린 그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인재들이라고. 거기 가서 출

신 성분 따위는 아무도 묻지 않을 거야. 내 이 백발이 좀 눈에 띄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입대를 거절하진 않을걸. 다만 군인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너무 튀긴 하겠지."

우리의 결심을 전해 들은 집주인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눈물부터 터뜨리셨다. 그러더니 이내 빨갛게 달군 집게로 누군가의 수염을 확 뽑아버리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리셨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였든 간에 그 착한 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다. 아주머니가 놀라신 건 아니었다.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도둑을 쫓을 만큼 용감한 신사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 용맹한 심장들을 축복하며 받아들이셨을 뿐이다. 나는 래플스에게 눈짓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1월 말 무렵의 래플스는 머리카락이 붉게 변해 있었는데, 그 모습이 가져온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그가 공들여 준비했던 그 어떤 정교한 변장도 이 단순한 방법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여기에 카키색 옷까지 갖춰 입어 개성을 완전히 죽여버린 덕분에, 그는 현장에서 정체가 탄로 날 걱정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장교였다. 전선에는 그와 닮은 이들이 워낙 많았기에, 우리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2월 초에 2등석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수의를 두른 듯 음산하고 찰흙처럼 차가운 날이었으나, 바로 그렇기에 햇살 가득한 전선으로 떠나기에 더없이 완벽한 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을 마지막으로 뒤로하고 떠나려니 마

음이 무거웠다. 그 무게는 마치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래플스가 다가와 내 곁의 난간에 몸을 기대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 이제 그만둬야 해." 그가 말했다. "버니, 우리가 돌아오든 못 돌아오든 그건 신들의 뜻에 달린 문제야.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신들의 어깨 너머를 내다볼 수는 없다고."

II

래플스가 훌륭한 군인이 될 재목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나는 (마음만큼은 아니더라도) 형편없는 군인이었다. 나 자신에 대해 이보다 더 가혹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군사 문제에 관한 나의 무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그 무지함은 지금도 여전하다. 한때는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나는 언제나 말 다루는 데 서툰 바보였고 총을 다루는 데도 재주가 없었다. 평범한 영국 병사들이 나보다 지적 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의 어떤 부분만큼은 내가 내 일에서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죽는 법조차 배우지 못한 셈이다. 그렇다고 내가 겁쟁이라서 도망이라도 쳤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내가 도망이라도 쳤더라면, 남아프리카 원정군이 조금이라도 더 강해졌을지도 모르니까.

앞서 한 말들은 정복 영웅이 흔히 갖는 기개를 깔보며 그보다 잘난 척하려고 꾸며낸 자세가 아니다. 전쟁에 뛰어들기 전의 나만큼 그 전쟁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잘 해낸 일(서비턴에서의 그 작은 사건 같은 일)에

대해서는 신이 나서 써 내려갈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는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다른 이유로 인해 이제는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조차 넌더리가 나기 때문이다.

전장도, 병영도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나의 서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합류한 그 오합지졸 부대원들은 나를 약탈과 욕설, 허세가 난무하는 무리 속에서 조롱거리로 삼았다. 만약 래플스가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래플스는 곧 그 무리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악동이 되었지만, 나에게만큼은 그 누구보다 충실한 친구였다.

벽난로가에 앉아 큰소리치는 호전론자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는 모든 싸움이 오직 적군과 벌이는 것이라고만 상상한다. 그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기겁할 것이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오히려 건너편 참호에 앉아 있는 수염 난 저격수가 주는 공포보다, 같은 군복을 입은 동료에게 느끼는 증오가 훨씬 더 지독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벽난로가에 앉아 이야기를 즐기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여러분도 나를 그런 모습으로 본 적이 있을 테니), 코널 상병과 벨링엄 대위, 장군, 래플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바친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나는 말을 아껴야만 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부대는 전투 중이다. 내가 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곧 알게 되겠지만, 래플스도 코널 상병도 마찬가지다. 온갖 땅에서 온, 거칠게 살고 그보다 더 거칠게 죽어가는 그 사내들도 여느 때처럼 용맹

하게 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어디서 맞붙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이들만큼 규모가 비슷하면서도 이토록 영웅적인 공을 세운 부대는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자면 전장 밖에서 이미 평판이 나빠진 상태였다. 그런 그들에게 래플스와 나, 그리고 저 무뢰한 코널까지 한데 묶어 세상 앞에 내놓음으로써 그들의 명성을 더 깎아먹고 싶지는 않다.

그 친구는 아주 잡다한 배경을 가진 놈이었다. 태생도, 성장 환경도 글래스고 출신 아일랜드인이었지만, 남아프리카에서 수년간 지낸 덕분에 현지 사정만큼은 아주 훤했다. 게다가 식민지 놈들이 다 그렇듯 말 타는 솜씨도 제법 좋았다. 이런 점들 덕분에 그는 사병에서 처음으로 한 계급 진급할 수 있었는데, 타고나길 약자를 괴롭히는 자에다 체격까지 그에 걸맞은 자에게는 그런 자리야말로 괴롭힘질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 코널은 거구의 불량배였고, 그에게 나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 무식한 놈은 내가 합류한 첫날부터 나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자세한 사정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맞섰고 나중에는 몇 초간 몸싸움까지 벌였다. 그러다 결국 나는 황소처럼 힘없이 쓰러졌고, 그때 래플스가 텐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둘의 싸움은 20분 동안 이어졌고 래플스도 상처를 입었지만, 결과는 아주 뻔했다. 코널은 더 이상 괴롭힘을 일삼는 불량배가 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점차 그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전투를 치르고 있었던 셈이다. 비록 대규모 교전은 아니었을지라도, 적과 완전

히 접촉이 끊긴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덕분에 나는 또 다른 적, 즉 코널이 적의 포화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그의 사격이 한결같이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훨씬 더 명백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어느 날 밤, 우리 대대의 세 분대가 지난주에 순찰했던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분대는 남아서 대기해야 했다. 장교와 하사가 모두 장티푸스로 입원하는 바람에, 그 악질 상병이 우리 분대의 지휘를 맡게 된 것이다. 다행히 대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코널은 다른 세 중대가 야영 중인 곳으로 이른 아침까지 이동하라는 막연한 명령을 받은 듯했다. 우리가 할 일은 군장과 식량, 그리고 탄약이 실린 대대 수송차 두 대를 호위하는 것이었다.

동이 트기 전, 코널은 지휘관에게 출발 보고를 마쳤다. 우리는 회색빛 새벽녘에 전초 기지들을 지나쳤다. 비록 내가 부대에서 가장 눈치 없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코널 상병에 관한 일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즉각 머릿속을 스쳤다. 구체적인 이유는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지난주 순찰대가 동서 양방향으로 카키색 촉수를 뻗어 나갔을 때 동쪽에서는 퇴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향하는 곳은 바로 그 동쪽이었다.

나는 곧장 말에 박차를 가해 래플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구릿빛 피부에 수염을 기른 채 말을 타고 있었다. 매처럼 날카로워진 눈 위로는 전쟁에 닳은 챙 넓은 펠트 모자를 눌러썼고, 앞니 사이로는 짧은

파이프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수척하고 엄숙하면서도 특유의 세련미를 잃지 않았던 모습. 예전의 경박함은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당시의 나는 그저 그가 나의 불안 섞인 우려를 보고 미소만 지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지시를 받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받은 건가, 버니? 뭐, 좋다. 그렇다면 악마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설득되었다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우리는 그렇게 대낮의 밝은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갔다. 그러다 래플스가 깜짝 놀라 휘파람을 불기 전까지는 말이다.

"버니, 세상에! 백기라니, 맙소사!"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대대에서 시력이 가장 좋다는 그였기에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우리 대부분의 눈에 불길한 징조로 읽히던 그 펄럭이는 깃발이 내 눈에도 분명히 들어왔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덥수룩한 보어인이 털이 텁수룩한 조랑말을 타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는 깊게 파인 눈을 반쯤 겁에 질린 채, 반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어떤 서신을 품고 우리 진영으로 향하던 중이었기에 우리에게 할 말은 거의 없었다. 비록 수많은 기병이 말 안장 위에서 그에게 가벼운 농담이나 실없는 질문들을 쏟아부었을지라도 말이다.

"저쪽에 보어인이 있나?" 한 사람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며 물었다.

"입 다물어!" 래플스가 단호하게 말을 끊으며 꾸짖었다.

보어인은 무표정하고 둔해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우리 쪽 사람 중에도 있나?" 다른 이가 덧붙였다.

보어인은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띤 채 말을 타고 떠나갔다.

믿기 힘든 결론은 이러했다. 불과 한 시간 만에 우리는 적진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를 중심으로 양옆 1.5마일 거리에는 적군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일 만큼 가득했다. 만약 코널을 제외한 우리 대원 모두가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겠다고 버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보어인들이 이 미친듯한 기동을 보고는 필시 어떤 교묘한 책략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분명 포로로 잡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리가 물러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리가 물러났느냐고? 당연하다. 카피르 마부들은 겁에 질려 미친 듯이 채찍을 휘두르며 수레를 몰았고, 우리의 소중한 상병은 뚱한 표정이었으나 결코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뒤를 따랐다.

이것이 사건의 결론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랬다는 말을 다시 꺼내려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코널이 대령 앞에 끌려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지시는 서면으로 된 것이 아니

었기에, 그는 특유의 대담함과 재치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위기를 모면하고 말았다.

"저쪽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대령님." 그가 단호하게 되물었다. 다행히도 명령 자체가 워낙 모호하게 내려진 덕분에, 그는 일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분개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저 친구, 분명 스파이야!"

그날 밤, 진영 안을 거닐며 나는 래플스에게 말했다. 아이들이나 쓸 법한 상스러운 욕설은 섞지 않은, 꽤 진지한 말투였다.

그는 그저 내 얼굴을 마주 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제야 알게 된 거야, 버니? 난 우리가 부대에 합류한 이후로 거의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드디어 그놈을 아주 제대로 낚았다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야!" 내가 외쳤다. "그놈은 개처럼 총살당했어야 했어."

"목소리 좀 낮춰, 버니.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긴 하지만, 난 너만큼 이번 일에 미련이 남지는 않아. 그렇다고 내가 너보다 덜 잔인해서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훨씬 더 잔인하지! 버니, 난 내 손으로 직접 그

놈을 아웃시키고 싶어 미칠 지경이야. 물론 네가 위켓을 잡아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동안은 너무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지 마. 그 친구를 여전히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예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놈의 적이 될 필요는 없단 말이지."

글쎄, 나도 그 충고를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맹세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래플스 같은 사람이라야 매 순간 자신의 표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알다시피 표정 관리는 내 장기가 아니었다. 대체 내가 무엇을 했기에 그 배신자 상병이 의심을 품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는 눈치를 채고도 내색하지 않을 만큼 영리했고, 곧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처럼 상황을 역전시킬 만큼 운도 좋았다.

III

우리가 도착한 이후 블룸폰테인은 함락되었으나, 프리 스테이트 사람들의 투지는 여전히 뜨거웠다. 우리 부대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승부의 맛을 보여준 이들이 바로 그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규모 교전을 치러야 했고, 때로는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큰 전투에 휘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굳이 그 전투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사실 그러는 편이 훨씬 낫다.

다행히도 나는 전쟁의 참상을 낱낱이 묘사할 필요는 없다.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 두 사람과,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동료들이 겪은 무용담뿐이다. 코널 상사는 여러분이 이미 보았던 그 위험한 악당이다. 벨링엄 대위는 1, 2년 전 타율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로는 다섯 번의 테스트 매치에 단 한 번도 선발되지 못한 인물이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 그는 그저 래플스를 알아본 장교로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마을 하나를 점령했고, 그 마을과 우리 자신 모두 꽤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마을에는 제국군 신병 부대까지 추가로 배치되어 우리 쪽 전력이 더욱 보강된 상태였다. 몇 주 만에 맞이한 첫 휴일이었지만, 래플스와 나는 그 시간을 온통 보냈다. 벨트 지역으로 밀려나며 좋은 와인 저장고를 뒤로하고 떠나온 요먼(Yeomen)들이나 다른 병사들이 겪었을 법한 갈증을 달래줄 만한 것을 찾으려 마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우리 둘 다 예전의 그 버릇이 되살아났지만, 당시에는 나만이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술을 넉넉히 챙겨 집을 나서려던 찰나, 우리는 한 보병 장교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었고, 햇빛을 받은 그의 단안경은 우리를 향해 번뜩였다.

"피터 벨링엄이라니!" 래플스가 나직이 숨을 들이켰다. 우리는 경례를 붙이고는 서둘러 지나치려 했다. 카키색 제복 아래로 술병들이 부딪치며 마치 교회 종소리처럼 챙그랑거렸다. 하지만 벨링엄 대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자네들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 그가 느릿하게 말을 늘어뜨리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결백한 이들처럼 항변했다.

"약탈은 금지되어 있네." 그가 말했다. "그 병들을 이리 내놓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제 끝났어." 래플스가 속삭였다. 우리는 그가 아까 그 부적절한 순간에 기어 넘었던 그 낮은 선반을 곧장 사이드보드 삼아 술병을 늘어놓았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어 앞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장교가 먼저 침묵을 깨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우암 바르!" 마침내 그가 경외심을 담아 중얼거렸다. "게다가 벤 네비스의 롱 존이라니! 이 시끄러운 찬송가 합창단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술 한 방울이로군! 자네들 둘은 어느 부대 소속인가?"

내가 대답했다.

"이름을 대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나는 진짜 이름을 말해버렸다. 래플스는 마치 우리가 놓쳐버린 전리품을 생각하며 상심에 빠진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그 장교가 겁이 날 정도로 심각한 표정으로 래플스의 옆얼굴을 살피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 이름이 대체 뭐야?" 마침내 그가 쏘아붙이듯 물었다.

하지만 그의 낮고 기묘한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래플스는 자백이자 긍정의 의미를 담은 짧은 단음절로 그에게 맞섰다. 다음 말이 터져 나오기까지 몇 초가 흘렀는지 나는 헤아리지 못했다. 마침내 입을 연 것은 벨링엄 대위였다.

"죽은 줄 알았잖아."

"이제 보시다시피, 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또 예전처럼 장난을 치고 있군요!"

"아닙니다!" 래플스가 외쳤다.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어조였다. 그토록 격분한 목소리는 좀처럼 듣기 드문 것이었다. "맞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이건 장물이고, 결국 나쁜 놈은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죠. 피터—아니, 실례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놈이 현장에서 바로 들통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들만큼이나 정당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노—선생님."

대위가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을 듣더니 나를 경멸 어린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자네가 헤엄쳐 도망칠 때 같이 잡힌 놈이 이 친구인가?" 대위가 다시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물었다. 래플스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우리가 의용병으로서 얼마나 결백한지를 두고 격정적으로 맹세까지 했다. 그의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장교의 시선은 다시 계단 앞의 술병들로 향했다.

"하지만 저것 좀 보게." 그가 말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타오르는 듯한 그의 얼굴에 서려 있던 날카로운 눈빛이 이내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내 텐트에는 스파클렛(Sparklets)뿐인데." 그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자네라면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겠지!"

래플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 점은 분명하다. 그러다 갑자기 벨링엄이 자신의 텐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이더니, 햇살이 내리쬐는 몇 걸음 정도의 거리만 남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텐트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 물건들은 직접 챙겨가면 돼." 그는 어깨너머로 한마디 던지며 덧붙였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는 게 좋을 거야."

몇 야드 앞서가던 기병 한 명이 그에게 경례를 건넸다. 우리가 전리품을 챙겨 뒤따라가자 그는 우리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우리 부대의 코널 상사였다. 그를 생각하면, 그날 증원군과 함께 우리 부대에 합류한 아주 용맹한 대위님에 대한 생각은 싹 달아나 버리고 만다. 나조차도 그 상사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다. 대위는 자기 막사에서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어 내놓곤 했는데, 우리가 떠날 때 자기 몫으로는 병 두 개만 남겨 두었다.

오랫동안 술을 멀리해 온 탓에 다들 술기운에 금방 취해버린 덕분인지, 우리 장교는 우리가 이번만큼은 정말 정직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믿어주었다. 그와 함께 보낸 한 시간 중 50분 동안, 대위와 래플스는 쉬지 않고 크리켓 이야기만 나누었다. 헤어질 때는 심지어 악수까지 나누었다. 그건 대위의 머릿속에 든 롱 존(위스키)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 속물(대위)은 나에게는 단 한 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이제 우리 분대의 상사로 남아 있던, 그 교수형감인 사내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래플스가 그토록 바라던 결말과 배신자의 운명이 그에게 닥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전진을 재개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벌어지고 있던 거대한 포위 작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미미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시금 거센 포화가 쏟아지던 중, 코널이 오른손에 총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여러 면에서 기묘했다. 무엇보다 아무도 그가 총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듯했다. 비록 살점만 스친 상처였으나 피가 꽤 많이 흘렀다. 어쩌면 그 피 때문에 외과의가 상처를 처음 보았을 때는, 나중에야 깨닫게 된 '자해의 흔적'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코널은 오른손을 다친 탓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사격 전선에 복귀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환자가 가득한 야전 병원에 입원할 만큼 중상도 아니었다. 결국 코널은 우리가 돈가(donga)에 안전하게 대피시켜 둔 말들을 돌보는 관리직을 자처했다.

말들을 그곳으로 옮기게 된 경위는 이러했다. 그날 아침, 우리는 C.M.R. 부대를 지원하라는 신호를 헬리오그래프(heliograph)로 받고 이동했다. 하지만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적들은 아주 정밀하게 사정거리를 계산해 두고 있었다. 병사들이 숨을 참호는 있었으나, 말들을 보호할 안전한 장소는 우리 진지에서 보어인들의 진지로 길게 뻗은 좁은 돈가뿐이었다. 그래서 우리 중 몇몇은 파편이 윙윙거리고 총알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날아드는 가운데, 말 여섯 마리를 한꺼번에 몰아 그곳으로 질주했다.

벨트(veldt) 초원 위에 남겨진 참혹한 광경이 지금도 기억난다. 내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포탄에 맞아 말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고, 그 자리에는 뒤엉킨 마구와 찢겨 나간 말의 살점, 그리고 붉게 물든 카키색 군복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또한,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같은 돈가의 입구에는 골프장의 퍼팅 그린을 표시하는 깃발처럼 우스꽝스러운 작은 붉은 깃발이 꽂혀 있었다. 나는 무사히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날 저녁, 코널은 몇몇 가벼운 부상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자원했던 임무를 맡았다. 그는 말에 대한 지식과 현지 사정에 밝았기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적임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날 밤 사이에 훌륭한 군마 서너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이른 새벽, 하루 종일 사격을 하느라 누워 있던 참호 속에서 래플스가 나를 흔들어 깨워 깊은 잠에서 깨웠다.

"찾았어, 버니." 그가 속삭였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그놈의 정체를 밝혀내야 해."

"코널인가?"

래플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그 사람 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글쎄, 본인이 직접 풀어줬다니까."

"말도 안 돼!"

"그건 내가 직접 본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확실해." 래플스가 말했다. "만약 그가 한 번 더 그런 짓을 한다면, 그때는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어.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도 말해줄 수 있지. 코널이 동가(donga)의 한쪽 끝을 독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 당연히 그쪽 끝이 보어(Boer) 군대와 더 가까운 곳이었지. 그러고 나서 코널은 다른 대원들에게 자기들 쪽 끝에서 잠을 자라고 말했어. 이건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야. 대원들도 두말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쪽으로 갔겠지. 나머지 상황은 오늘 밤에 직접 확인해 보겠어."

"도저히 믿기지 않는군요." 내가 말했다.

"라이트 호스먼(Light Horseman) 부대가 급수통에 독을 타서 교란했던 수법도 그만큼이나 지독했지. 크리스마스 전 레이디스미스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때도 친절한 친구 두 명이 그 악당을 처리해 줬고, 나머지 일은 총살대가 마무리했지. 짐승 같은 놈들! 이 나라에서는 기병 한 명이 보병 한 개 소대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 그놈들도 아주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 일은 독을 탄 것보다 한 수 더 위야. 독을 탄 건 고의적인 낭비였지만, 만약 어젯밤 우리의 손실이 적에게 두 배의 이득을 안겨준 게 아니라면 내 명예를 걸지. 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그놈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덮치는 것. 밤새도록 감시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 보상이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겠어?"

지나가는 말로 덧붙이자면, 그 접점에서만큼은 적군의 세력이 우리보다 우세했다. 게다가 그들은 드물게도 우리만큼이나 공격적인 기세

를 보였다. 적의 지휘관들은 전쟁의 이 단계의 다른 지휘관들과는 달리, 아주 과감하고도 능숙하게 군대를 몰았다. 적의 진지 또한 우리와 매우 흡사했다. 실제로 우리는 다음 날 내내 서로를 몰아내기 위해 똑같이 끈질긴 기세로 맞붙어야 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한편, 그때는 전투 전야였다. 사실 거의 매일 저녁이 전투 전야나 다름없었지만 말이다. 돈가에 말을 숨겨둔 그 악당을 쫓아, 우리 두 사람은 지금 그의 흔적을 뒤쫓고 있었다.

래플스의 계획은 우선 현장을 정찰한 뒤, 적절한 위치를 잡는 것이었다. 그곳은 타깃을 계속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바로 덮칠 수 있는 자리여야 했다. 우리가 결국 선택해 은밀히 자리를 잡은 곳은 덤불 뒤편이었다. 그 덤불 사이로는 아래쪽 동가(donga)가 훤히 내려다보였다. 그곳에는 값비싼 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찾던 부상당한 상병이 있었다. 그는 망토를 걸친 채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무릎 위에는 무언가 번쩍이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저건 그놈의 리볼버야. 마우저 모델이고." 래플스가 낮게 속삭였다. "우리가 근처에 있다는 걸 눈치채기도 전에 덮치거나, 아니면 바로 신고해야 해. 그래야 저놈이 총을 쓸 기회조차 없을 테니까. 확실해지기만 하면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난 직접 저놈을 붙잡고 싶군."

달이 지고 있었다. 그림자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검었다. 그 남자는 묵묵히 담배를 피웠고, 배가 고픈 말들은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행동을 했다. 말들은 가만히 서서 서로의 꼬리를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탁 트인 대지 위로 펼쳐진, 훨씬 더 광활하고 웅장해 보이는 보석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노숙하는 데 익숙했다. 나는 말들의 울음소리와, 지금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벨트 초원의 수많은 작고 기묘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누워 있었다. 그동안 래플스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들키고 싶지 않을 때는 머리 하나가 둘보다 낫지." 래플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교대로 보초를 서기로 했고, 래플스가 잠들 수만 있다면 다른 한 명은 잠을 자도 좋았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오직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래플스 때문이었다. 결국 래플스가 나를 깨웠을 때, 서로를 탓하며 다툴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별을 올려다보며 평화로운 정적의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 거대한 회색 판석처럼 하늘은 깨끗이 비워졌고, 내 온몸의 뼈는 석고로 굳은 듯 뻣뻣해졌다. 날이 밝아오며 참호 사이로 저격이 시작되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음은 아니었으나, 가끔씩 들리는 파열음이 있었다.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총알의 휘파람 소리나, 푸른 언덕 위 사물의 윤곽을 스치듯 지나가는 찰나의 불꽃은 불길한 경고였다. 우리가 있는 이 참호 자체가 적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래플스는 적의 사격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덤불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는 코널 상병이 우리를 등진 채 서서, 보어인들의 참호

를 향해 동가(donga) 입구에서 마지막 군마 한 마리를 몰아내고 있었다.

"벌써 세 번째야." 래플스가 나직이 속삭였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똑똑히 목격한 건 처음이지. 동트기 직전의 사각지대를 기다렸다가 움직였거든. 이 정도면 충분히 덜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어. 슬금슬금 다가갈 준비 됐나?"

나는 몸을 쭉 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아침이 이토록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고양이처럼 숨을 죽이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온 힘을 다해 덮치는 거야. 놈이 총을 안전하게 치워두긴 했겠지만, 그걸 더듬어 찾을 시간조차 주지 않을 거다. 버니, 자네는 놈의 왼팔을 잡아. 마치 페릿이 먹잇감을 물고 늘어지듯 꽉 붙잡고 있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준비됐나? 그럼, 지금이야!"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우리는 동가(donga)의 벼랑 끝을 넘어 내려갔다. 그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우리는 그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놈은 잠시 동안이나 맹수처럼 날뛰었다. 나는 지시받은 대로 그놈의 왼편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놈은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러나 곧 그놈은 기운이 빠진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놈은 스코틀랜드식 억양과 거친 사투리가 뒤섞인 기묘한 말투

로 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놈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곧 뒤따랐다. 래플스가 그놈의 등 뒤에서 오른 손목을 꺾어 허리춤에 단단히 고정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순간, 래플스가 내뱉은 말 덕분에 그놈은 자신을 덮친 이들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눈치챘을 것이다.

"결국 당신들 두 사람이었군!" 그가 외쳤다. 그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뿌리치려 애쓰지 않았다. 욕설도 멈춘 채, 대신 혼자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자,"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들 둘 다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이지만, 내가 그 말고도 당신들이 어떤 놈들인지 하나 더 알고 있거든. 그러니 순순히 놓아주는 게 좋을 거야."

몸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래플스가 이토록 당황하는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래플스의 손아귀에 힘이 풀렸던 모양이다. 그 틈을 타 붙잡힌 자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그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압박했다. 곧이어 고통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초록빛과 노란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다.

"손목 부러지겠어!" 그가 마침내 비명을 질렀다.

"그럼 가만히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 보시지."

그는 가만히 서서 우리의 진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다. 하지만 래플스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알아냈는지 끝까지 듣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러고는 마치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저주받을 개는 그날 저녁 벨링엄 대위의 천막까지 우리를 뒤쫓아 왔다. 그리고 스파이라는 제 본업에 충실했던 그 영악한 놈이 남은 일을 완벽히 마무리 지었다.

"이제 그만 나를 보내주는 게 좋겠어." 상황을 주도하는 그가 말했다. 적어도 나로서는 그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빌어먹을, 두고 보자고." 래플스가 사납게 내뱉었다.

"그럼 넌 이제 끝장이야, 이 건방진 범죄자 놈아. 도둑놈 래플스! 사교계의 도둑 래플스!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 활개 치고 다니는군.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14년형이나 선고해 버려. 그러면 아주 좋아 죽겠지, 안 그래!"

"자네가 먼저 총살당하는 걸 듣는 즐거움은 누리겠군." 래플스가 이를 악물며 대꾸했다. "그것만으로도 그 14년형을 견딜 만하겠지. 가자, 버니. 저 돼지 같은 놈들을 몰아내고 얼른 끝내버리자고."

우리는 그를 몰아붙였다. 그는 욕설을 퍼붓다가도, 비굴하게 달래기도 하고, 발버둥을 치거나 기세등등하게 웃어대기도 했으며, 때로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래플스는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그의 얼굴에는 비극적인 기색이 역력했고, 그 모습이 내 가슴을 후벼파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지만 말이다. 당시 나는 붙잡은 손에 힘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죄수의 간청에 못 이겨 나 역시 그에게

애원하듯 말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래플스는 내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맹세컨대, 나는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전에도 후에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굳게 다문 회색빛 얼굴을 나는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코널을 경비용 천막으로 끌고 가게." 지휘관이 명령했다. "그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자네가 듣기에 저놈 말이 맞는 것 같나?"

"그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장군님."

"그 악명 높은 래플스가 그동안 살아있었다니, 정말 자네가 그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전선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어쩐지 래플스가 미소를 지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서린 엄숙한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코널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렸을 때 동가에서 나타났던 그 잿빛 창백함도 그대로였다. 오직 마지막 질문을 들었을 때, 그의 눈동자만이 형형하게 빛났다.

"싸우고 있습니다, 장군님." 그가 말했다. 마치 군대의 하급 장교가 대답하듯 아주 담백한 말투였다.

지휘관은 희끗한 머리를 눈에 띄게 까닥였을 뿐,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우리 장군님은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는 분이었다. 자신만의 방식이 확고했고, 우리는 그분과 그 방식 모두를 사랑했다. 장군님 또한 자신의 이름을 짊어진, 거칠지만 용맹한 우리 군단을 아끼셨으리라 믿는다. 언젠가 장군님은 우리 대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래플스가 저지른 일들 중에서도 분명 장군님의 귀에 들어간 것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장군님은 그저 희끗한 머리를 까닥이는 것으로 그만두셨다.

"그가 자네를 밀고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그가 경비병 천막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한참 만에 물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군, 그렇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군님."

장군은 결심을 내리려는 듯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잠시 말을 멈췄다. 이윽고 결단을 내린 듯 턱을 치켜올렸는데,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점이었다.

"이 모든 걸 낱낱이 파헤쳐 보겠네." 그가 말했다. "어떤 장교의 이름이 언급되었으니, 내가 직접 그를 만나보지. 그동안 자네는 계속 싸우는 데 전념하게나."

IV

코널 상병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적군이 점령한 언덕 위로 해가 높이 뜨기도 전이었다. 래플스와 내가 직접 증언한 것 외에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쳤다. 결국 그 불쌍한 놈은 제대로 된 예우도, 참회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총살당했다.

동가(donga)가 내려다보이는 덤불 뒤에 숨어 맞이한 그날, 유일하게 다행스러운 일은 바로 그것뿐이었다. 정오가 되자, 다음 차례는 내게 돌아왔다.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내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다. 앞선 페이지들만 읽어서는 내가 평생 어느 정도 절뚝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왜 그 사건을 서둘러 떠올리지 않았는지 곧 알게 될 터다. 예전에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입은 상처야말로 남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내 상처를 마주할 때마다 매일 아침 우울함이 밀려온다. 이 상처는 우선 한 가지로는 나의 느린 눈 때문이었다. 은폐물을 찾아내는 눈이 더뎠던 탓이다. (설상가상으로도) 우리 부대의 강점은 바로 그 은폐물을 찾아내는 능력에 있었으니 말이다.

총알이 허벅지를 그대로 관통하며 뼈를 뚫고 지나갔다. 다행히 좌골신경은 비껴갔기에 통증이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대로 바닥에 갈색 덩어리처럼 고꾸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언덕을 점령해 진지를 확장하고자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 전진하던 중이었다. 바로 그

순간 적의 사격이 너무 거세지는 바람에, 우리는 몇 시간 동안이나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한 채 갇혀버렸다.

하지만 채 일 분도 지나지 않아,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래플스가 내게 다가왔다. 다음 순간 나는 얕은 바위 뒤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래플스는 그 살벌한 포화 속에서 내 위로 무릎을 꿇은 채 내 붕대를 풀고 있었다. 내가 좀 더 몸을 낮춰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그건 신들의 무릎에 달린 일이라며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말투가 아침에 보았던 그의 표정만큼이나 변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동료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친 그는, 내가 몸을 숨긴 그 바위 뒤로 몸을 붙였다.

그렇게 우리는 눈이 멀 것 같은 태양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포화 아래, 벨트 초원 위에 함께 누워 있었다. 부상당한 내 눈앞에서 일렁이며 어른거리는 벨트의 풍경을 묘사해야 할 것 같지만, 눈을 감아보아도 떠오르는 것은 오직 래플스의 날카로운 갈색 얼굴뿐이었다. 평소보다 한결 창백해진 그 얼굴은, 때로는 시야를 확보하려 몸을 숙이고, 때로는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크게 뜬 채 전황을 살피다가, 이내 나를 돌아보며 굳게 다문 내 입술을 미소 짓게 할 말을 건네곤 했다. 그는 내내 말을 이어갔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 너머를 볼 수 있었겠는가. 그 순간 내게 래플스는 곧 전투 그 자체였고, 지금 돌이켜보니 그는 내게 전쟁 그 자체였다.

"담배 한 대 피울 기운은 있어? 정신이 번쩍 들 거야, 버니. 아니, 저 은색 종이에 싸인 걸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둔 거니까. 자, 불 붙여줄게. 그래, 버니가 설리번을 선택했군! 스포츠맨 정신이 투철한 토끼에게 경의를!"

"적어도 쓰러지기는 토끼처럼 쓰러졌으니 다행이지."

나는 푸른 하늘에 유일하게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구름이 좀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 봐." 래플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딥 롱온 쪽에 회색 펠트 모자가 하나 보여. 저것도 복수의 전리품으로 챙겨야겠어. 잠깐만…… 그래, 아, 아니네. 운이 없군! 좀 더 높게 쳐 올려야겠어. 이런! 탄창이 비었잖아. 버니, 설리번은 어떻게 돼 가? 다리에 구멍이 뚫린 채로 벌판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다니, 참 묘한 노릇이군!"

"정말 기운이 나네요." 내가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래플스는 탄띠에 탄약을 채워 넣으며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우리가 처음 전쟁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날, 기억나나?" 그가 나직하게 물었다. "분홍빛 안개가 서린 강가의 빛이 눈에 선하네. 가만히 서 있으면 살을 에듯 차갑던 그날의 공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 그 둘 중 하나라도 지금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끔찍한 학살, 끔찍한 학

살!' 그 친구의 얼굴도 눈앞에 아른거리는군. 그가 외치던 그 말도 말이야. 이게 고작 반년 전 일이라는 게 믿어지나?"

"그래요." 나는 그 오후를 떠올리는 것이 그보다 그리 즐겁지 않았기에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우리 사이도 불이 붙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요."

"너무 느려." 그가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막상 물고 나면," 나는 차라리 그런 적이 없었기를 바라며 말을 이었다. "금방 다 타버리고 말았지."

"그러고는 밖으로 나갔지." 래플스가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다시 총을 장전한 상태였다. "회색 펠트 모자를 향해 또 한 오버다." 그가 덧붙였다. "세상에, 내 생각엔 그놈이 나를 상대로 한 오버를 던지는 것 같아!"

"조심 좀 해." 내가 다급히 말했다. "나도 그 소리를 들었어."

"이보게, 버니. 자네도 알다시피 이건 그 신들의 무릎에 달린 일이라네. 설계도에 뭐라도 적혀 있다면 분명 그게 적혀 있을 거야. 게다가— 아까 그게 훨씬 더 가까웠다고!"

"당신에게요?"

"아니, 그 사람한테 말이야. 불쌍한 친구,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 방금 던진

공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네. 와이드였을지도 모르겠어. 이제 곧 오버가 끝날 시간이야. 버니, 몸 상태는 좀 어때? 더 안 좋아진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 계속 말해봐."

"이 일에 너를 끌어들인 건 바로 나야." 그가 다시 탄띠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니, 오히려 나오길 잘했어."

어쩌면 나는 여전히 그러했던 것 같다. 상처의 통증이 점차 잦아들던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꽤 근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그 기묘한 감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정말이지,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아니, 자네는 나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걸!"

"아마 아닐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던가, 아니면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인가. 몰려오는 통증과 과다출혈이 내 감각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감각이 무뎌졌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다리 전체가 살아 움직이듯 욱신거렸다. 다리가 아예 느껴지지 않다가도, 다시 온몸의 신경이 다른 곳으로 쏠리며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사방에서는 악마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다. 신문 기사에서나 흔히 접할 법

한 온갖 끔찍한 악기들이 내 주변을 에워싸고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래플스의 목소리뿐이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 버니."

그렇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떨림은 아마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리라.

"알고 있어, 친구." 내가 말했다.

"오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장군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맹세코 말이죠!"

"무슨 일이야?"

나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도 그 눈빛이 눈에 선하다.

"잡았다, 모자를 잡았어! 아니, 젠장, 못 잡았군. 적어도 그놈이 모자를 쓰고 있지는 않았어. 교활한 놈, 일부러 모자를 올려둔 게 분명해. 또 한 오버군…… 점수가 너무 안 나는데. 눈치껏 알아챌 만큼 스포츠맨십이 있는 놈일까? 저 녀석의 모자 수작은 어리석은 짓이야. 내가 얼굴을 내밀면 그놈도 얼굴을 보여줄까?"

나는 귀와 눈을 모두 닫은 채 누워 있었다. 다리에는 다시 감각이 돌아왔지만, 나머지 몸은 온통 감각이 없었다.

"버니!"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분명 몸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요?"

하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버니, 솔직히 말하면 난 거의 확신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짐작만 할 뿐이다. 그 문장은 끝맺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끝맺을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